

제424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30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상임)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추가)
6.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7.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2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상임) 증인 출석요구의 건 65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65
- 의사일정 변경의 건 86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86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87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7
6.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77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7
7.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77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178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KT 사태 관련한 청문회가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10시01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3항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YTN 매각 등 방송장악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큼니다.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4시간 이내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유심 교체 등 사후 대처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느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 SK텔레콤 대표이사는 1시 반까지 출석하기로 사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일정은 1시 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1시 반 이전에는 SK텔레콤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십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십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이십니다.

김백 YTN 사장이십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이십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직무대행이십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십니다.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십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현 수도권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십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육군 정훈감이십니다.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십니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이십니다.

김경록 YTN 사외이사이십니다.

조성인 YTN 사외이사이십니다.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 부문 리더이십니다.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이십니다.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이십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십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이십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십니다.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님은 청문회 끝날 때까지 계실 겁니다.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십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십니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이십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십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십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십니다.

(인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53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증인 26명, 참고인 4명이 불출석하였으며 24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의 주무부서임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해외 출장 나가시기 전에 SK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견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증인 유영상
증인 김태규
증인 김영관
증인 박동주
증인 조성은
증인 배중섭
증인 이현주
증인 조성현
증인 박성훈
증인 김진구
증인 강희석
증인 김백
증인 김경록
증인 조성인
증인 홍준기
증인 송연주
증인 정기환
증인 김장현
증인 김경훈
증인 김정한
증인 류정환
증인 강도현
증인 김유열
증인 이상중
증인 정수옥

○위원장 **최민희**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할 순서입니다.

김홍일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홍일** 제가 아까 소명서에 제출한 것처럼 작년 6월 28일 그리고 금년 4월 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이상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인 방금 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2024년 6월 28일 그리고 2025년 4월 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형사고발되어 지금 현재 피의사건이 수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해서 오늘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증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두 증인 다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소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인데요.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입니다.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서 거부의 사유가 됩니까? 애매하지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인데 그 부분보다는 이게 아직……

고발당한 이후로 수사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조사받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불러 가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김홍일 증인?

없습니다.

○증인 김홍일 아직 소환은 안 받았지만 어차피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 12조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 1항이 결국 그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생각하시는 거고요. 기소도 아직 안 됐고……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검경이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발된 모든 사람은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인 선서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증인 선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증인 선서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앞으로 할 답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청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2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오늘 청문회의 핵심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지난 25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도망치듯 방심위를 떠났지만 그는 정부의 해촉 인사발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시다.

방심위를 윤석열 언론장악의 도구로 악용해 온 당사자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방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마저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뻔뻔하다며 혀를 차실 겁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엉터리 변명과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대

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본인의 출석이 방심위 독립성,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방심위를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 도구로 만들어서 독립성, 신뢰성을 스스로 파괴한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류희림 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유채 이탈 화법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증인 채택 사유는 추상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부민원과 방송 탄압, 언론통제 등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인데 문제의 당사자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추상적 운운하면서 국회 출석 여부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위원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류희림 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청부민원, 국회 위증, 국회 불출석 등 다수한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청부민원 사건을 성역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자리를 던지고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결국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 나오셨나요?

○증인 김정한 예.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 연락처 갖고 계시지요?

○증인 김정한 예, 연락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연락하셔서 출석하도록……

○증인 김정한 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고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증인 김정한 예.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과방위 행정실에서도 류희림 전 위원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현 위원장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그 사표 어디 있습니까?

○증인 김태규 저희들이 일단 인사혁신처로 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인사혁신처로 통지한 게 언제입니까?

○증인 김태규 아마 어제 화요일쯤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인사혁신처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김태규 인사혁신처에 아마 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은 인사혁신처 쪽에 연락해서 류희림 위원장의 사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항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출석 증인·참고인 수가 항상 넘치고 또 어느 경우는 출석했다가도 답변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SKT 이 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우리 상임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증인인 SKT 경영진이 1시 반까지 마쳐야 된다고 하니 오전에는 SKT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TN이나 다른 증인들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방송이면 방송, 방송과 통신 또 과학기술까지, AI까지 섞이니 너무 많은 혁신 생태계 증인들조차도 이 자리에 와서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SKT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아침에 신문 봤겠지만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리점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저 역시도 국회의원인데……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지요. 이게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제가 SKT에 대해서, SKT에 집중적으로 좀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분 주는 걸 또……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간사가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지금 시간 방해지요.

○**위원장 최민희** 어서 마무리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만 하더라도요, 우리 정부는 오늘 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들어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방위 간사인데도 토스페이먼츠에서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제가 토스를 이용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런저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위원장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금융거래 같은 정황도 있고 해서, 제가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이미 얘기했는데요.

오전에는 SKT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은 형식의 현안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SKT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게 청문회를 이틀 해야 되는 것을 하루로 줄이면서 생긴 일인데요.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1시 반까지 SKT에 집중한 질의를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일이라도 SKT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지켜보시고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 잠시 하겠습니다.

KS한국고용정보에서도 지금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더 심각해요.

KISA 원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중요한 것은 KS한국고용정보에서 기술지원을 거부했어요. 그 이후에 KISA는 할 일이 없어져서 앞으로는 개인정보위원회로 간 것이잖아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KISA에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다는 관련 매뉴얼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SK텔레콤 KISA 신고 관련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SKT 해킹 사고 때 SK텔레콤이 KISA에 최초 신고한 인지 시점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KISA가 의심 정황이 파악됐다고, 그런 SKT의 표현 때문에 인지 시점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KISA는 내부 지휘체계와 매뉴얼을 가지고 있겠지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것 당장에 저희 위원님들께 그 매뉴얼이요,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있어요? 있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바로 파악해서 보내……

○위원장 최민희 바로 주십시오.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유영상 대표님, 지난 25일 날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28일부터 유심카드를 교체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비슷해요,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줄 서고 하는 모습이. 아주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지난 24일 SKT 실무자들이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보좌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심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상 유심 교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교체할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또 유심 교체 발표를 했는데 첫날 보면 28만 명이 유심을 교체하고 지금 온라인을 통한 교체 예약자가 430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SKT가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이 사안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겸 위원 예.

○증인 유영상 애초에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망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불법 유심을 차단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걸 통해서 유심 복제에 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2023년부터 경찰청의 지도로 만들어 온 유심보호서비스가 다행히 있어 가지고 그 유심보호서비스를 검토해 본 결과 유심 교체와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을 때 유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과거에 또 LG도 교체를 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심 교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한 달에 20만 개 정도의 유심을 쓰는데 지금 2300만을 또 다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2300만을 해 드리려고 그러면……

○**김장겸 위원** 잠깐만,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장님, 그래서 재고가 100만 개밖에……

왜 마이크가 꺼졌지? 벌써 꺼졌어.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4분부터 다시 시작하시고요.

마이크 빨리 주세요.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재고가 100만 개밖에 안 되는 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 설 걸 예상 못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증인 유영상**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해 드리고 유심 교체를 늦게 해 드리려고 했으나 여론이 워낙 유심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500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500만 개를 주문했고 5월 말까지는 500만 개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요.

○**김장겸 위원** 그 500만 개가 5월 말까지 들어온다 해도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리고 6월에 또 500만 개가 들어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 주고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왜냐하면 유심보호서비스 문자메시지만 봐도 그래요. 문자메시지 지금 계속 발송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지요?

○**증인 유영상** 어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어제까지 다 완료됐어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한번 보시면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SKT에서 광고 문자는 보내면서 그 관련 문자는 어제까지 못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보여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 유영상** 저게 저희 문자 보내는 시스템 용량의 한계와 또 보냈을 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용량의 한계 때문에 방금……

○**김장겸 위원** 아, 유심보호 가입 서비스도 용량이 있단 말씀이지요?

○**증인 유영상**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00만 달성했는데……

○**김장겸 위원**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이용약관에 보면—SKT의 이용약관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 드러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게 피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는데.

특히 그중의 하나 지적되는 게 요즘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차가 많아요. 그런데 커넥티드 카 이런 것을, 여기에 이심(eSIM)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화면 하나 보실까요, 영상.

(영상자료 상영)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차에 있는 이심을 해킹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한다는 건데 이 장면이 사실 차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서 실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물론 영화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거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 수나 이런 게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IoT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심보호서비스로 일단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최대한 권장하고 고객들에게 보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게 B2B 고객사들하고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들어와요.

다시 7분에서 시작합니다.

○**김장겸 위원** 이걸 아직도 켜져 있네. 제 건 아직도 켜져 있어요. 뭔가 오늘 좀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그건……

○**김장겸 위원** 이게 유심 해킹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한민수 위원**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방금 이야기가 나온 유심보호서비스 관련해서요 이게 어제 오후에 발표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여기에 좋은 소식은 IMEI 유출이 없었음이라는 것이 있고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읽어 볼게요.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 신청 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맞나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유영상 사장님,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증인 유영상 유심보호서비스와 관계없이……

○이해민 위원 빨리 대답을 좀……

○증인 유영상 예.

○이해민 위원 그러면 SKT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보상을 말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예약 신청 완료 시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뭐가 맞나요, 완전히 다른데?

○증인 유영상 저희가 첫 번째 발표한 것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해민 위원 어느 분의 말씀이 맞나요, 예약 신청 시, 가입과 상관없이?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전부 ‘가입 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예약했을 때도 해 달라고 해서 예약 때까지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러니까 국민 불안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양쪽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놓고 2개 내용이 다른데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필요하시다면 상황 파악하시고 정정보도를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것은 과기정통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인 강도현 위원님……

○이해민 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할게요.

○증인 강도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일단 발표를 했고요, 100% 보장한다. 그리고 예약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은 분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게 됐나 안 됐나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100% 하겠다고……

○이해민 위원 국민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증인 강도현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말씀하시는 입장 말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장님, 유심보호서비스 이어 가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 유영상 예.

○이해민 위원 이것 신청하면, 이 서비스 신청하면 해외로밍서비스는 이용 불가가 맞나

요?

○증인 유영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번 주말부터 SKT 가입자들은 해외여행 어떻게 가나요, 지금 연휴인데? 공항에서 서비스 창구라도 열어 주실 예정인가요?

○증인 유영상 굉장히 보강을, 3배 정도 했고요. 모든 유심, 지금 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공항으로 보내 놔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한 불편 겪는 고객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증인 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유심 교체는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것, 발언하신 건 좋은데 그런데 정작 현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량 부족으로 인한 오픈런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오래 걸리고.

그러면 유심 정보 리라이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자세한 정보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가요, 서버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가요?

○증인 유영상 우리 류정환 부사장이 기술 임원인데요.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시간이 가서 그런데……

잠깐 멈춰 주세요.

그러면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증인 류정환 서버 쪽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키값을 밑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이해민 위원 서버 쪽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증인 류정환 예.

○이해민 위원 그러면 왜 빨리 안 하시나요, 서버 쪽 업그레이드인데?

○증인 류정환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방법은 현재……

○이해민 위원 방법은 괜찮습니다.

○증인 류정환 개발 중입니다.

○이해민 위원 개발 중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유심보호서비스도 해외로밍 부분에서 문제, 유심 교체는 물량 부족으로 문제, 유심 리라이팅은 서버 쪽에서 하지만 아직 개발 중. 그러면 고객은, 사용자는 뭘 해야 되나요? 번호이동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지금 피해자가 국민인데 고생을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문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신사하고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지요.

이번 보안사고 발생한 것은 완벽하게 사업자의 귀책이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그 행위의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위약…… 종합적으로 판단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번호이동을 하는 그 과정을 추가로 귀찮게 고객들이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약금은커녕 사실은 피해보상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소탐대실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차관님, 어제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와중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늦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IMEI 유출 없었다라는 것은 100%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1차 조사 결과, 일주일 조사 결과입니다.

○이해민 위원 100% 확신을 하신 것 맞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래서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해민 위원 사장님, 이번에 이 해킹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폐쇄망 안에서 이루어진 해킹이고 지금 유심 정보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음표가 생기는 게 폐쇄망 안으로 들어갔다는데 유심 정보만 털어 갔나? 왜 HSS서버만 털지? 저라면, 제가 할 거라면 가입자 정보, 개인정보까지 털 텐데.

HSS서버 3대 외에는 서버는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이라고 100%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증인 유영상 그거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일각에서는 VPN 취약점 이용해서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침투한 공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분석이 사실이라면—옵션 중의 하나겠지요—지금 드러난 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어서 그 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차관님, 이것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의 통신 3사 2024년 정보보호 투자액입니다.

SKT가 지금 꼴찌지요?

○증인 강도현 예.

○이해민 위원 KT가 1218억이고 SKT가 600억이에요.

사장님, 지금 SKT에서 CISO 주관으로 개최하는 정보보호 임원회의 올해 몇 번 여셨나요?

○증인 유영상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

○이해민 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 유영상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비와 관련해서는……

○이해민 위원 올해 열지 않으셨습니다.

○증인 유영상 투자비와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를 합치면 800억으로……

○이해민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정보보호 이거 회의 몇 번 여셨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했구요.

이것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서버 침투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SKT의 귀책사유가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예견된 사건이라고 까지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티모바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대적인 정보보호에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해서 저는 최소한의 보안 투자 비율을 차관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이해민 위원 질의를 못 들으셨어요. 그게 시청자들께서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그 부분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발언을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지금 이해민 위원 말씀 중에 IMEI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약자 쓰실 때 시간이 아까우시겠지만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출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금 SKT 해킹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SK에 대한. 오늘 국민과 가입자들이 보는 국회 답변이 SK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SK가 끝없이 추락하느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SKT의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증발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SKT가 해킹을 당했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지,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유영상 사장님, 지금 일어나셔서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이훈기 위원 사과하시지요.

○증인 유영상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서 한 번 사과를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 저희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SK 대리점 어디를 가나 긴 줄을 서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리고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심이 얼마예요? 7000원 맞지요?

○증인 유영상 7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당근마켓에서 얼마에 거래되는 줄 아세요, 유심?

○증인 유영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무려 한 장에 15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

가서 15만 원 주고 사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커졌어요, 지금.

SKT에서 확보한 유심 물량이 100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자는 2300만 명인데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증인 유영상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심 교체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 드리고요. 그렇지만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두시면 그 부분을 유심 교체에 버금 가게 안전을 저희가 장담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그래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가입해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 명의의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겠다, SKT에서. 그런데 고객 안내문은 아까 저기 다른 위원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나홀, 닷새가 지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아까 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나 가입자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피해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사이에 SKT를 사칭한 스미싱, 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금융 피해예요.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안전할까 이런 불안이 가장 큰데 대응이 미흡하니까 불안이 더 커지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님이 100%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 예약, 명의도용, 유심 보호서비스 도입. 이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약속을 안 해 주시면 저는 SKT 되게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답을 하실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증인 유영상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약드리겠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지금 유심보호서비스를 하루에 200만, 300만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이훈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

두 번째는 약속을 하셨고 첫 번째는 약속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약속을 안 하면 오늘 청문회 끝까지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안 하시면 청문회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SKT가 지금 2300만 가입자 1위, 통신 1위 회사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10조 원, 영업이익이 1조 8000억 원. KT하고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 600억, KT 1218억, LG유플러스

632억. 영업이익 대비 SKT는 3.29%예요, KT는 15%, LG는 7.34%. 매출액 대비해서는 0.56%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정보보호 투자액을.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위한 ISMS 인증 이게 이번 사고가 나고…… 원래 탐지, 분석, 보고, 대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어요. 이게 SKT의 잘못인지 정부 관련 기관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도현 차관님.

○증인 강도현 예, 위원님.

○이훈기 위원 이용약관 심사 거기서 하시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회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조항 가능한가요?

○증인 강도현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단통법 폐지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SK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불법 지원금 살포하고 최신 공짜폰 마케팅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증인 김태규 지금 이런저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대리점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위기 상황이니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1번,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안 하면 주식 또 빠질 거예요, 오늘. 저는 소탐대실하시지 말고 이 약속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영상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유영상 대표는 유심 교체하셨어요?

○증인 유영상 안 했습니다. 저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했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최태원 회장 포함하여 SK 전 그룹 사장·부사장단까지 4월 17일 이후 유심카드 교체내역 요구합니다. 주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이거 저희가 자료 요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필요한 명단을 안 주세요. 이거 왜 자료 요구하는지 아시지요? 만약에 유심보호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하여 거기 사장단들은 유심 교체하면 안 되지요.

○김현 위원 30초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인데요. 오늘 언론에 보면 국정원이 모든 정부 부처 SKT 유심 교체를 하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SK 측의 유심보호서비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과…… 지금 개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국정원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유심 교체를 강력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심이 없는데, 모든 정부 부처가 몇 개이고 그래서 국정원은 SK 유심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영상 대표님,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증인 유영상 지금 일단……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사과하실 때 기자들 질의응답 안 받고 먼저 혼자 나가셨어요?

○증인 유영상 그때 저희들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무 임원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받고,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박정훈 위원 그래도 사장님이 책임지고……

○증인 유영상 저는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훈 위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거기서 혼자 쪽 빠져나가면 됩니까?

○증인 유영상 죄송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증인 유영상 죄송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PPT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가입 안 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건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증인 유영상 두 가지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100% 책임진다는 것은 좀 더 저희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해 주십사 하는……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건 협박같이 들리잖아요.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정훈 위원 이거 만약에 피해 봤는데 가입 못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보상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증인 유영상 그건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이게 어떻게 가입을 독려하는 얘기로 들립니까?

○증인 유영상 유심 불법 복제피해가 있으면 가입하셨든 가입하지 않으셨든 저희가 책임집니다.

○박정훈 위원 문구 고치세요. 얼른 고치시라고요.

○증인 유영상 알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거 가입 안 해도 피해 발생하면 보상하실 거지요? 지금 약속하신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이 BPFDoor라는 게 국가기관급 해킹 악성코드라고 해서 방어가 어려웠다는 식의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트렌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하고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이거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 경고했는데 왜 몰랐어요?

○증인 유영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훈 위원 사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다른 통신사,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보호 투자액을 SKT만 줄였어요. 보시면 4% 줄였고 LG유플러스는 116%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금액이 SKT가 제일 낮아요. 알고 계셨어요?

○증인 유영상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KT나 유플러스와 달리 유선과 무선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콤과 브로드밴드를 합치면 8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KT보다는 적지만……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더 하시라고요.

○증인 유영상 예, 더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더 하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고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당했다는 것은, 마치 엄청난 세력이 우리를 해킹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SKT의 그런 자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차관님, 과징금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었지요?

○증인 강도현 예.

○박정훈 위원 알고 계십니까?

○증인 강도현 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부당행위에 대한 수익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것에서 지금은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바뀐 걸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도현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2023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SKT에?

○증인 강도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조사와.

○박정훈 위원 그리고 17조 원이 매출이니까 과징금이 한 5100억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

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약금 문제, 지금 정부에서도 법률 검토하겠다는 그리고 SKT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지금 탈퇴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못 하는, 당장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을까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강도현 예, 그 점이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답답하겠지요?

○증인 강도현 예,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훈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옮길 수 있게끔 정부와 회사가 길을 터 줘야지요. 물론 당장 옮기게 되면 많은 피해가 SKT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 부분이, 그걸 다 물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물어 주게 되면 너도나도 다 탈 러시가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강도현 동 건 검토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특정 회사의 고려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고……

○박정훈 위원 빨리 검토하세요.

○증인 강도현 거기에 대한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유심이 100만 명분의 재고가 있다는 게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그 부분도 최근 소진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위원 재고가 모자라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증인 유영상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월 말 전에 500만이 들어오고 6월 말 전에 500만이 들어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대리점에서 새로운 개통 못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신규 갤럭시25 이거 다 마케팅하고 있지요? 거기 유심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증인 유영상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은 교체에 쓰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아니요, 일부에 불과한데 장사는 해야겠고 장사도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심 거기다 넣어서 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증인 유영상 그런데 대리점이 또 저희의…… 저희가 대리점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들 입장에서는 보호도 중요하고 저희를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지불하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영업하지 마라라고

강제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정훈 위원 어쨌든 SKT가 사실은 이 사건이 난 이후에 국민의, 가입자의 눈높이에
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장님
께서 더 반성하시고 국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더 눈을 낮춰서 보시면서 해법을
찾으셔야 돼요.

○증인 유영상 알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이거 가입하면 일단 중요한 문제는 막을 수 있
다고 보신다면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쓸 수 없는 것하고, 전화를 쓸 수 없는 것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디지털 약자분
들한테 어떻게 쉽게 접근할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유영상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의 사직서는 어제 오후 2시에 인사혁신처에 전달이 됐
고요. 인사혁신처가 수령 이후 한덕수 대행에게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국민과 기업, 정부까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막대한 피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국가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1위 기간통신사를 자부하던 SK텔레콤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 이 3
무가 빚어낸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대처와 공지, 사과 등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심
교체 조치까지 전체 대응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
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왜 사고는 기업이 쳐 놓고 애꿎은 국
민들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 들여서 발품을 팔고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제대
로 된 반성과 사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대리점의 현장 상황입니다.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바쁜 국민들 힘들
게 기다렸는데 유심을 바꾸지도 못하고 티월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버는 터져 있고 이
런 상황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고객이 직접 앱에 들어가서 가입해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들이 자동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유영상 초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정현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 유영상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어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원칙, 아직까지도 현실 인식이 부족해요.

○증인 유영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모든 가입자들이 자동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려하는 그에 따른 부작용보다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가 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유심 교체가 시작된 이번 주 월요일 모바일 티월드 사이트 접속자 폭증으로 서버가 터지고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월요일에 직접 접속을 해 본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해 주시고요.

(영상자료 상영)

이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유심 교체를 위한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려서 서버가 터지고 접속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심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SKT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자 하나 보내 왔고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려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대기인원이 52만 명, 대기시간 145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가입자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현실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지인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을 살펴봤습니다. 온오프라인 여론을 종합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가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핵심 분노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PPT 파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해킹 후 고지까지 수일이 걸렸습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일반 가입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월 18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지요? SKT가 인지한 이후에 나흘이 지나서 4월 22일이 되어서야 SKT는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킹에 따른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는 하더라도 대국민 공지를 빨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늦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SKT는 고객들에게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지 않았 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SKT 뉴스룸을 통해서 소식을 알렸지요. 유출돼서 하루하루가 위 태로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무책임하고 안이하 게 대응을 했습니다. JTBC 뉴스룸도 아니고 SKT 뉴스룸에 올리면 고객들이 어떻게 압 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늦게 알린 이유가 뭘니까?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이걸.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일 거 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유영상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유영상 문자 고지 부분은 사실 특정 고객이 유출이 됐다는 특징이 돼야 저희 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정현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증인 유영상 특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특정되지 않 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찌 감치 알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조치를 할 테니까 따라 달라라든 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홀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중 원장님, 그 과정에서 KISA가 SKT의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러한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KISA에서 자료를 내셨는데 SKT 신고서 내 인지 시점 에 SKT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시점인 20일 오후 3시 30분을 추가 기입했다 이런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모르겠고, SKT 내부 결정권자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중 원장님.

○증인 이상중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4월 20일 16시 46분에 정확하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단계에서, 신고하는 시점에 그 내용의 인지 시점이 18일 23시 26분이라 고 돼 있어서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내용이 피해가 정황 파악으로 돼……

○이정현 위원 예, 됐습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의 책임 KISA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속 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됩니다. SKT가 초기 대응부터 지금까지 부실 대 응을 거듭하고 있는데 소비자 집단행동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해외였으면 SKT는 집단소송과 과징금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2019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메타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50억 달러, 5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SKT, 국민이 느끼는 분노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 으로 대응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최근 발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불편, 분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국민께서 느끼시는 이런 불안과 불편 그리고 분노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피해를 막고 그다음에 이 해킹 사고의 모든 어떤 잠재 위험들을 다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박충권 위원 그것은 유심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영상 사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유심이 무슨 기능을 하는 칩입니까?

○증인 유영상 유심은 가입자를 인증해 주는 칩입니다. 그래서 유심은……

○박충권 위원 쉽게 말해서 휴대폰의 ID카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나는 인증이고 하나는 메모리입니다. 인증은 저희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유출된 것은 인증 모듈입니다. 그런데 갖고 계시는 많은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그 유심을 탈취하기 전에는 탈취가 되지 않습니다.

○박충권 위원 개인 휴대폰 단말기에 들어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유심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증인 유영상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

○박충권 위원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증인 유영상 예.

○박충권 위원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이 이 부분이에요. 전화번호부라든가 혹은 은행 인증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복제폰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인인,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의 어떤 코인거래소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자금이 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또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유심 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4종의 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유심을 복제하는 것을 유심 클로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과 동일한 번호를 가진 휴대폰이 복제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유심이 복제될 수 있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유심이 복제되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SKT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있지요, FDS?

○증인 유영상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이 1개의 번호에 2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까?

○증인 유영상 안 됩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그걸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증인 유영상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이 불법 복제된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증인 유영상 그것은 기술에서 답변드리고요. 류정환 부사장이 답변……

○박충권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류정환 없습니다.

○박충권 위원 없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이 번호가 복제된 2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짜 내 폰이 차단이 되고 불법 폰이 통신망에 접속하는 걸 어쨌든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심보호서비스 아니겠어요?

○증인 유영상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등록해서 차단하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단말기하고 유심하고 한마디로 용접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심을 복제했다 하더라도 이게 용접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으면 다른 고유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복제한 유심을 넣어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증인 유영상 안 됩니다. 100% 차단하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나 만약에 이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이 휴대폰을 똑같이 복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증인 유영상 유출이 된 경우에는……

○증인 류정환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박충권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어떤 세력이 내가 가진 휴대폰과 동일한 고유식별번호를 가진 휴대폰과 그리고 유심까지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류정환 지금 현재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에요?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건 확실하십니까?

○증인 류정환 현재까지 조사돼 발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국민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여행 나갔을 때 해외로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5월 14일부터는 바꿀 텐데요. 그전까지는 유심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해외에 가서 로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전용 유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 로밍을 안 쓰시고 다른 걸 가시는 고객분들은 그런데 저희 로밍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유심을 바꿔 드리고요. 유심을 못 바꿔 드리는 경우에는……

○박충권 위원 그것은 사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해외에 나갔을 때 데이터 전용 유심을 사용하면 해외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똑바로 공지를 해 주시고요.

○증인 유영상 예.

○박충권 위원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하는 방법도 SKT에서 어제 4시에 전송한 문자 공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방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공지를 하게 되면 휴대폰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2030 세대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힘들어요, 이게. 그러면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해외로밍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또 해지해야만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해지하는 방법도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것 제대로 공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심 교체 현황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여쭙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입은 해킹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하고 강도현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해킹 공격 시도가 162만 회라고 합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하루예요. 여기에서 80% 이상이 북한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의 해커 부대는 최정예 전력으로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부대도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수원, ADD, 국방부, 방위산업체, 법원까지 이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킹에 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어서 우리나라 최대 통신업체라고 하는 SKT마저

털렸어요. 이게 이쯤 되면 우리나라 단위 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현 차관님과 이상중 원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증인 강도현 우선 동 건 처리에 있어서 SKT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그리고 상세하게 그 내용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국가 배후의 세력들도 현재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민간 분야 저희가 막고 있는 사이버 해킹 시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탐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키워 나가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보강 문제도 필요하고 법 제도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나가면서 실제로 앞으로 점점 침해해지는 기술적인 보안 문제를 위해서 전면적인 보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도현 차관, 너무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증인 강도현 일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에 대한……

○위원장 최민희 시설 지정 안 했잖아요.

○증인 강도현 예,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고객관리 시스템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ISMS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고객관리 시스템이 있으나 점점 많이 다양해지는 고객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에 대한 인증 부여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답을 지금 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정보 어떻게 저장하나 알아보세요. 고객 개인정보 암호화해서 하나 안 하나, 암호화하는 데 돈이 얼마 드나 다 알아보세요.

○증인 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사태 터지고 지금까지 깊이 파서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답변 곤란합니다. 저희 해결책 만들 때까지 갈 거예요.

○증인 강도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SKT가 악성코드를 인지한 시점이 4월 18일 금요일 밤 11시지요?

○증인 유영상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정보보호 주관기관인 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한 것이 일요일 오후 4시란 말이에요.

골든타임이란 말 아시지요?

○증인 유영상 예.

○정동영 위원 2주일 전 4월 16일이 세월호 11주기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살릴 수 있었던 305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잃었던 뼈아픈 기억이 참 가슴 아픕니다.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수습, 신뢰 회복의 결정적인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24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24시간을 놓치고 신고한 것이 40시간이 넘어서 신고를 했고, 회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 4월 25일 맞지요?

○증인 유영상 4월 22일 10시에 신고 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한 게 4월 25일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사과드린 것은,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공지를 하고 사과를 드린……

○정동영 위원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증인 유영상 25일은 제가 직접 나가서 사과를 드리고 유심 교체를 해 드리겠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25일이면 악성코드 인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뒤에야 국민 앞에 대표이사가 나타난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회사에, SKT에 비상시 대응하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까, 대응 매뉴얼?

○증인 유영상 예.

○정동영 위원 그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응한다 하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이번 일까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사고가 나거나……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에 빠져 있었어요, 들어 있었어요?

○증인 유영상 이런 내용 자체, 그러니까 해킹이 됐다는……

○정동영 위원 없었다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한다, 시간대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 이 말이지요. 인정합니까?

○증인 유영상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내에 신고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유출 사고에 대해……

○정동영 위원 그 대응 매뉴얼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사장인 제가 책임입니다.

○정동영 위원 사장입니까?

○증인 유영상 예.

○정동영 위원 이걸 이중 실패인데요.

KISA 원장님, 지금 검찰 수사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증인 이상중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30년, 윤석열 검사 수사관으로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증인 이상중 제가 2017년도 퇴직할 무렵에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계실 때 그 시점에 제가 퇴직해서……

○정동영 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아는데요.

본인이 사이버 보안, 해킹에 관해서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상중 제가 감히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이십수년을……

○정동영 위원 수사관을 했지 해킹, 사이버보안, 국가정보보안 분야는 아니잖아요.

SKT가 4월 20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4시에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는데 인지 시점을 4월 18일 금요일 밤 11시에서 일요일 20일 오후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유도 안내했는데 그것 은폐 또는 무마 이런 의혹을 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정 신고하도록 한 것?

○증인 이상중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통방법에 의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보면……

○정동영 위원 프로세스가 뭐예요?

○증인 이상중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신고 들어온 시점으로 저희들이……

○정동영 위원 악성코드가 발생한 시점이 피해 발생, 사건 발생 시점이잖아요. 그것 상식 아닙니까?

○증인 이상중 그것은 저희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부러 변조하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정동영 위원 원장의 지시로 신고 시점을 바꾼 거예요, 인지 시점을?

○증인 이상중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실무 책임자의 지시입니까?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SKT 당사자하고 우리 신고받은 당사자 간 일종의 miskommunikation이지 그것 누군가가 변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고서에 그것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현장조사 착수는 며칠이에요?

○증인 이상중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시점이……

○정동영 위원 22일입니까?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위원 22일인데 오늘로 8일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피해 규모, 대상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가 몇 명이나 파견돼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이상중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재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오늘부로 다시 추가로 한 6명 정도 더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동영 위원 언제 전모가 밝혀집니까?

○증인 이상중 그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유심이 뭔지, 유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KISA 원장님, 유심이 무슨 뜻이에요?

○증인 이상중 유심은 고유인증코드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USIM 그 약자가 뭔지 아세요?

○증인 이상중 약자에 대해서 제가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 메모리(user identification

memory)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국가 사이버보안 책임자가 유심의 뜻도 몰라요?

○증인 이상중 아니,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어를 물어보시니까……

○정동영 위원 이렇게 부실한 인사가 결국 국가적인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초동 대응의 실수를, 실패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KISA가 11명 초기에 파견했다가 지금 증원해서 진상조사 나서고 있다는데 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초동대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KISA 원장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보은 인사로, 측근 인사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엄중한 국가적 재앙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에서 증명됐잖아요. 결국 인사 실패가, 정치적 인사가 어떻게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지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규명하고 책임지고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그 매뉴얼 안 주십니까?

○증인 이상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뽑아서 복사하면 되는데. 빨리 주세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 자료 다 받았습니다.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좀 집중하십시오, 유영상 사장님.

○증인 유영상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고 뭘 느낌이 듭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사러 다녔던 국민들 모습 안 떠올려져요?

아니, 회사가 잘못해서 국민들 힘들게 하고 해킹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막지도 못하고 막은 다음의 대책도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당당합니까? 아니, 사장님, 정보보호 투자비, 1만 명당 투자비 보니까 SKT가 0.26억 원으로 제일 적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변명하면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리고 부사장님, 어디 가 있어요? 류정환 부사장.

○증인 류정환 예.

○한민수 위원 아니,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가 가입자 전화번호, IMSI 등 4종 유출된 정보가…… 그런데 왜 부사장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단어를 씁니까?

○증인 류정환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수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만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못 막았으면 책임져야지요. 국민들 지

금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위약금을 묻니까, 이걸? 나도 상당히 오래 썼는데 바뀌야 되겠어요.

지금 왜 왔는지 몰라요? 뭐 신기술 개발하고 온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국민들,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 아니에요, 알뜰폰 사용자까지 합치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사죄하고 제대로 대응해야지요. 25일 날 엉뚱하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문자 안내를 했습니까, 국민들께 뭘 했습니까? 마지못한 기자회견 하나니까…… 우리 가족들도 유심 바꾸러 26일 날 갔어요. 못 바꿨지요.

대응 문제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17시간 초과하며 늦장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 다른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늦장 신고하면서 KISA 기술지원 요청에는 미동의했어요. 유심보호서비스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발표할 때. 25일 날 무상교체 대책 발표하면서 어떠한, 재고 물량이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팩트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유 사장님, 가입자 인증서버 HSS 유출된 게 팩트입니까?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HSS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9.7GB, 무려 이게 한 270만 쪽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SKT 모든 가입자 대부분 정보가 유출됐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증인 유영상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한민수 위원 유출된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증인 유영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제 발표한……

○한민수 위원 HSS서버 안에 유심카드 고유정보, 유심 시리얼넘버, 가입자 고유식별번호, 가입자 인증에 사용되는 비밀키—이게 유심 인증키입니다—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맞지요?

그러면 어제 합동조사단이 얘기했습니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이게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다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유심 복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

○한민수 위원 답변하세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증인 유영상 유심 복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해커가 복제한 유심을 다른 기기에 넣기만 해도 내 휴대폰으로 와야 할 전화와 문자 가로챌 수 있게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유영상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방어하고 있고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FDS인가 그 얘기 하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스와핑 문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은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면 내 휴대폰에 있는 금융 앱이나 공인인증서,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똑같이 담은 복제폰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확실해요?

○증인 유영상 유심 복제를 해서 새로운 폰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 유심보호서비스가 그것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 류정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민수 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류정환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는 한 똑같은 복제폰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해커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면 계좌 탈취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지요.

○증인 류정환 아니요, 그거는 유심 복제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얼마 전에 SKT 해킹 사고 이후에 한 피해자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류정환 그거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경찰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정환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1위 사업자라면서요.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게 막았어야지요. 못 막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늦장 신고하고…… KISA는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KISA하고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좀 못 막았으면 막은 다음의 대처도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증인 류정환 죄송합니다.

○한민수 위원 추가질의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서면이라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시 반까지 할 거기 때문에 추가질의 한 3분 내지 5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면 저는 핸드폰을 당연히 뺏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 핸드폰은 어떤 단순한 통화기기를 넘어서 금융, SNS, 심지어 저는 업무까지 모두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의 핵심인 유심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통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고의 경위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신사가 아닌 유튜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많은 그 언론 속에서 저희는 혼돈하고 있습니다. SK 통신업은 국내 1위 통신업자입니다. 왜 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못 했어요. 그날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왜 항상 뒤늦게, 발송이 지연되고 소비자의 모든 유심 교체를 하네 마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SK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것도 방송이나 이런 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취약계층은 아직 이것조차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SK텔레콤이 우리나라 대기업으로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정말 민낯을 보여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대응체계 재정비하시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권리를 충분히 주셔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 앞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위주로 더 추가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해서 시간대별 상황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8일 오후 6시에 처음에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정동영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KISA에 신고한 시간은 20일 4시 46분 해서 약 45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유영상 신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침해와 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8일 오후 11시 20분에 확인한 것은 침해 사실입니다. 침해 사실은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출된 게 어떻고 저런 정보들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신고에 대해서 놓쳐 버렸……

유출을 확인한 것은 19일 23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유출을 확인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회의를 하면서 침해 신고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를 하고 유출 신고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신고를 해서 전체 보도자료까지 내고 고객들에게 공지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없고……

○증인 유영상 문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진 위원 너무 답변이 장황하시고 우리는 아무 잘못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문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셨냐 하면 ‘당사 내 시스템의 파일을 유출한 의심 정황이 파악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심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최수진 위원 저는 이거를 사건을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셨어야지요, 신고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KISA에서 같이 기술지원 해서 하겠다는데 왜 거부하셨습니까?

○증인 류정환 그 기술지원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한 걸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기술력이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수진 위원 KISA를 무시한 겁니까?

○증인 류정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2500만 명이 갖고 있는 통신사에서 중소기업 어디를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KISA뿐만 아니라 민관, 결국 협동해서 같이 지금 현재 조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결도 못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킹 관련 알림, 언제 개인 톡으로 다 보내셨습니까?

○증인 유영상 23일부터 이렇게…… 사실 해킹에 대한 특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사과를 드리고 유심보호서비스를……

○최수진 위원 좋습니다. 23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다 보냈습니까, 전체에?

○증인 유영상 한꺼번에 다…… 저희가 하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는 URL과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홍보 영상 두 개를 같이 보냈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 또한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심보호서비스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사람이 아니면 정말 전 국민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안내해서 직접 가입해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체 시스템 장애 우려가 있어서 그 시스템 장애가 될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실제로 안랩에서 EDR을 통해서 악성코드 탐지와 경고에 대한 게 2024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증인 류정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진 위원 예.

○증인 류정환 그 당시에 저희는 백신을 이미 하고 있었고 EDR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작년에 MS Azure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깔다가 중지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망에 대한 영향도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지한 상태에서 지금은 계속 EDR 중심으로 깔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FDS 아시지요? 비정상 인증시도 제한에 대해서 그거를 극대해서 적용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SK 측은 그렇게 보십니까?

○증인 류정환 제가 그것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FDS로 저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유심보호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수진 위원 그러면……

○증인 류정환 현재 FDS상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KISA는 이 얘기 합니다. ‘현재 실효성을 검증 중이며 민간 기업이 개발한 기능이 모든 비정상 인증시도를 차단한다고 정부 입장에서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KISA 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증인 이상중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저도 헛갈리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매뉴얼 주세요, 매뉴얼. KISA, 왜 안 주십니까, 뿔기만 하면 되는데.

SKT,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세요. 최태원 회장 비롯하여 임원 중에 유심 교체한 사람 있는지 확인하겠다고요. 그래야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답변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증인·참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유영상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KT 입장에서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겠다고 그리고 배상도 다 하겠다 하는데 현장에 서 이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서 얼어붙고 있는 지경입니다.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부터 다른 통신사로 옮겨 가겠다는 의견까지 SK텔레콤은 이제 아예 믿지 못하겠다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신뢰라는 것이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SKT 신뢰가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저는 SKT가 업계 1위 기업으로서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기보다는 독과점적으로 그 지위를 향유해 왔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쌓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또 다른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 업무, 적금, 주식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삶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 필수 인프라를 과연 SKT에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님, 커뮤니티부터 뉴스 댓글까지 SK텔레콤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습니다. SKT가 잘했다는 의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서 유심을 교체하려

고 했는데 고작 22개뿐이라고 합니다. 잘못은 SKT가 했는데 피해는 왜 우리가 보는 거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KT가 배상을 해 준다는데 결국 고객이 직접 피해를 증명하라는 거냐, 불신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예약이라는 게 현장이랑 연동이 안 되어 있고 보여 주기 식으로 만들었다더라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냐, SKT 잘못 때문에 대리점을 갔는데 오히려 무슨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막 욕박지르더라…… 이게 작금의 SKT 현실입니다.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지금 이용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의 반응들 보이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사고의 초동 대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드러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 신뢰 회복과 또 지금의 고객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SKT 폰이 먹통이 되더니 알뜰폰을 개통해서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SKT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보 유출 관련성은 낮다. 정보 유출로 인한 악용 사례는 인지된 사실이 없다. 이번 해킹 건과 관련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들었다’, 결국 고객이 무슨 피해가 있는지 증명해 올 때까지 배째 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배상 발표가 이루어진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데 누가 SK텔레콤을 믿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이 부분은 저희 유심 복제로 인한 부분은 아닌 걸로 경찰에서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스미싱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황정아 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객들께서 지금 신뢰가 떨어져서 아마 이런 식의 민원 제기가 앞으로도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유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신뢰, 실력이 모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비 합산액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867억 원 정도 됩니다. 가입자 수가 훨씬 적은 KT보다도 29%나 적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점 하나 짚어 보면 SK텔레콤이 해킹에 활용되었다는 그 툴, 사건 발생이 4월 18일이니까 지금 사건 발생 12일째입니다. 혹시 원인 분석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킹 툴이 이미 3년 전에 깃허브(GitHub)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이미 공개되어 있던 해킹 툴조차도 못 잡아내는데 그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을 오늘날 해커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떤 해킹 툴이 사용되었는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증인 유영상 지금 발표된 저 악성코드로 보고받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너무 두리몽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 유영상**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합동조사단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미 3년 전에 오픈되어 있던 코드로도 이만큼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뚫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절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해킹을 막기 위해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고객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사건 관련해서 어떤 해킹 툴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막을 예정이신지 서면답변 주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국내 1위 기업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분노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약 하루 동안에 유심 교체가 고작 28만 건, 전체 가입자의 1%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이 100일 동안 오픈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예상 대기 시간이 169시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일주일 내내 화면 켜 놓고 대기하라는 말입니까?

저도 지금 SKT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증인 유영상** 오늘부터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오늘부터는 개선이 됩니까?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SKT가 발표한 미온적 대책마저 현장에서는 너무 대충이다, 소나기는 피해 가면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유심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심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이용자들은 돌려보내고 신규 개통은 가능하다고 고객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대리점에서. 오죽하면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 받으려면 신규 개통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내뱉겠습니까? 왜 잘못된 SKT가 했는데 애꿎은 이용자들이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합니까? 발품을 팔아도 대리점들의 거짓말에 유심 못 바꾸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책으로 어떻게 신뢰를 되찾겠습니까?

SKT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위기 극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찾아가야 가능한 유심 교체 외에도 기술적으로 유심의 정보를 교체해 악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하십시오. 차라리 택배라도 보내야겠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정아 위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한 고객뿐 아니라 피해 고객 전체에게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인 유영상** 예, 책임지고 배상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번호이동에 대해서 위약금도 물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피해 예방·배상 대책 다 발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중 원장.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 제가 나중에 질의 시간에 물을 테니까 그 내용 준비하십시오, 또 다각도로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용을 준비 안 해 가지고 옵니까?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도 SKT만 줄곧 사용해 온 가입자입니다.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가 3개가 있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 낸 전화요금만 해도 월 한 이삼십만 원씩 될 겁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테고.

많은 사람들이 SKT에 가입하는 이유는 SKT에 대한 신뢰, 국내 최대 통신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졌는데 지금 SKT의 이 조치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우선은 시간을 속였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정부기관이나 또 소비자, 가입자들이 직접 이 문제에 스스로 대응을 세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알렸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알리지도 않았습시다.

저한테 문자는 언제 왔냐면요, 어제 오후 2시에 왔습시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문자가 처음 온 것이, 어제 오후 2시 33분 문자로 와 있습니다.

지금 다 보냈습니까, 이 문자는?

○**증인 유영상** 예.

○**최형두 위원** 언제 다 보냈습니까?

○**증인 유영상** 어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최형두 위원** 됐습시다.

유심도 없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도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과방위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우리 출입기자들도 저희들한테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느냐?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해 줘야지요, 그럴 경우에. 만일 유심을 지금 2000만 개 다 갈아 주려면 1년 내에 될지도 모를 것이고 복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소비자가 스스로 선

택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 조금 전에 황정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안 되겠다. 내가 번호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것은 SKT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겠지요?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가입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통지도 안 해 주고 불안해서 유심을 갈아 끼우겠다고 해도 유심도 갈아 주지 않고 그런데 소비자는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 합니까?

○증인 유영상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최형두 위원 최대한 보호조치라는 말로 넘어갈 사안 같습니까, 이게? SKT가 정말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국내 최대 통신기업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또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라도 다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메인서버는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메인서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피니션(definition)인지, 지금 HSS도 저희는 메인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형두 위원 지금 회사에 방화벽 작동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통신사에서?

○증인 유영상 예,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사건 누가 어떻게 침투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 부분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최형두 위원 왜 그게 파악이 안 되지요?

○증인 류정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예.

○증인 류정환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렌식 같은 걸 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조사단이 들어와 있고요. 같이 조사해서 확정된 결과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식별번호(IMEI)가 없었기 때문에 복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확실합니까?

○증인 류정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MEI가 없으면 단말기 복제는 안 됩니다.

○최형두 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안 된 게 확실합니까?

○증인 류정환 주민번호는 우리 마케팅서버에 있고요, 지금 된 것은 네트워크서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중국 해커……

지금 이 수범으로 볼 때는 이게 서버에 언제쯤 이렇게 심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HSS에?

○증인 류정환 그것도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합동조사단하고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 SKT가 이렇게 엄청난게, 우리나라의 최대 캐리어(carrier)로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글로벌에도 정말 자랑할

만한 통신사인데 고객 정보가, 유심 정보가 다 털렸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설명 못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SKT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이라든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언제쯤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SKT가 마땅히 지켜야 될 통신 고객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보안하고 또 통신 안정을 위해서 지켜야 될 업무를 달리 해태한 건 없습니까, 차관님?

○증인 강도현 일단 신고의무 위반부터 해서 관련 자료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가장 일주일 동안에 했던 것은 정황이 있는 5개 서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나갔던 자료에 대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단말기 식별번호는 안 나갔다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것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까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서버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서버에 혹시 이런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서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증인 강도현 SK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조사해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검증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유영상 대표님,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SKT의 통신 보안의 사이버 시큐리티 취약점 같은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는 굉장히 높은 보안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실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유심보호서비스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해외여행으로 로밍을 이용하면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지되지요?

○증인 유영상 예, 해지돼야 로밍이 가능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래서 최대한 유심을 교체해 드리고요.

○최형두 위원 해외여행 하는 사람들에게는?

○증인 유영상 예, 그래서 지금 로밍센터에 용량을 최대한 확장해서 거기에 재고를 많이 몰아 줘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요.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저는 YTN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여기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 유영상 잠깐만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구두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노종면 위원님 질의 끝나고 들을게요.

○증인 유영상 예, 죄송합니다.

○노종면 위원 최근 YTN 주총을 통해서 YTN 이사회 인원이 4명 순증했고 그래서 이

제 10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유진 쪽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맞지요? 유진 쪽의 지분이 30% 맞습니까? 31%?

○증인 강희석 30.9%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사회 80%를 장악했네요? 이번에 순증된 4명 가운데 3명도 유진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 사례들이 많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승인 조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사회 80%를 장악했네요? 이번에 순증된 4명 가운데 3명도 유진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 사례들이 많고.

먼저 조성욱 이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지요?

○증인 강희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성욱 이사는 뭔가 신종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 주는 분 같아요. 보시면 2015년 12월에 검사직을 물러났는데 2016년에 무려 9개 기업의 법률 고문을 동시에 맡습니다.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총 17개 회사의 법률 고문 역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문제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런 자가 보도전문채널의 이사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유진그룹은 이런 자를 왜 추천했을까 심히 의심스럽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유진투자증권의 법률 고문을 맡았어요. 맞지요?

○증인 강희석 예, 과거에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PPT 보시겠습니다.

방통위가 유진 쪽에 YTN 매각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의 두 번째, YTN의 대표이사과 사외이사는 유진 관계인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증인 강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 유진투자증권 법률 고문 출신을 이사로 만들었습니까?

잠시 기다리시고요.

이상인 전 부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의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면서도 YTN 매각 승인 절차에 깊숙이 관여했고 2인 의결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조성욱 이사 압니까?

○증인 이상인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노종면 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증인 이상인 예, YTN 관련해서는……

○노종면 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만 말씀하세요.

사시 27회시지요? 연수원 17기 맞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증인 이상인 오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못 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조성욱 이사도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두 분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YTN을 유진에 넘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유진 총수의 변호인이었고 또

그와 사시 연수원 동기는 또 YTN 이사가 되고.

강희석 대표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문제 없어요?

김진용 신임 이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경선 회장의 골목 친구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15년 전 기사입니다.

철인 3종이라는 다소 향유하는 분들이 적은, 희소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분, 알고 계시지요, 이 사이는? 알아요, 몰라요?

○증인 강희석 최근에 알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방통위가 YTN 사외이사 시키지 말라고 한 그 유진의 특수관계인인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기사는 목록에서만 확인이 되고 저희가 다행히도 내용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자료를 뽑으려고 봤더니 금세 기사 삭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유진이엔티에서 삭제했습니까?

○증인 강희석 그런 적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최근에 아시고 삭제 조치한 것 아니에요?

○증인 강희석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증인이십니다.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김백 사장 나와 계시지요? 잠깐 여쭙볼게요.

혹시 YTN에서 저 기사 삭제 조치했습니까?

○증인 김백 그런 적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 부적절한 이사들 사퇴시켜야 사후적으로라도 방통위가 부과한 매각 승인 조건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증인 강희석 위원님, 제가 그러한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검토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이게 방통위의 승인 조건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검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김진구 전 대표님 좀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추가질문을 오전에 한 번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안 하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지금 사안이 다른 분들이 하신……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10분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김진구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진이엔터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내려놓으셨어요?

○증인 김진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아직도 YTN 이사는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증인 김진구 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노종면 위원 하여튼 YTN 이사 자리 유지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이연주 이사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YTN 이사가 됐던 분이예요, 지난해에. 그렇지요?

○증인 김진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김 대표님께서 추천했나요?

○증인 김진구 아니요. 제가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경선 회장이 연세대 총동문회장이셨지요?

○증인 김진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 이연주 이사는 부회장을 하면서 두 분이 서로 교류했던 것 아시지요?

○증인 김진구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몰랐어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이 부분도 방통위 승인 조건 위반이 명백합니다.

YTN 이사 말고 유진이엔터 이사회도 동일한 수준의 승인 조건이 부과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승인 조건 무려 1번입니다. 유진이엔터의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인, 유진 관련자는 선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백기승 이사, 지금도 이사시지요?

○증인 김진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분이 유진그룹 홍보전무 출신이에요. 맞지요?

○증인 김진구 옛날에 홍보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출신 맞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유진을 향해서 방통위가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한 이유가 뭘겠습니까? YTN 경영과 보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YTN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진이 80%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진이 우려한 대로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경선 회장이 과거에 감사한테 뇌물 줘서 처벌받은 것까지 안 가더라도 불법 농지 전용, 국유지 점용, 하천 파헤치기 등등 불법이 수두룩하고 거기에다 유진이 ESG 경영 최하 등급인 것 아시지요? YTN 인수 이후라면 최소한 보도전문채널을 경영하는 대주주로서의 그런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 수준이 여전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님 나와 주세요.

아주 관운이 좋으신 건지 말이 빠르신 건지……

YTN 매각 당시 방통위의 담당 고위 간부셨어요, 기획조정관. 맞지요?

○증인 배중섭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YTN과 유진이엔티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판단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요? 판단해 보셨어요?

○증인 배중섭 당시 기획조정관은 YTN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해 6월에 관두셨지요?

○증인 배중섭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전에 YTN 이사회, 유진이엔티 이사회 다 구성됐잖아요. 그게 매각 승인 조건이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안 해 보셨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알짜 협회로 자리를 옮겨서 이동하는 데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답 안 해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홍일 전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지금 계속 언급한 YTN 매각 승인 조건 이걸 의결하신 당사자, 위원장이셨어요.

○증인 김홍일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걸 위반하면,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되는 거지요?

○증인 김홍일 재승인 심사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PPT 보시겠습니다.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배중섭 당시 기조관은 이 의무를 안 한 거예요, 방통위 의결사항인데. YTN 재승인과 연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결사항이에요. 김홍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원회에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내린 의결사항입니다. 맞지요?

맞으세요.

지금 방통위에는 물론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바로잡힐 수밖에 없고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님, 잠시 자리해 주실까요?

앞서 배중섭 기조관은 중요한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옮기셨는데 조성은 사무처장, 최근까지 사무처장 하셨던 분은 삼일회계법인으로의 자리 이동이 실패했어요. 아시지요?

○증인 홍준기 예.

○노종면 위원 실패한 게 확실한가요?

○증인 홍준기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애초에 YTN 매각에 관여했던 방통위 사무처장을 역시 YTN 매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일회계법인이 영입하려 했던 사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입 추천하셨던 분이 홍준기 대표 맞아요?

○증인 홍준기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왜 그러셨어요?

○증인 홍준기 원래 저희 사업 중에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분야 업무가 있었습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회공공정책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키워 나가고 또 저희도 회계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로서 뭔가 사회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회공공, 공적책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안 보셨어요? 삼일회계법인이 의혹을 샀잖아요. 매각 주관사가 아니었는데도 매각 주관사가 갑자기 되고 통매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통매각을 하고. 그런 오해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그 의혹투성이인 매각의 두 당사자 중 한 명을 의혹받는 회계법인이 영입을 한다. 외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통속끼리의 거래였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증인 홍준기 사실 저희가 각자 수행하는 업무들이 좀 다른데 제가 담당하는 감사 분야에서는 YTN 업무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완료된 건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외부 영입하고는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지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부적절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증인 홍준기 사실은 현재에도 YTN 매각 건하고 저희가 그 뒤에 지금 말씀드렸던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부적절했냐고요. 부적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이 있는지 여쭙어보는 겁니다.

○증인 홍준기 그 부분은 저희가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난 4월 중순에 기사로, 여기 국회에서 아마 말씀하신 기사를 보고 다시 그 검토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 아니, 부적절해요, 안 해요? 질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끝냅시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홍준기 저희 지금도 검토 중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종 검토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확정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오늘 이 청문회의 YTN 관계자들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있을 거니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의 순서는 조인철 위원, 김우영 위원 질의하시고 신성범 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조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SKT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SKT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랬지요?

○증인 유영상 통상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 매뉴얼의 목적이 뭐예요?

○증인 유영상 리스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망 장애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조인철 위원 이번 사태로 좁혀서 보면 첫 번째는 그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 보호 아니었을까요?

○증인 유영상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 2개가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조치들이 적정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KT도 그랬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런 해킹 사고들이 일어나면 따라서 나오는 평가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왕좌왕, 느장 대응, 축소·은폐. 지금 SKT도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못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것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어 나온 게 유심교체서비스, 무상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객 신뢰 회복이나 고객 입장에서 서서 사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1번으로 났던 게 단기적 재무 손실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그 부분은 저는 이번 사태에 대응을 하면서 고객 신뢰가 우선이지 재무적인 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했지요? 제가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갔어야 될 게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가 1번이었다고 하면 거기 처리하는 게 가장 먼저였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애 말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 일반적인 판단일 것 아니에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그걸 미쳤다고 하는 게 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것을 디폴트값으로 아예 해 놓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고치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고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바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하나하나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처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실제로 회사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고객에 대한 보호, 신뢰에 대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응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

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일괄적인 조치 하는 게 1번이고요. 왜냐하면 유심보호서비스 신청하는 데도 지금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이제는 많이 좋아저서요. 이번 주말이면 2000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 것들을 진짜 연로하신 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증인 유영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시스템 다운 위험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만 추출해서 별도로 저희가,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약관을 바꿔서 그분들에게는 임의로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는 방식을……

○조인철 위원 지금 임의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유영상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권리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능력 대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긴급 상황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긴급 상황이면 긴급 상황에 맞춰서 가야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유심 지금 부족하대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갤S25 공짜+20만 원, 판촉 열 올려’, 한경 기사입니다. 유심이 부족한 상황이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조인철 위원 유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는 누구 걸 교체해야 됩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고객들 걸 교체해야 됩니다.

○조인철 위원 기존 고객들 교체해야 되지요?

○증인 유영상 예.

○조인철 위원 그런데 왜 외부의 고객 확보 차원에서 기기 변동하는, 번호이동 하는 사람들을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증인 유영상 기존 고객들도 번호이동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인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증인 유영상 아니, 대리점에서 그것을 그 고객들이 기기 변경을 한다 했을 때 말릴 수는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SKT에서는 신규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끌어오기 위해서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었던 분들을, 이쪽 고객이 번호이동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갤럭시25를 거의 공짜로 주고 거기다가 20만 원을 플러스해서 준다는 게 기사 내용이에요.

○증인 유영상 그것은 영업 현장에서……

○조인철 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기존 고객의 유심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몇 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행태라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온 건데?

○증인 유영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SKT가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점유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증인 유영상 알뜰폰은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44% 정도……

○조인철 위원 44%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정보보호 투자비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유영상 아까 계산해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800억을 가지고……

○조인철 위원 그것은 전체고 제가 24년 기준으로 GPT한테 물어봤더니 1인당으로 보면 고객 1인당 3000원 수준이에요. 다른 데 KT나 LG유플러스는 6000원 수준입니다. 절반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야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유영상 투자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답변 좀 똑바로 하세요.

아까 자료 나왔어요, 이것. 얼마로 나왔어요, 1인당?

어떤 위원께서 PPT 띄웠습니다. 4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3756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3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4000원이라고 아까 나왔을 때 ‘그렇다’, 이게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 고객이 유선 고객과 무선 고객이 있는데 유선 고객과 무선 고객을 합치는 것과 합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합치면 삼천칠백 얼마고 안 합치면 4000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위원님들, KISA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했잖

아요. 그 매뉴얼을 물어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KISA가 사고 시점을 바꾸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청했지요?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제가 달라는 자료는 정확히 오류 시 수정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중 원장님.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제가 그냥 매뉴얼 그냥 보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매뉴얼이 먼저 왔어요, 18페이지. 그런데 그 안에 신고 접수 업무 매뉴얼은 있었지만 오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없었던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한 취지를 파악하셔야지,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증인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이 사안은 국회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2300만이 불안해하고 그 가족이 불안해하는 건데 그렇게 대중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까 SKT 최태원 회장 유심칩 바꿨어요? 그것 구두로 답변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해 보세요.

○증인 유영상 제가 전체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 최태원 회장님과 최창원 의장 두 분은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셨고 유심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나머지 임원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자료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유영상 사장님, 최태원 회장에게 해킹 피해 사고를 언제 보고했습니까?

○증인 유영상 일요일 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최태원 회장의 지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증인 유영상 일단은 잘 대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잘 대응하라는 말이……

○증인 유영상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CEO가 모든 현장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CEO가 다 책임지고 합니다.

○김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KISA 원장님.

○증인 이상중 예, 말씀……

○김우영 위원 이 해킹 신고 접수가 최초 접수되고 난 다음에 자료 보존 요청을 왜 21시간이 지나서야 했지요?

○증인 이상중 일단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으나 SK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SK가 적극적으로 대응 태세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SKT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으로……

○김우영 위원 전문가 파견도 28시간 지나서 했고, 그렇지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KISA가 해야 할 기본 업무가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 아닙니까?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에 보안 태세를 강화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 조치 등을 했나요, 지금까지?

○증인 이상중 저희들이 KISA 탐지·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번에는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고를 한 이후에 인지 하였습니다.

○김우영 위원 우리 KISA 원장님은 검사, 수사관 출신이지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2016~2017년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 혹시 수사관으로 참여했습니까?

○증인 이상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않았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김우영 위원 유영상 사장님, 최태원 회장님이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지요, 지금?

○증인 유영상 예.

○김우영 위원 특히 노소영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 중인데.

이 자료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의 글 내용입니다. 제가 구두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마는 ‘심카드 교체 비용은 이리 아끼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것 게시판 글을 임시 조치, 삭제했습니다. 신고자는 최태원 대리인, 사유는 삭제 요청.

지금 방심위의 사무총장 나와 있어요?

○증인 이현주 나와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저쪽으로 나오십시오.

시간 좀 잡아 주시고요.

이것 왜 임시 삭제했지요?

○증인 이현주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증인 이현주 예,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우영 위원 개별 사안입니까, 이게?

○증인 이현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일단 지금 바로…… 잠깐 멈춰 주시고.

방심위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증인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원회도 사이버 유해정보 삭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요?

○**증인 김태규** 유해정보 삭제 업무는 방심위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김우영 위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가 있고……

○**증인 김태규** 이것 뭐 해당 과는 다 관련돼서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김우영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업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인 김태규** 이 건은 개별 사안이라서 우리가……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안입니까, 2500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은 SK에 책임을 떠넘기고 SK그룹은 아주 미온적인 조치만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런 내용……

이게 악의 근원은 과거의 불법적인 권력 찬탈로부터, 그다음에 정경유착 해 가지고 비자금 조성해서 그리고 그 비자금 300억 바탕으로 해서 SK텔레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소송까지 가서 지금 몇조 원의 재산분할 소송하고 있고 그 와중에 KT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보안 관련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는 결국 시민들,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피해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우리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차단서비스 이것을 의무적으로 전체 고객에게 전체 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해지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서 더 심한 통신 장애가 날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두 번째, 이심전환서비스 알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우영 위원** 거기 이심 전환이 가능한 단말기가 전체 고객 중에 얼마 정도 해당됩니까?

○**증인 유영상**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 되는 소비자들에게는 바로 이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스템도 즉각 시행을 안 합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이심에 대해서는 이심을 무료로 그리고 이심을 다 개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 교체 대신에 이심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심에 대해서 무료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위자료는 통상 디지털 환경하에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2300만이면 이게 2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중대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내지는 또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선제적으로, 특히나 번호이동 할 때 위자료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선제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통한의 사죄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

해서 그룹 차원에서 최태원 회장이 나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 조치와 사후 보상 관계 등등 이렇게 해도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운데 게시판에 글 올린 것 삭제나 하고……

방심위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정보위원회에 다녀오느라고, 주재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국가정보원이 4월 28일, 그러니까 그저께 정부 전 부처, 19개 부처 또 17개 광역지자체,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여기 보면 유심을 다 교체하라, 무선통신망 기반으로 하는 영상 신호 전송—아마 CCTV 이야기겠지요—교통신호 제어, 원격 계측 유심 교체하고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모바일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라, 그다음에 유심 교체 이전까지는 유심 보호서비스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 이렇게 국정원 명의로 공문이 4월 28일 날 다 내려갔습니다, 19개 부처, 17개 지자체에.

국정원이 언론에 나온 대로 사이버 보안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데 국방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군에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강도현 차관님.

○증인 **강도현** 예, 위원님.

○신성범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정보에 민감한 군과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교체를 권고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냥 우려하는 건데 과도한 겁니까?

○증인 **강도현**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권고한 사항이고요. 교체가 가능한 시점 전까지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던 권고 사항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적어도 국가정보원은 별도의 정보를 갖고 판단한 것 같지는 않나?

○증인 **강도현** 아,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유영상 사장님, 어때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정원의 과도한 우려입니까, 별도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증인 **유영상** 그러니까 그 권고하시는 것은 권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심보호 서비스로 일단은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다 원하시는 대로 교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결론인데, 말을 좀 바꿔 볼게요. 함께, 같이 유출되지 않은 이유는 뭘니까, 강도현 차관님?

○증인 **강도현** 현재 조사는 전혀 다른 서버에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유영상 사장님, 별도로 설명을 해 보세요. 안 나간 게 다행인데 다른 서버에 별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쉽게 설명해 보세요.

○증인 유영상 저희가 유출됐다는 것은 HSS서버라는 거고 거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가 없고요. 단말기 고유번호는 다른 서버에 있는데 그 서버를 저희도 했지만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같이 해서 봤을 때 그건 유출되지 않았다고……

○신성범 위원 확인이 된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확인됐습니다.

○증인 강도현 예, 침해 흔적 그다음에 유출 흔적 없었습니다.

○신성범 위원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 주체와 관련해서 정부합동조사단,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선 BPFDoor 이런 게 유영상 사장님,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공격의 배후에 글로벌 해커그룹의 조직적인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영상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정할 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예.

○신성범 위원 들어 봤더니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 줘 봐요, 우리한테.

○증인 유영상 이게 시작은 그 해커집단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그 소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해커집단도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그 기술 자체는 그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이 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강도현 차관님, 이상중 원장님. 이게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추적 가능한 거예요, 이상중 원장님?

○증인 강도현 일단 유출 장소의 IP 확인하고요 공격 패턴 확인하고 그다음에 악성코드에 대한 변종 여부 확인하고 서버의 감염 여부 확인하고…… 그 서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라는 유입 경로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사를 지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중 원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증인 이상중 지금 해당 해시값 이런 것도 공유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관합동조사단, 정부합동조사단이라는 표현, 정확한 공식 명칭이 뭐예요?

○증인 강도현 범상 민관합동조사단입니다.

○신성범 위원 민관?

○증인 강도현 예, 필요시 민관……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

○신성범 위원 여기에 국가정보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국가정보원에서는 요청했는데 SKT에서 거절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유영상 사장님?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 차관, 설명을 해 보세요. 국정원이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볼 텐데 왜, 국정원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지요? 법상……

○**증인 강도현** 현재 법에 각자 그 역할이 나뉘져 있고 현재 방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이기에 때문에 필요 시에…… 저희 조사단 자체에는 국정원이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없고 또 민간에 SKT라는 조직도 있는데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강도현** 저희가 공공 쪽에, 패턴에 대한 문제나 내용이 조사가 되면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현행법상 민관합동조사단에 국정원의 참여 근거는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지금 조사 진행 속도를 볼 때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주체, 피해……

○**증인 강도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지난번에 LG 조사에 있어서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서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난달 3월 19일 날 방통위원회에서 SKT를 이용자 보호 업무 ‘매우 우수’ 등급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런 돌발 상황이니깐 그렇다고 치는 건데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제도 자체가 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증인 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명확히 하고 갑시다.

SKT가 기술지원을 거부한 건 국정원이 아니에요. 국정원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영역에. KISA의 기술지원에 대하여 거절한 겁니다.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정원이 SKT에 이 사태 터졌다고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이건 명확히 하고 갑니다.

○**증인 유영상** 국정원에서 요청이 왔는데……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말씀 잘못 드렸는데, 처음에는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합동조사단을 통해서 하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위원장 최민희 합동조사단을 통해서도 못 합니다.

○증인 유영상 그거는 이제 저희로서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건 KISA의 기술지원을 SKT가 거부한 이유까지 저희가 밝혀야지요. 그건 답변 준비하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포항 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이상중 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인 이상중 예.

○이상휘 위원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도둑 맞은 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킹당한 거지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해킹 수법이 어떤 수법입니까?

○증인 이상중 특정 코드…… 리눅스 기반에서 돌아가는 악성코드의 일종입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백도어입니까?

○증인 이상중 예, 백도어입니다.

○이상휘 위원 백도어 방식이지요.

국제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해킹 그러면 중국식도 있고 북한식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이 백도어 방식은 주로 중국식 해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뢰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증인 이상중 사고가 터진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수사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 자체로는 중국에서 해커조직이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이상휘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북한식은 아니고?

○증인 이상중 예, 일단 지금까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아,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이상휘 위원 정말 이게 참 불안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치도 않고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북한 같은 경우에 최고급 엘리트 요원들만 해킹조직이 3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이상 가입자인데 이렇게 뚫리게 되면 민간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전 국민의 차원에서 전 국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상업적 분야라고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그대로 피해받는 사례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이상중 조금 전에 강도현 차관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해시값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파를 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위원 강 차관님, 지금 사고 난 지 일주일 넘었지요?

○증인 강도현 예.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이제 1차 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이거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인가요, 여기 가입하면 유심 복제를 통한 불법 행위 이게 방지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맞나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유영상 사장님, 중요한 건 표현을 제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를 도둑 맞는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일반 서민들은 ‘은행에 있는 돈 다 빼내 가는 것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이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지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이 불법 유심 복제를 가지고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로써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아니, 잠시만요. 말을 어렵게 하시면 우리 국민이 못 알아들어요. 은행에 있는 돈 빼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영상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불법 복제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거의 100% 방지를 한다고……

○이상휘 위원 보상하시겠냐?

○증인 유영상 예, 보상도 하고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신다는 겁니까?

○증인 유영상 그러니까 이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신고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보상……

○이상휘 위원 신고하면, 그러니까 유심보호서비스인가요, 여기 가입하시면……

○증인 유영상 이거 가입 안 하셨더라도 복제 문제로써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데……

○이상휘 위원 그래야 돼요. 사고는 SKT가 저질러 놓고……

○증인 유영상 맞습니다. 저희가 다 책임배상해 주고, 다 책임지겠습니다, 복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이상휘 위원 절대 조건부 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증인 유영상 예,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취 위원 아니, 지금까지 SKT에 국민들이 낸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런데 사고가 생겼는데 조건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후안무치한 일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전원 끄거나 비행기 모드 켜는 경우 복제 유심을 활용해서 유심 주도권을 탈취해 갈 수도 있다,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거는 기술임원이……

○증인 류정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취 위원 예.

○증인 류정환 아까 그렇게 파워가 꺼진 경우에는 유심보호서비스나 FDS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막을 수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장담하지요?

○증인 류정환 예, 장담합니다.

○이상취 위원 이것도 사고 생기면 책임져야 됩니다.

○증인 류정환 예, 유심보호서비스와 FDS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취 위원 이것도 물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심 주도권을 탈취당할 경우 범죄자들이 불법 기변한 단말기에 공인인증서 다운받고,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은행 계좌, 비밀번호 확인하고 무단으로 주식이나 코인 거래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꼭 좀 물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증인 유영상 저희가 만약에 뚫린다면, 그래서 불법 유심을 가지고 새로운 복제품을 만든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걸 못 하게 막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추가로 류정환 부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류정환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취 위원 예,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증인 류정환 일단 불법 복제라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은행권의 금융권 탈취라는 게 있는데 애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안 나갔기 때문에. 애는 어떤 정보가 나갔다는 가정하에 두 개가 결합되는 경우고요. 결합돼서 이 단말기가 살아야 되는데 단말기가 범죄자한테 위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복제 유심을 끼워야 되는데 그 유심을 끼울 때 유심보호서비스가 막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연관시키면 이것 때문에 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취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사건 아주 중대하고 심대한 사건입니다. SKT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하신 얘기들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증인 유영상 예.

○이상취 위원 PPT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SKT가 업계 1위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상휘 위원 정보보호 인력이 대부분 내부가 아닌 외주 인력으로 구성됐다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유영상 이 부분은 내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혼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혼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과 그다음에 SK 쉐lder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보호 회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SK쉐lder스 대표 그만됐지요?

○증인 유영상 지금 SK쉐lder스 대표는……

○위원장 최민희 그만됐잖아요.

○증인 유영상 새로운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작년쯤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위원장 최민희 확인하세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확인하시라고요, 그 사실을.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사건이 SK텔레콤 지금 해킹 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영상 사장이 4월 25일에 공식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사건 발생, 해킹 발생 1일 차부터 13일 차까지 볼 때 4월 25일 대국민 사과 발표 이외에 공식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도 100% 하겠다 그다음에 유심칩 드리겠다고 했지만 준비된 것과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용자의 불편은 매우 심각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SK 접속 대란이 있었습니다. 긴급대응 부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대기인원이 무려 61만 2250명, 대기시간 170시간까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대국민 사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에 위약금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와 아울러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관 어디에 계시지요?

○증인 강도현 아마 법사위에 계실 겁니다.

○김현 위원 법사위에서 'SK가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해서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과부터 하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져야 된다고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발언 내용 확인하시고요. 오후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습시다.

○증인 강도현 예, 문제가 되는 서버 지정 안 됐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증인 강도현 기반 보호법에 있는 기반시설 제도 전반을……

○김현 위원 아니, 일단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긴급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행령으로 통치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증인 강도현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 시간 이후 검토해서 오후에 질의할 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자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SKT에서는 4월 28일, 4월 29일 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2500만 명 전체 국민이 다 받았습니까, 유영상 사장님?

○증인 유영상 지금까지, 23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다 됐습니다.

○김현 위원 다 발송했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현 위원 그러면 과기부차관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강도현 예.

○김현 위원 국민 생명·안전 보호해야 될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21조에 보면 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통신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재난이 발생했어요. 통신재난이에요. 그러면 SKT에서 이것을 발송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되면 정부에서 문자…… 재해 상황을 대비하는, 통신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문자 공지를 할 수 없었나요, 적극적 행정의 개념으로?

그래서 100만 칩이 있는데 500만 명까지는 며칠까지 가능하고, 5월 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기업을,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면 안 되나요?

지진, 태풍, 강풍, 가뭄, 심지어 미세먼지가 나도 문자를 보냅니다. 2500만 명의 국민이 피해 대상으로 들어갔으면, SK텔레콤의 불가능한 서버 때문에 문자 발송이 안 된다면……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김태규 부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있습니까,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김태규 저한테 따로 지시하신 것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한덕수, SK 유심 해킹과 관련해서 27일 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증인 김태규 회의했습니다. 회의는 했습니다.

○김현 위원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진숙 장관이 28일 날 미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총리, 대통령권한대행께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외국 나갔어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태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현 위원 무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 전무한데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증인 김태규 아니, 뭐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는……

○김현 위원 보고받은, 지시 내려온 게 없다고 아까 대답하셨어요.

○증인 김태규 아니, 그 회의는 따로 얘기를 하였고 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증인 김태규 어제 회의 가서 과기부나 뭐 이렇게……

○김현 위원 오늘까지 방통위가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똑부러지게 한 가지라도 한 것 있으면 답변해 보시라고요.

○증인 김태규 과기부에서 해당 65세 이상, 일단 처음에는 60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심보호서비스 강제 가입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 방통위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 그다음에……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법률 검토하라고 지금 방통위에다가 얘기한 것 아니고요.

지금 이용자는 통신사와 이용약관을 통해 상호 서비스를, 이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상의 위약금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 약관을 검토해서 번호이동을 자유롭게 할 용의 있습니까, SK텔레콤 사장님?

○증인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언제까지요?

즉시 하십시오.

○증인 유영상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오늘 오전 질의 끝나고 최태원 회장하고 상의해서 오늘 중에 번호이동과 관련된 위약금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내놓으십시오.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로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관계 기관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기부차관님?

○증인 강도현 아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법률 검토를 오늘 하십시오. 하셔서 답을 내놓아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에 하십시오.

○증인 강도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도현 차관.

○증인 강도현 예.

○위원장 최민희 이번 SKT 사태의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가장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침해는 SKT가 못 막았지만 전반적인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가 걱정했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 최민희 직접적인 귀책사유는—‘직접적인’—SKT에 있지요?

○증인 강도현 예, 침해의 정도와 내용의 파악이나 그다음에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그것을……

○위원장 최민희 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SKT 쓰면 이번에 SKT가 해킹당했으면 제 잘못입니까?

○증인 강도현 SKT……

○위원장 최민희 소비자 잘못입니까?

○증인 강도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SKT 잘못입니까?

○증인 강도현 SKT 잘못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유영상 대표, 이번 SKT 해킹 사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SKT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SK텔레콤 이용약관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합니까. 약관에 제44조(위약금 면제) 4번 보십시오. 보이시지요? 강도현 차관님 보이시지요?

○증인 강도현 예.

○위원장 최민희 4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어디예요? 회사에.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증인 강도현 동 사안은 SK텔레콤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SKT지요?

유영상 대표, 위약금 면제 관련된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뭘 더 법률 검토합니까? 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최형두 간사께도 김현 간사께도 이거 오늘 해결 안 하면 못 끝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검토가 뭐가 필요합니까.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유영상 대표,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말하세요. 뭘 더 검토하냐고요!

○증인 유영상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무슨 종합적인?

이 규약, SKT 규약 아닙니까?

답하세요.

○증인 유영상 제가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SKT는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이 사안은 SKT 규약에 따라 움직여야지요?

답하세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SKT 규약에……

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번 사태 귀책사유 어디 있냐? 소비자에게 있냐? 아니다, SKT에 있다. 여기 있습니다, 근거가. 위약금 면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 면제된다고 SKT 법에 나와 있는데 뭐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답해 보세요. 뭐 검토하실 겁니까? 종합적으로, 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까?

답하세요.

○증인 유영상 제가 지금 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가 아니잖아요.

○증인 유영상 종합적·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법률적 검토란 이 약관으로 끝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SK 내부의 보고체계라든지 최종 결정권자와 의논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따 10분 휴정하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사이에 통화하고 오십시오.

○증인 유영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은 CEO인 저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세요?

법과 제도에 따라 이 문제 처리할 겁니까?

○증인 유영상 예,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SK 이용약관이 SK 법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뭘 종합적으로 봐요? 뭘 볼 건데요?

○증인 유영상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민희 여기 뭘 못 볼 게 있습니까?

답하세요. 여기 뭘 못 볼 게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건데.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대충 답하고 돌아가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내요. 못 가십니다.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그렇지…… 아니, 내 폰이 해킹당했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불편해 죽겠는데,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 번호이동 하고 싶은데, SKT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명백하다고 정통부차관도 답을 하고 SKT 대표도 답을 하고 규약에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회사 귀책사유 딱 떨어지는데 이것 왜 답 안 하십니까?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SKT 신뢰가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SK텔레콤 이용약관대로 이번 SKT 해킹 사태는 SKT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로 인하여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지요, 유영상 대표? 법적으로 맞지요?

○증인 유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더 내부 법무……

○위원장 최민희 그거 뭐예요? 누구입니까, 지금?

○증인 유영상 법률 규정, 약관의 해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걸 답이라고 줘니까?

강도현 차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전 국민에게 물질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주고 이랬을 때 최고로 때릴 수 있는 징계 수준이 됩니까? 영업정지지요?

○증인 강도현 예, 사업법상……

○위원장 최민희 이것 검토해서……

지금 답변 태도 보세요. 그것을 쪽지라고 줘니까? 전 국민 앞에서 그것을 쪽지라고 줘니까?

SK텔레콤 이용약관대로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엉뚱한 궤변 만들어서 또 국민을 속일 겁니까?

유영상 대표 답하세요. 답하세요.

○증인 유영상 약관과 내부 종합적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내부 종합적 검토가 됩니까? 내부 종합적 검토는 약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CEO지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정확히 답하세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번에 SKT에서 번호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돼야지요, 약관에 따라서?

○증인 유영상 지금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맞지요? 그것 동의하셨습니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대표로서 약관대로 하겠다. 그게 맞다. 그런데 내부에 의결 절차가 있으니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종합적 검토를 합니까, 지금?

강도현 차관님. 강 차관.

○증인 강도현 예, 위원님.

○위원장 최민희 지금 제 말이 틀린 것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이용약관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아마 귀책사유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세부 내용들을 지금 맡겨 놔기 때문에 그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뭘 고려하실 건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라면서요? 회사의 귀책사유라면서요?

○증인 강도현 사고의 책임은 귀책사유가, 그러니까 사고의 책임은 SKT에 있고요.

○위원장 최민희 예, 있습니다.

○증인 강도현 그 귀책사유 세부 내용에 대한 해지 여부와 면제 여부까지에 이르는 부분들은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여기 44조(위약금 면제),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사의 귀책사유.

왜 이러십니까? 정말 다들 왜 이러십니까?

○증인 강도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이 약관대로면 귀책사유가 SKT에 있고 나 번호이동 하고 싶으면 위약금 면제되는 게 맞지요, 이 약관에 따르면?

○증인 김태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유열 사장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유열 저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국민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런 명확한 사안을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현 간사로부터 과기정통부장관 출석 요청과 관련한 증인 의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최형두 위원 그런데 왜, 장관을 특별히 불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 위원 장관은 법사위에 와 있어요.

○최형두 위원 법사위에?

○김현 위원 와 있다고요. 차관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됩니다.

이것은 최형두 간사도 동의 안 하실 일 없겠지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오늘 회의를 언제쯤까지 하실 겁니까?

○김현 위원 장관이 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 부르자고요, 간사님.

○최형두 위원 아, SKT?

- 신성범 위원 간사 협의를 하고 나서 좀 하지.
- 김현 위원 대충 하면 되지요.
- 위원장 최민희 이게 뭐 협의할 사항 있습니까?
- 김현 위원 증인 채택에서 빠져서, 누락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 위원장 최민희 우리가 그때 기관증인이라서, 기관증인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 최형두 위원 SKT는 오후에 계속하고 유영상 대표는 1시 반에 가고.
- 김현 위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장관을 부르자고요, 와 있는데.
- 최형두 위원 SKT 이 사태에 대한 장관의 책임 있는.....
- 김현 위원 답변을 받아야 돼요.
- 위원장 최민희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증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상임) 증인 출석요구의 건

(12시56분)

-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 증인 의결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이 안건은 SKT 사태의 정부 측 최고책임자인 과기정통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사건, 이 사태 관련 해결책을 듣고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릴게요.
- 김현 위원 지금 국가정보원이 'SK 유심 정보유출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기 보안조치 권고'라는 제목하에 세 가지 사항을 보냈는데요. 업무용 유심 교체하고 그다음에 보호서비스,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가나다에 대한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참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동 사안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 전 부처에 보냈는데 사실 이런 게 국가가,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가중시키는 거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여기 마침 정보위원장님이 계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 불안을 좀.....
- 신성범 위원 아니, 제가 뭐 국가정보원 대변인도 아니고.
- 김현 위원 정보위원장인데.....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신성범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국가정보원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알았던, 취득한…… 단어가 어렵네요. 취득한 사실은 4월 28일 공문을 보냈다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라도 국정원에 가면 사이버안보센터가 있으니 많이 알 거라는 전제로 물어봤던 거고.

내가 국정원이 개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입이 안 된다 하면 그걸로 종료된 사안입니다.

이상 이하도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정보위원장님이 시작하신 거라……

정리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제가 국정원이 참여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시냐고!

○김현 위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다고요.

○신성범 위원 그런 것은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김현 위원 아니, 국가정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신성범 위원 국정원은 모든 걸 하면 안 되나? 왜 그리……

○김현 위원 과학기술정보부에서 해야지요.

○신성범 위원 왜 그리……

○김현 위원 책임 있게 개인정보 보호는 개보위든 과기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사안은 민간 영역의 경우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이 질의 순서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저분들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위원장 최민희 저도 안 갔거든요.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께 오시면 2분 더 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유영상 대표님, 아까 계속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심보호서비스 문자메시지를 어제까지 안내 문자를 다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못 받아 본 분들이 있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한번 확인을 다시……

○증인 유영상 해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못 보냈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해외가 아니고요.

○증인 유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가짜뉴스가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심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심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것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안내, ‘이것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안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증인 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또 하나…… 차관님하고.

지금 위약금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차치하고, 이동통신사를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면 옮기는 과정에서 유심이 또 새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타 이동통신사에서 새로운 기기라든지 뭐 어쨌거나.

지금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SKT를 쓰는 사람이 KT로 옮겼다 이러면 그 유심칩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렇게 되면 KT나 LG유플러스에서 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차관님, 대표님이나.

○증인 유영상 경쟁사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유심 유통량이, 필요량이 월 한 40만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월 40만 대인데 그것은 평상시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러면 지금 SKT에서 5월 말까지……

○증인 유영상 500만 개.

○김장겸 위원 500만 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다 흡수, 빨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유영상 그래도 아마 경쟁사가 영업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확보한 것에는 지장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증인 유영상 경쟁사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장겸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경쟁사가 그 정도 같으면 그 경쟁사의 유심칩을 사서라도 어떻게 좀 제조, 자체……

○증인 유영상 그것은 반도체는 똑같은 걸 쓰는데 반도체 유통단의 것들은 3사가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반도체단에서…… LG나 KT에서 사실 제안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주문하려고 했던, LG에서 주문하려고 했던 그 반도체를 SK한테 줄 테니까……

○김장겸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 기간이, 반도체부터 유심까지 만드는 기간이 저희가 필요한 그 기간보다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저희 500만 대는 5월 17일부터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죽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사이 필요한테 그사이에 대해서는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네요?

○증인 유영상 그래서 저희 말씀은 유심보호서비스를 일단 무조건 다 가입해 두시면

안전하니까, 교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지만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나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이지만 사실 SKT 대리점, 소상공인 이분들이 또 굉장히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 유영상** 예, 그 대책은 내놓겠습니다.

지금 유심 교체와 관련해서 사실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점에 계시는 크루라고 하는 일하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콜센터도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은 망 체계를 보면, 지금 이번에 해킹된 게 인터넷을 통해서 밑에 보면 IT 백본이라는 데 침투해서 다시 관리망으로 침투해서 HSS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것 내부 인트라넷망을 뚫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이 부분은 류정환……

○**증인 류정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류정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폐쇄망이고 분리된……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런데 분리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갔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증인 류정환** 아니요. 저희는 분리한다고 다 분리가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딘가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서는 분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장겸 위원** 그래서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관측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증인 류정환** 그건 저희가 지금 선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사장님, 답변을 가급적이면 빨리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보가 왔는데 이 와중에 SKT가 신규 고객 확보 프로모션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번 호이동 지원금 정책인데 제보라서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으로 사고 이전에는 선택약정이면 50만 원 지원, 사고 이후 지난 주말이에요,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린다는 공문입니다.

아이폰16프로는 사고 이후 신규 고객 대상 지원금 거기도 2배 가까이 올랐고 대부분 2 배 가까이 올렸는데 이것 알고 계셨나요?

○증인 유영상 신문지상으로는 알고 있었습시다만 내부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화가 난 고객들……

모르셨어요?

○증인 유영상 내부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해민 위원 내부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증인 유영상 지금 대책……

○이해민 위원 지금 화가 난 고객들을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사실 대리점이지요. 유심 찾아왔는데 교체 유심 없다고 하고 번 호이동 고객은 지원금을 2배로 올려서 준다고 하니까 대리점들 죽어나지요. SKT는 이런 것 하나 상식적으로 관리 못 하십니까?

게다가 지금 교체용 유심은 5월 20일 이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공지도 내려왔다고 하네요, 신규는 해 주고.

사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체 목적 유심 교체를 신규 목적 유심 처리보다 후순위로 두면 절대 안 된다, 공문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사장님 계속 시스템 장애 날까 봐 이것도 못 하고 저 것도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유심 정보 리라이팅하는 기능 추가, 서버 쪽에서 하는 것 등등 해서 기능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SKT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투자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듯이 아까 보신 거고.

지금 기업에서 정보보호 투자의 공지의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냥 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 최소한의 보안 투자 비율 법정 의무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번 건 관련해서 스팸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해커고 유심 정보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증 관련된 피싱 문자 뿌릴 거예요. 이것 온 힘을 다해서 방통위에서 걸러내셔야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사고가 불러온 국민 불안, 음모론, 가짜뉴스 확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차례로 인터넷진흥원장님 그리고 SKT 사장님, 과기정통부차관님,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금 합작품으로 이런 혼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들 입장 말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쓰셨어요. 위약금은 많이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0% 피해보상,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많이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출된 데이터는, 그런데 현실은 당장 쓰이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서 결합해서 쓰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 시기 그다음에 피해 규모 특정할 방법이 개인에게 없습니다. 고객에게 없습니다.

기업은 큰 로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 피해 입증을 완화시켜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 입증 완화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유영상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증인 유영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적극 검토……

사장님, 여기 보시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때 목적어가 빠졌어요. 무엇을 책임지실 걸로 여기다 쓰신 건지 그 목적어, 그 범위, 100% 책임지는 범위·조건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만은 아니고 이번 유심 유출과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 아니요. 목적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

○증인 유영상 그것을 제가 지금 다 특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유심 복제로 인한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해민 위원 그러면 피해 입증 완화 천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유영상 피해 입증 완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구울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유영상 사장님, 아까 제가 첫 질의할 때 오늘 청문회가 SKT의 존폐가 걸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 답변하는 것 죽 지켜보니까 아주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SK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잘못하면 SKT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이 그런 전문가로서의 능력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국민들의 정서를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이사회나 최태원 회장만 중요해요. 가입자나 국민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국민의 거의 절반이 가입자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서 아까 과기부차관님이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어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면제하시겠습니까, 위약금 면제? 법률적으로 과기부

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증인 유영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묻잖아요.

○증인 유영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인……

○이훈기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히 하세요.

○증인 유영상 저희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과기정통부 법률 검토를……

○이훈기 위원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아니고 과기부에서, 그리고 이용약관상으로는 하게 돼 있어요.

이용약관 승인한 것은 과기부 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 강도현 맞습니다. 그 해석은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두 기관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과기부에서 법률 검토해서 문제없이 면제해도 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증인 유영상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SKT 망하고 싶어요, 정말? 국민들이 SKT 망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증인 유영상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사장님, 국민들이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바꾸는 나라예요. 기업 하나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증인 유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유영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된다면 저희들이 위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약속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면서 봤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아셔야……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는 지 알아요? ‘SKT 영업정지 3년 시켜라’, ‘통신사 사업자 폐지해라’, ‘SK그룹 폐지시켜라’ 별 것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 대해서는 얼굴과 말하는 것에 미안함이 전혀 안 배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영상 죄송합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유심 교체에 대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발표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아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말고 제가 두 가지 약속하라 그런 것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에 대한 유심 예약, 명의도용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과거에 SKT가 코로나 때 직접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했어요. 이것 지금도 할 수 있고 할 여력이 되세요,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증인 유영상 이게 지금 많은 리소스가, 콜센터도 그렇고 티월드도 그렇고 유통망도

그리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응하는 데 거의 짝 차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증인 유영상 예, 그것은……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해서……

○이훈기 위원 아니, 지금 할 수 있냐고요, 이런 것.

○증인 유영상 지금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훈기 위원 사장님, 횡설수설하세요, 지금.

○증인 유영상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무튼 간 아까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십시오.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이 청문회 지켜보면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한 가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후 3시 반 저희가 회의를 재개하게 될 텐데요. 그때 위원님들은 제시간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오후 3시 반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잘못이 회사에, SKT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과기정통부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그런 반규칙적·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좌관들께서는 3시 반에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시간에 도착하시도록 전달하십시오.

그다음에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아까 매뉴얼에 대해서 여쭙보고 말았는데 SKT 입장에서 보면 이게 능력 대응이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SKT가 상당히 능력 대응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KISA에 신고한 것도 하루이틀 정도 늦었지요?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조인철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겁니까?

○증인 유영상 그때 당시로서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물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지만 매뉴얼에 사실 이 정도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유심보호서비스를 하라, 유심 교체를 하라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즉각 초동 조치를 한 다음에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초동 조치해야 될 사항, 그러고 나서 종합적인 어떤 대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게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나요?

○**증인 유영상** 지금 이 건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조인철 위원** 그러면 무슨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기본 매뉴얼은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일단 차단 조치를 해라, 그 차단 조치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해라, 그런데 신고에 대해서 물론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다음에 고객 보호 대책을 마련해라.

○**조인철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보면 매뉴얼이 잘못돼 있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증인 유영상** 조금 더 개정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KISA 원장님.

○**증인 이상중** 예, 말씀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매뉴얼 점검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상중**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인지 시점 그것이 오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뉴얼을 다시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누구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이상중** KISA 신고 매뉴얼이요.

○**조인철 위원** KISA 매뉴얼이 아니고 SKT 매뉴얼을 점검해 보셨냐고요.

○**증인 이상중**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것 왜 안 하시지요?

○**증인 이상중** 저희들한테 그런 프로세스까지는 되지 않고……

○**조인철 위원** 그런 권한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증인 이상중**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해서 아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강도현 차관님, 매뉴얼 점검 권한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개별 기업들의 매뉴얼 점검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제가 정보통신방법을 살짝 훑어보면 충분히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점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인다고요.

○**증인 강도현** 근거가 조금 약한 점은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KISA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점검도 안 해 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특히나 KISA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매뉴얼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SKT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킹 사고가 나면 늘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축소, 은폐, 누락 대응입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기부 강도현 차관님?

○**증인 강도현** 일단 대상, 범위 확정시키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매뉴얼 체계를, 대응체계를 같이 따져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신청했는데요. SKT의 핵심 서버를 공략한 것으로 봐서 저는 해커들의 수준이 아주 높고 장기간 이런 플랜을 짰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망 분리도 나름으로 잘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수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9GB 정도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따져 보면 한 3000만 명 데이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00만 명 가입자가 다 털렸다는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T는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 모두가, 가입자가 그냥 다 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알뜰폰 가진 가입자도 다 털린 거겠네요?

○증인 유영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있다고 합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전국 SKT 가입자 전체에 대한 보상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심칩 교체하면 제일 좋겠지만 말씀을 들어 보면, 2500만 명의 유심칩을 교체하려면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채고와 저희 일하는 कै과까지 따지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방식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는 진짜 3개월 만에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유영상 최소로.

○최수진 위원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유심 교체로 안 되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심으로 교체하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증인 유영상 유심보호서비스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알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보내지 않아요, 알람 같은 것을?

○증인 유영상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걸 보면 피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이 가입을 하였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 정도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유심 교체하고 이심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은 동등한 효과가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유심을 초기화하자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요. 유심 자체를 아예 초기화하자.

○증인 유영상 예.

○최수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효과,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기술은 개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류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정도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안 해 보던 거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안 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유심 교체 또는 이심, 두 가지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겁니까?

○증인 유영상 유심보호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최수진 위원 일단 보호서비스는 기본 깔아 놓고.

○증인 유영상 예.

○최수진 위원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결국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짜 독을 잠시 막아 놓은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수립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인 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다음에 또 제일 불편한 게, 각 은행에서 지금 다 막은 것 아시지요, 점점 막아 가고 있고? 실제 그걸로 물건 살 수 없게 하고 이런 불편함의 해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심을 갈았어, 새로운 걸로 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결국은 그런 권한들을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생활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증인 유영상 저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나 충분히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호소를 하겠지만 금융권이 결정할 문제라서.....

○최수진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유심 교체했어, 했으니까 나 해 줘 그런 것들이 개인이 얘기한다고 은행에서 해 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유영상 죄송하지만 저희가 해 준다고 해도.....

○최수진 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 빨리 마련하세요.

○증인 유영상 예.

○최수진 위원 예를 들어서 유심 교체한 그것에 대한 사람에 한해서는 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SKT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증인 유영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한 분에 한해서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이 해킹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일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사용자가 어떻게 알지요? 이런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취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내 것이 해킹이 됐어, 안 됐어 이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지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것.

○증인 류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로 해 가지고 가입자가 특징이 되면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전이라도 그런 범죄자 집단의 어떤 해킹 같은 공격이 있으면 내 폰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여태까지 안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증인 유영상 네트워크 방식으로 FDS를 통해서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데 아까 FDS 문제 있다고 그러서 가지고……

알겠습니다.

○증인 류정환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유심보호서비스까지 결합을 해서 100%인 거고, 저희가 100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정확한 게 유심보호서비스라고 말씀드린 거고, FDS를 통해서 현재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FDS랑 유심보호서비스를 해도 해외에 나가서 로밍할 경우 유심보호서비스가 작동 안 하니까 그게 몇 프로인지 그 퍼센티지가 100%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한 거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오늘 우리 과방위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의 치열한 그리고 아주 국민들이 걱정을 전하는 이것을 한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유영상 대표가 유심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다 교체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증인 유영상 빨라야 3개월이고요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최형두 위원 아까는 금방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증인 유영상 5월 말까지 500만 들어오고요 6월 말까지 또 500만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또 교체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증인 유영상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지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심으로 하면 그게 더, 유심 교체하는 효과가 똑같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을 하시는 분들은 이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그 수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열심히, 참 정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큰,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부추기는 청문회가 되어서 대기업과 우리 산업계에 더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수준이 국민들이 아는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 우리 국회가 도리를 다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몇몇 답변을 보면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한 것과 많이 달라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개보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보 유출이었지만 SK텔레콤은 메인서버가 해킹당했기 때문에 유출 규모가 매우 크고 더 심각하다, 그래서 과징금 액수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개보위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보위 부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사 중이다. 100%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아까 SK텔레콤 담당자는 확실히 구분됐기 때문에 유출 안 됐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증인 류정환** 이번에……

○**최형두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어제 이런 상황이 보고 안 됐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저희는 합동수사 하는 쪽하고 같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침입을 받은 쪽은 네트워크인 거고 마케팅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 그런 점은 빨리 확인해서, 주민등록까지 유출되고 여기 유심 정보가 나왔으면…… 사실은 이게 한 12년 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의 정보통신부장관이 나오셔서 가지고 유심 정보로 인해서 절대로 폰이 복제될 수 없다. 당시 우리 당의, 지금 이번 이 사태의 우리 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의원이 직접 용산에서 가져와 가지고 유심 복제폰을 가지고서 동시에 2개 전화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적당하게 하루 면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보위 부위원장이 ‘외부에서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하려면 방어망 5개를 뚫어야 했는데 해커가 어떻게 이것을 모두 뚫고 로그인을 통과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폐쇄망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방어망을 강하게 쳤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계속 찾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왜 이게 심각하냐면 얼마 전에, 어제 그제 놀랐던 게 스페인에서 아웃티지(outage), 완전히 대정전이 있었지요. 그것 무엇 때문에 정전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킹도 있을 테고 자연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다 그럴 수도 있고 많은데, 통신망이 두절되거나 나중에 통신으로 개개인

정보가 흘러 나갔을 경우에 그 재앙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북한이 ICBM이 아니라, 중국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우리를 그대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대책을 매우 잘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SK텔레콤도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보다도 더해서 국가 기본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핵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SK텔레콤에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이면 미국에는 버라이존인데 버라이존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가 있었지요?

○증인 유영상 예.

○최형두 위원 어떤 이슈였습니까?

○증인 유영상 비슷한 해커에 의한 침해이고 고객정보 유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이라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미국 FCC도 이것 냈었습니다. 지금 끝났는데 방통위하고 과기부도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이 사안이, 우리 국가 안보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철저히 막아 주십시오.

○증인 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SK텔레콤 유영상 사장님, 혹시 방통위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동안 이 사건 터지고 나서요?

○증인 유영상 합동조사본부를 통한……

○김현 위원 그런데 합동조사본부에 지금 과기부가, 방통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증인 유영상 예, 직접적인 건 없었습니다.

○김현 위원 없지요?

담당자 나오십시오, 방통위 담당자.

정보통신망법 제4조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마련 이것 방통위 소관 업무지요?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는 이 건이 방통위 소관 업무지요?

저기에 제일은행, SK 유출 관련 피해예방안내 한번 띄워 보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은행은 이렇게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기 화면에 띄워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통위 홈페이지 한번 띄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출장 갔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하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들이 통신사들이 SK텔레콤 불법보조금 주겠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것 시장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저희가 그……

○김현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서 사업자……

○**김현 위원** 어느 사업자예요? SK텔레콤은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업자랑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저희가 4월 28일에는 통신 3사와 했었고 4월 29일에는 SKT 임원하고도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래서 이용자 차별행위나 해지 방어 등 단통법 위반……

○**김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서 공지를 했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단통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 당부한 내용을 공지를 했냐고요, 국민들이 알게끔. 공지를 했냐는 걸 묻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공지를 해야지만 되는데 홈페이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부터 얘기하는 합동조사단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첫 번째 지적하는 거고요.

거기에 왜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지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방통위가 했지만 개보위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김현 위원** 아니, 왜 안 들어왔습니까?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실무 단위가 들어가든 책임 단위가 들어가든, 27일 날 총리가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동진상조사단에 들어가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래서 어제 관계 부처 회의가 있었고 저희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봤습니다, 27일 외국에 나가기 전에 위원장에게.

이게 사건이 터진 게 18일이고 SK텔레콤으로부터 유영상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게 25일이고 28일, 29일 날 마비가 돼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고됐습니까, 위원장에게? ‘담당 국장이 정확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가 질문의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 관련……

○**김현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다 보고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래서 이 사건 발생한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김현 위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FCC 위원장을 만나러 갔느냐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국장님.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래서 저희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살펴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27일 날?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예.

○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그러면 외국에 나간 겁니까? 동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피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내용을 알고 나가신 겁니까? 직무유기 때 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김현 위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보고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국장의 직무유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제가 맡은 업무에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면서 저희 업무를……

○김현 위원 그러면 된다? 안일하셨군요. 매우 안일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도현 차관님, 2023년도 LG 상황이 이것보다는 약하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점, 원인, 정보, 규모, 공식 대응, 정부 조사 상황, 2차 피해 우려, 사회적 반응까지 해 가지고 쪽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고 규모가 넓고 대응도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지금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1단계, 2단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고 SK텔레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태원 회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전부 민·관·정 다 잘못된 대응을 했다는 점 지적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유영상 대표에게, 저 뒤에 기술 쪽 부사장 계시지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암호화해서 저장하는지 지금 알려 드리세요.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거라 모르실 것 같으니 알려 드리세요. 강도현 차관은 아실 것 같고.

우선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법복제 방지 서비스 FDS, 내부에서 하는 것, 유심보호서비스 이걸로도 안 되는 게 해외로밍, 그러니까 여행 혹은 출장으로 해외로밍 한 사람들이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분들은 유심을 빨리 교체하겠다고

그랬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유영상 공항에 일단 저희 가진 재고,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매일 저희 고객 중에 로밍으로 해외 가시는 고객 수를 알고 있습니다, 대략.

○위원장 최민희 그거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지금 3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거 설명할 것 없고요.

그래서 공항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인 유영상 공항에 최대한의 부스도 넓혀 났고요.

○위원장 최민희 인력을 투입해서……

○증인 유영상 인력도 또 추가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재고도 최대한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대한 유심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거라도 제대로 하시면……

○증인 유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하여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지금까지 1200만 명 했나요?

○증인 유영상 어제까지 1000만이었는데 오늘 아마 130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조금 아까 1200만 넘는 걸로 아는데?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1300만 남은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유심보호서비스를 일단 가입시킬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전원 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대개 보니까 150만~200만 하더라고요, 등록을.

그러면 1300만이 남았으면 앞으로 5월 10일까지는 전부 다 등록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62만이라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할 수 없는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유영상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최민희 아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유영상 그러니까 임의로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자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다 해라.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꼬일 수 있어서 한꺼번에 못 한다는 거지요, 지금?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일단 자발적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부터 빨리하고, 그런데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 나머지 순차적으로 그냥 강제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실 거지요?

○증인 유영상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어제든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이것 띄워 보세요, 침해 사고 신고.

(영상자료를 보며)

유영상 대표는 최초로 이와 관련하여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증인 유영상 일요일 아침 8시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요일 아침 8시면 그게 20일인가? 며칠이지요, 일요일 아침이면? 18일 날 밤 11시 20분에 인지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면 언제예요? 20일 날.....

○증인 유영상 아침 8시에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민희 아침 8시.

지금 SK텔레콤, 아까 KISA에서 수정하라고 한 내용 아세요, 뭘 수정하라고 했는지? 모르시지요?

○증인 유영상 저는.....

○증인 류정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 최민희 그게 내부보고 시점 중심으로 수정하라고요.

○증인 류정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유영상 대표에게 보고되는 게 거의 이틀이 지나서 되는 이 시스템은 뭘니까? 이것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예요, 이따가.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이상하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부사장 지금 나와 계시지요?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이게 처음에 정보 유출로 판단하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류정환 처음에는 침해 사실을 먼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요. 그런데 침해 사실인 걸 확인했는데 왜 24시간 안에 신고 안 하셨어요? 침해사고는 24시간 안에 하는 거잖아요.

○증인 류정환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안 하셨어요?

○증인 류정환 그래서 저희가 지연된 건 분명히 맞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렇게 여기서……

○증인 류정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그랬냐고? 제가 묻는 건 왜 그러셨어요?

○증인 류정환 그러니까 침해 사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범위라든지 아니면 개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위원장 최민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자?

○증인 류정환 그것은 저희 회사 담당자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것 어느 선까지 결재합니까?

○증인 류정환 그것은 CISO 수준에서 결정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누릅니까?

○증인 류정환 보안책임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 윗선으로는 보고 안 하고 그냥 처리해요?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저것은 그때 당시에 사장님하고 회의하고요, 그다음에 신고하자 해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래서 제가 이것 묻는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이 좀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증인 류정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사장님과 의논하고 나간 거지요, 이것 신고?

○증인 류정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이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류정환 예. 그런데 세부 내용은 사장님 모르시고요. 신고를 하자고 결정을 하셔서 갖고 나간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인지 시점은 최소한 4월 20일 오후 4시 이전이어야 하고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접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유추해 보면 그 어딘가에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할 예정인데……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 이 보고 경로……

유영상 대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보고 받고?

○증인 유영상 저는 왜 침해 신고를 이때까지…… 2시쯤에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해 신고에 대해서 시간을 넘겼다라는 것은 제가 아침 8시에는 몰랐고요. 2시에 전체회의를 할 때 그렇게 했다 해서 2시……

○증인 류정환 3시 10분입니다.

○증인 유영상 제가 바로 신고해라, 이것은 신고해야 된다, 늦었지만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유출에 대해서 보고를 하길래 유출은 72시간보다 더 빨리하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보고를, 신고를 하자.

○위원장 최민희 그것 오후에 부사장께 물을 거고요.

저희는 오늘……

최태원 회장 국내에 계시지요?

○증인 유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내에 계시지요?

○증인 유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SK텔레콤 사장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유영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준비해 온 입장문이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증인 유영상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우리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텔레콤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고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SK텔레콤의 사고 후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4월 18일 금요일에 처음 해킹 침해를 인지했으나 침해 신고에 있어서 법정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루 뒤 4월 19일 토요일에 인지한 유출사고는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유출 대상 고객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티월드 등 당사 온라인 채널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고객분들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4월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를 위한 문자를 발송했으나 발송 시스템의 한계로 신속히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어제 기준 해외로밍 중인 고객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고객 보호 방안을 설명드리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한편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 사용자 저장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시는 고객들도 많으십니다. 다만 이 정보들은 통신망과 연동되는 통신인증정보가 아니라서 설령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운영하는 유심보호서비

스에 가입할 경우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불법적 행위가 방지되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는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침입을 탐지해서 방어하는 FDS, 두 번째가 고객의 단말기와 유심을 하나로 묶어 복제된 유심으로 새로운 단말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불법 유심을 활용한 비정상 인증 시도를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FDS 솔루션을 지난 23년 8월부터 운영해 왔고 솔루션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 과정에서 개발한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휴대폰과 유심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임의 유심 기기변경을 원천 차단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쓰던 폰을 자녀가 물려받아 유심을 꽂아 쓰려 해도 임의 기기변경으로 인식해 통신서비스가 차단됩니다. 물론 언제든지 고객이 필요할 때 해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 중이며 로밍서비스와 동시에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은 5월 내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 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리점 방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직접 가입이 어려우신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 일괄 가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고객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던 것이 바로 유심 교체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예상대로 유심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5월 중 500만 개, 6월 중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후로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유심 개통에는 당사 전산 내 처리가 필수적이라 인당 처리 가능 속도를 감안할 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수량이 20만~25만에 불과해 원하는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약속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모든 고객분들께 전국 약 2600여 개 매장을 통해 유심을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장에 나오시는 수고로움 대신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해 주시고 그동안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다만 아직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당일 출국 고객 유심을 우선 교체해 드리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 로밍센터에 필요 유심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유심 교체 처리 건수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5월 중 소프트웨어 조치를 통해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유심 포맷 솔루션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금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

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 대책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오후에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변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출석 안 하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청문회 열겠습니다. 청문회 열어서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유 대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강도현 차관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 앞으로 2시간쯤 쉼 건데 2시간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계액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면,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SKT 매출액이 17조 9406억입니다. 3%가 5382억입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그렇게 망설이시는데 사실은 위약금 면제해 주겠다고 해도 그 이동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SKT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이용자 측 요구를 점점 크게 하는 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 대표가 떠나지만 남아 있는 SKT 관계자들에게 위임하고 가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또 ‘우리가 결정 못 한다’ 이런 답변 하시면 곤란합니다.

○증인 유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정회 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류정환 부사장께서는 정회 후에도 계속해서 출석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지요?

(「2시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가 3시 5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16시03분)

○위원장 최민희 추가로 오후에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십니다.

고한석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십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인으로 의결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시 30분경 출석할 예정이며 오시게 되면 질의 중간에 증인 선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까 그 신상발언……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 항의 방문 도중에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정당하게 절차를 설명하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갑질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박준태·성일종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소장을 적시하였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 대변인 논평을 내리라고 겁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김현 의원의 고소에 대해 경찰서에서 4월 22일 자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여 저와 박준태 의원, 성일종 의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밝혔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관련 보도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각종 언론과 MBC 노동조합 성명서를 통해서도 김현 의원의 갑질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 관련 보도에서도 피해자의 발언과 갑질 비판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대변인 논평이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동을 평가하는 의견으로 국가와 사회

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방위에서 앞으로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회의원직을 앞세워 갑질하는 행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김현 위원께서는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시 정당하게 절차를 설명하였던 직원에게 고성과 함께 갑질을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7분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여기 2분 줘서……

○김현 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3명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관계에 틀린 얘기도 했고, 이미 그것이 지난번에 박정훈 위원이, 갑질했다는 내용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진 위원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또 썼거든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최수진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최수진 위원 일단 2분 주시고 제가 반박하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아니요. 더 하십시오. 3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하시고 5분 드리고. 왜냐하면 요구하니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여기 2분 했잖아요. 여기도 2분 하면 되지 뭘 또……

○김현 위원 아니, 왜…… 저는 신상발언하겠다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신상발언하겠다고 했는데 2분 드렸어요.

○김현 위원 그리고 저에 대해서 명예를 또 훼손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지요.

○위원장 최민희 공격당한 쪽이기 때문에……

○신성범 위원 아니, 2분……

○위원장 최민희 일단 3분 더 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지요.

○최수진 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신성범 위원 아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신성범 위원님, 안 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김현 위원 아니, 그러고 누가 소송한 걸 가지고, 현안질의와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합니까? 제가 고소·고발을 한두 건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한두 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건건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상휘 위원 얘기 또 하면 신상발언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휘 위원도 고발했어요, 저희 당에서 소통위원장 자격으로.

○이상휘 위원 그것 왜 고발을 해요?

○김현 위원 제가 소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 고발 좀 그만하라고.

○김현 위원 고발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상휘 위원 내가 언제 고발을 했어요?

○김현 위원 저도 고발당했어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저, 두 분이…… 잠시만요.

○김현 위원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상휘 위원 신상발언 2분 했으면 2분, 2분 하고 끝내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하실래요, 그냥? 그만하시고요.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석대변인이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갑질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이 보내 왔다는 것도, 사실 그것 경찰이 기소한 거잖아요. 검찰에 가서 무죄를 받은 거지요, 재판까지 가서. 그런데 경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내 왔다는 얘기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박정훈 위원 마이크 열른 주세요, 마이크.

○위원장 최민희 아니아니, 잠시만요.

○최수진 위원 지금 이 자체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안 나가고 있어요.

○김현 위원 안 나가요, 최수진 위원님.

○위원장 최민희 안 나갔어요. 저기 안 켜져 있어요.

일단 3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시작하십시오.

○김현 위원 고소·고발은, 정치를 하면 각각의 당직을 맡고 있거나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여기 최민희 위원장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소·고발을 한 두 건 당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와서 신상발언하지 않습니다.

최수진 위원이 수석대변인 신분으로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것도 짜깁기한 영상이 특정 언론에 유출이 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명서를 냈고 제가 최형두 간사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무죄까지 받아서 형사보상까지 받았다. 그래서 갑질한 흔적도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과 현장에 있다가 당한 저의 그 핍박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안다면 최수진 위원께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직접 하라고 얘기해서 최수진 위원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얘기한 것은 그 내용을 충실히 알고 한 거냐 아니면 언론 보도를 보고 한 거냐라고 제가 물었던 거고 본인은 내릴 의향이 없으면 그래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저도 소송으로 응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갑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최수진 수석대변인하고 박준태 원내대변인, 네 차례에 걸쳐서 논평을 냈습니다. 성일중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공격하는, 갑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 대해서 저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남부지검에 이 사건이 송치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갑질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통위가 방문증을 주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증을 주지 않아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어떤 행위를 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일이 벌어질 뻔했지만 저는 방문증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만나서 해명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뭐가 갑질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 전날 일정을 맞췄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까지 차량으로 들어갈 거냐 도보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을 논의를 했고 차량으로 들어가면 특혜가 될 것 같아서 도보로 들어가겠다고 당시 대외 담당하는 방통위 직원하고 얘기를 했고 방통위 국장과 방통위 과장 3명이 나와 있다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문증을 끊고 들어갔던 겁니다.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저를 모욕하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됐지요, 3분이면?

어떻게, 제가 중재할까요?

○최수진 위원 더 이상 이거 갖고 제가 시간 낭비를 하거나 할 생각도 없고요.

○위원장 최민희 여기 1분 드리세요.

○최수진 위원 1분 주세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저한테 이슈나 사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을 뿐이고 이 사실관계는 이미 경찰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냥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동의하십니까?

○김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아니, 지금 이 정부에서 경찰이, 해당 위원에게 어떤 내용까지 통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당 변호사가 이 내용을 받아 보지를 못했어요. 최수진 위원이 먼저 받았는 건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뤄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충분히 집권 여당에서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시에 있었던 국장, 지금 여기 대변인으로 와 있는데 반상권 국장입니다. 사라진 국장이고요. 그리고 김성환 과장,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아마 이번에 승진한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현장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저희의 출입을 방해한 게 방통위 직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상황은, 저도 곁에 같이 있었어요.

○김현 위원 현장에 없었어요, 최수진 위원은.

○위원장 최민희 예, 없었고 저는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통위원회가 방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장겸……

○**김현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반상권 국장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김장겸 위원** 김유열 참고인, 최근에 SNS에 장황한 글을 올렸던데요. 보니까 ‘EBS 사장으로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육방송법이지요 10조 3항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3항을 예를 들었던데 맞습니까?

○**증인 김유열**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EBS 사장으로서 복귀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가처분에서도 1심·2심 바뀔 수 있고 또 본안에서도 1심·2심 바뀔 수도 있고 또 판사에 따라서, 판사가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하면 법리와 상관없이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김유열 사장께서 퇴직금 6000만 원 다 수령하고 금 다섯 돈 플러스 노트북 수령하고 그리고 개인 소지품 빼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퇴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부사장이 아닌 혹은 다른 임원이 아닌 퇴직한 임원이 다시 사장으로 복귀한다, 하겠다, 자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이거 과연 상식적으로……

아까 SK 사태에서 보듯이 위약금 문제 말이지요. 자기들의 귀책사유인데 이런 것을 보듯이, 그것도 아까 우리 법하고 다르니까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셨지요. 이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그리고 새로 임명된 신동호 사장이 문제가 있다면 김성동 부사장이 사장직을 대행하는 게 맞지 짐 다 싸고 집에 간 분이…… 국민들이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금 본인은 EBS 사장직으로 복귀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가 아니다, 이사가.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는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번에 가처분 받아들이면서 참고인 주장대로 직무집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장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서도 이번에 법원이 직무수행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에는 임시로나마 임원의 지위도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해석하며 합리적이다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걸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기에에는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번에 가처분……

다음 PPT 볼까요.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문에서조차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임기가 만료된 신청인이—김유열 참고인이—EBS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락을 깔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법으로도.

그러면 참고인이 교육공사법 10조 3항을 들었는데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신청인 김유열 참고인이 신동호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판결한 것 맞지요?

○증인 김유열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신동호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 무효도 아니고 그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 김유열 무효…… 효력정지 처분입니다.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임명처분이 무효가 아니고 효력정지 아닙니까?

○증인 김유열 임명 효력정지, 그게 무효의……

○김장겸 위원 아니아니,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인 김유열 계속……

○김장겸 위원 정리하면 신동호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4월 7일부터 정지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본안 판단에 의해서 무효로 결정되지 않는 한 신동호 사장의 임명처분에 따른 임명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공사법 제10조를 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동호 사장이 임명됐어요, 김유열 참고인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런데 12조에 보면, 12조로 넘겨 주시지요. ‘사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이렇게 명확히 돼 있어요. 그 근거로 한다면 김성동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게 법상 맞는데 지금 참고인이 퇴직금, 금 다 받고 EBS를 떠났으면서도, 방통위가 절차에 따라서 임명한 신입 사장을 향해서 ‘불법 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퇴임해 놓고 뒤늦게 소송을 했던 말이에요. 이거 누구로부터 소송하라고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증인 김유열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쟁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김장겸 위원 아니, 본인이……

○증인 김유열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겸 위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누구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라고……

○증인 김유열 아니, 앞 부분에 대해서……

○김장겸 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증인 김유열 EBS 구성원 전체가 소송하기를 바랐고 이 불법적 상황에서 사장이 임명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장겸 위원 자, 그렇다면 말이지요.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퇴직금 안 빼 가고 금 5돈 안 가져가고 노트북 안 가져가고 소지품 안 가져갑니다. 그게 상식 아니에요?

○증인 김유열 위원님,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겸 위원 아니, 그게 상식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증인 김유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상식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증인 김유열 상식이 아닙니다.

○김장겸 위원 왜요?

○증인 김유열 법적으로도 아닙니다.

○김장겸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궁금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계속하세요.

○김장겸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건 재입사한 거 아니에요? 사장으로 다시 재입사한 건데 아니, 어떤 공직자가 퇴직금 받아 가고 소지품 다 뺐는데 다음에 소송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장이라고 들어오는 이런 뻔뻔한 공직자 봤습니까?

○증인 김태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 행정법원 판결은 수궁하기가 어려워서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제기했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김장겸 위원 마치겠습니까?

.....

○위원장 최민희 김유열 사장 말씀하세요.

○증인 김유열 워낙 다양한 쟁점을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조 3항과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권 박탈 결론은 제가 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행정법원 판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판시한 것도 서울행정법원입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 아니, 그 행정법원이 최종 판결 아니잖아요.

○증인 김유열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가 답변 기회를 드렸습니다, 김유열 사장한테.

○김장겸 위원 아니, 행정법원이 본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최종 대법원 결정처럼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증인 김유열 제가 대법원 결정처럼……

○김장겸 위원 대법원 판례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김유열 위원님, 저 대법원 결정처럼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게 행정법원 판결이……

○증인 김유열 지금 행정법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행정……

○위원장 최민희 아니, 김유열 사장, 위원님하고 그렇게 정서를 담아서 하실 필요 없고요.

○증인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김장겸 위원님 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궁금해서 답변 기회를 드린 겁니다.

○증인 김유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 가처분 인용 결과는 제가 사장 지위를 잃으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의 방법이 사장의 지위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서울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제가 무단으로 EBS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금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왜 방을 철거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느냐 하면 제가 방통위의 임명처분을, 신동호 전 이사가 받은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EBS를 무단 점거하는 상태의 법적인 위법한 상태에 제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 구제를 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으로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률적 구제방식에 의해서 제가 구제가 돼서 다시 출근하게 된 거고. 퇴직금은 제가 EBS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퇴직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퇴직금을 수령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장겸 위원 아니, 질문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더 기네. 이렇게 지금 내버려둬요?

○위원장 최민희 거기까지 하시지요.

○증인 김유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질의 시간은 끝났다고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지금 선전선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선전선동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처분은 행정법원 일심 소송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항소심 그리고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요. 그것은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고요. 본안 소송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유열 사장은 행정법원 일심에서 이기신 거고요. 일심에서 이심까지 사이에 EBS 사장 지위를 임시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김장겸 위원 가처분이지, 일심이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행정법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이 자리에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킨 고급장교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입니다.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증인 조성현 저희 임무는 평시에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고 특정경비지구에 대한 경비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동영 위원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북악산, 인왕산 그리고 청와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임무가 주임무이지요?

○증인 조성현 예.

○정동영 위원 국회에 12월 3일 진공·진입하기 전에 국회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처음이었습니까?

○증인 조성현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과 한 번 와 본 적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조 단장께서는 국방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그리고 내란죄 형사법정에서 일관되게 상관으로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증언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헌재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또 조성현 단장께서는 12월 4일 0시 45분—계엄해제 결의 15분 전입니다—그때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5분 뒤 인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조 단장님을 포함해서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명령을 이행했더라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조성현 대령의 참군인정신을 존경합니다.

모든 쿠데타는 방송장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16 쿠데타도 그랬고 12·12, 5·18 쿠데타 모두 방송장악이 맨 먼저 취한 선결조치였습니다.

여기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2월 6일입니다. 조성현 경비단장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을 들고 경비단 군인들이 MBC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시설을 정찰하고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문에 조성현 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이름이 조 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증인 조성현 예, 분명히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은 임무를 조 단장 스스로 생성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수명, 하달받은 것입니까?

○증인 조성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직의 의무가 있고 또 정직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수도 서울시민을 지키는 데 대테러작전부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우리 국가중요시설, 서울에 한 70여 개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명령을 하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

○증인 조성현 아니, 제가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과거에는 예비사단에서 경찰서, 구청, 소방서와 함께 방송사의 점검을 한 적은 있지만 수방사 경비단이 직접 출동해서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상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조성현 전혀 없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2월 6일에 MBC 그리고 1월 달에 KBS 그리고 도면 요구, 이것은 전적으로 조성현 단장의 독자적 판단이었던 말입니까?

○증인 조성현 언론사로 지금 특정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그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측면에서 제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정찰 보고서는 제출받았습니까?

○증인 조성현 그것은 예하 부대의 대대장급 지휘관들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단장으로서 보고는 못 받은 거예요?

○증인 조성현 별도로 그것 구체적으로……

○정동영 위원 사령관에게 보고한 것도 없고?

○증인 조성현 전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2023년 11월 8일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광종근 특전사령관 모두 같은 날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폭탄주 자리가 있었고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로부터 받은 얘기였습니다. 그 두 달 뒤 대테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MBC, KBS, SBS 등에 대한 도면 요구와 사전 정찰이 있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증인 조성현 전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증인 조성현 다만 그 당시에 수도 서울의 테러 위협이 증대되어 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4월경에 그런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이진우 사령관의 명령이 아니고 조성현 단장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전모가 밝혀졌을 때 12월 3일 계엄당일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헌법 5조에 보면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당일 밤, 12월 4일 새벽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조성현 단장이 그때 판단했던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충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증인 조성현 군인은 고지식할 정도로 순수한 집단입니다. 그 순수한 집단이라는 말은 오로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의 국군의 사명을 준수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되고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무지성의 집단처럼 그걸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에의 배신 행위입니다. 그것 군인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저희 부대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해민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이해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단장님, 혹시 다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문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슬라이드로 띄울 수는 없어서……

○**증인 조성현** 합참 계엄실무편람으로 알고 있고 합참 차원에서 발간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조성현** 제가 별도로 계엄 업무를 수행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실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시다.

○**이해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조성현 단장님 비롯해서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12·3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요. 계엄 전후의 구체적 상황 조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나오는 동안 멈춰 주십시오.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본인이 맡은 직책과 임명된 시각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박성훈** 관련된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부여받은 적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까?

○**증인 박성훈** 예.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잘못됐습니까?

○**증인 박성훈** 어떤 보도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해민 위원** 본인이 임명이 됐다는 보도자료는 잘못됐습니까?

○**증인 박성훈** 보도자료를 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는 9개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계엄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치안처, 법무처, 구호처 등 다른 직책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보도처장부터 지금 나와 계신 분을 임명하게 됩니다.

본인은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나요?

○**증인 박성훈** 저 증인입니다.

○**이해민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국회 통제의 다음 수준이 언론통제였을 수 있겠다라는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단장님께 보여 드린 계엄실무편람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성훈** 아는 바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는 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알려 드릴게요.

지금 유독 보도처장만 먼저 임명된 것은 보도처의 특수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엄실무편람을 보면 보도지침 작성해서 언론사·방송사 보도 통제하고 보도검열단 만들어

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도검열단이 뭘까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도검열단은 하루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어떠한 영역을 다 조사하게 되고 사전에 차단하고 하나면 신문반, 방송반, 통신반, 외신반, 출판반, 공연반, 전시물반, 음반류반, 사이버검색대응반,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정훈실장님은 이것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지요, 나오셔서?

○증인 박성훈 전후 과정 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도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도 임명된 적이 없다라고,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시점 이후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로부터 어떤 지지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증인 박성훈 예.

○이해민 위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무마를 하고 있으신가 본데요.

지금 내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계엄사의 장악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과방위에서 짚고자 합니다.

옆에 조금 전에 나오셨던 조성현 단장님처럼 부당한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보도검열단 꾸려서 운영해라 했다고 한다면—가정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했다면 본인은 항명하셨을까요, 아니면 행하셨을까요?

○증인 박성훈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이걸 질문드릴게요.

이번 12·3 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박성훈 그것은 구성요건상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박성훈 저에게 지금 법률적 판단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해민 위원 본인의 판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인 박성훈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불법이라고 생각, 예.

박성훈 실장님은 이번 계엄에 성공하셨다면, 당시 계엄 시에 임명되었던 역할이 뭐였다면 대한민국 언론통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출판물의 폐간 또는 언론·출판기관의 폐쇄 등은 언론·출판기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특별조치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훈실장님, 그냥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방송사가 전기 없이 방송 송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박성훈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 신문사가 전기 없이 신문 찍어 낼 수 있습니까?

○증인 박성훈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 필사할 수 없겠지요.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상 언론기관을 강제 폐쇄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성훈 모릅니다.

○이해민 위원 단전·단수 지시 있었다는 것을 모르신다고요?

○증인 박성훈 예.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편람에 따르면 명백히 계엄법상 허용되는 특별조치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증인 박성훈 아니,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윤석열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했습니다.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편람의 내용에 따르면 명백히 이 편람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엄법상 허용되는 특별조치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성훈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불법입니까?

○증인 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예, 잘했습니다.

저는 계엄 시 방송사에 대한 계엄사의 조치 사항은 바로 언론통제의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나와서 지금 불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의 언론장악 시도의 전후 내용이 더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박성훈 저한테……

○이해민 위원 남은 시간 쓰시지요.

○증인 박성훈 일단 제가 전 정훈실장한테 11시 반쯤에 비상소집해서 본부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1시쯤에 육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지시는 전 총장님께서 부실장급하고 차·과장급 두세 명이 합참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증원 요원으로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 3시쯤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책이나 그다음에 임무를 부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확인을, 조사든 뭐든 하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십시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조성현 경비단장과 박성훈 정훈감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성현 경비단장과 박성훈 육군 정훈감께서는 이석하시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YTN 청문회까지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2인 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3월 30일에 후보추천 의뢰가 와서 그해 11월 7일 날 최민희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당시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를 이거를 7개월 동안 뭐 하러 끌어 가지고 왜 임명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여기서 빌미를 줬잖아요. 너희들이 임명 안 하니까 우리는 추천 안 해. 그래서 무려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2년 넘는 시간을 2인 체제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비판을 다 윤석열 정부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 임명 안 했는데 뭘, 추천 안 해.

그러면서 2인 체제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방통위를 마비시켰어요. 그래 놓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 하고 또 뭐 얘기하고 비판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 빌미를 준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임명을 했으면 과방위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이 됐겠습니까? 지금 다른 분이 위원장 하고 있겠지. 참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하겠지만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YTN 문제는요 법원이 진짜…… 법원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YTN 건은요…… MBC 건하고 EBS 건은 행정법원에서 가처분해서 인용이 돼서,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방통위 결정이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본안소송 남아 있지만.

○증인 김태규 보전처분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과징금……

○박정훈 위원 그런데 YTN은요 서울행정법원 4부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YTN의 주주 변경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단 일차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EBS 판단하고 YTN 판단하고 이게 다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법원이 장난하는 겁니까, 국민을 데리고?

○증인 김태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위원 판사 출신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증인 김태규 생각은 많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2인 체제가 어떤 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판사들이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 판결을 어떻게 존중을 해요, 국민들이?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을 합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태규 저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YTN은 지금 민영화한 거잖아요. 그 민영화한 것 물리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태규 예.

○박정훈 위원 민영화해서 뭐가 문제 있어요? 그리고 한전KDN, 물론 흑자 회사예요. 그런데 모회사인 한전 적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3000억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 3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의 지분 30%를 310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유진 입장에서 돈 많이 쳐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한전의 적자를 그걸로 메울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YTN 문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영화 안 시키고 영구적으로 민노총 산하에 두겠다 이것 아니에요?

○증인 김태규 기본적으로 주신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박정훈 위원 잘 싸우세요. 그러니까 매번 법원에서 지니까 민주당한테 조롱당하고 그러잖아요.

○증인 김태규 그러게요. 판사들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박정훈 위원 이게 사법부가 아니에요. 사법부,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요 일심하고 이심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아니, 거짓말을 했는데 어디 일심은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고 이심은 아니라 그러고. 그게 말이 돼요? 누가 믿어요, 사법부를.

내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은 사법부가, 최고 법관들이 다 모인, 대법관들이 12명이나 있으니까,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요. 의회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탄핵받아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태규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저도 그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라가 상식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로 나라가 왜곡되고 하는 것 절대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추천서 이것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무려 두 번이나 추천해 달라, 방통위원 추천해 달라, 제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추천 안 해 놓고 계속 2인 체제 문제 있다고 부당성이라 그러고 2인 체제 의결한 것 다 무효화시키고 이게 나라입니까?

○증인 김태규 상임위원이 지금 2인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의결하는 것 중의 상당수는 방송사 지배구조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국민들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재해 지역의, 재난 지역의 TV 수신료 면제해 주는 것, 저희들 2인 체제 1월 23일 복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면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인지, 국민들 위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데 그 많은 처분들을 다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인지……

○박정훈 위원 그냥 방통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는 거기에 본인들, 민주당 이해

가 많이 달렸지요. MBC 지배구조 못 바꾸게 해야 되고 YTN 못 팔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 민노총한테 이것 주려고……

아니, 정권 바뀌어서 사장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욕먹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예 민노총한테 주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법안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증인 김태규 속내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거를 만약에 정권, 만약에 민주당한테 가면 완벽히 이런 것들 다 거의 민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께서 이런 것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정파적인 입장에 매몰되어 상대 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송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의 방송장악이 도가 지나쳐서 방송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방송통신위원 임명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도 안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방송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게 만든 윤석열의 방송장악 또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방송사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사장 추천이나 임명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관훈토론 갔다 오느라고 오전에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증인 선서 해야 된대요.

○이준석 위원 예, 하하지요.

○위원장 최민희 죄송합니다.

방금 출석하신 유상임 장관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하나 유상임 장관은 몇 번에 걸쳐서 같은 것을 반복한 바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요.

선서 방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서를 하신 증인들과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임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증인 유상임

○위원장 최민희 유상임 장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SK텔레콤 27년째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온가족 할인이 다 뭐 해 가지고 저희 가족 전부 다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발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SK에서 왜 고객들이 보안과 그리고 이런 혜택 유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 만드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들은 실제 불안 상황 속에서 번호이동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상황이고 그에 수반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지금 번호이동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장기간 충성 고객일 경우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 왔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온가족 할인 혜택이라든지 장기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증인 류정환 저희가 일단 이번 불법 유심 교체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종합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법정에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SK라는 대기업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의 보안이 우려되어서 번호이동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다 했을 때 나중에 제가 그러면 SK텔레콤에 누리던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 가지고 5년 이내에 귀환한다 했을 때 저의 장기 가입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그것 포함해서요 위약금까지 저희가 종합 검토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보통 정치권에서 종합 검토한다 그러면 이게 안 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구체성을 가진 안이 지금 사태가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장기 고객인 저한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번호이동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이상중 원장님,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컴퓨터과학을 전공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침입자에 의해 가지고 인바운드로 보통 들어와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숨어 있던 코드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안에 코드가 숨어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이런 대기업에서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악성코드라는 것이 실제 제한적인 기

능을 수행할 텐데 어떻게 DB에 있던 것이 평문으로 유출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운영해도 아니면 정당에서 당원 가입 사이트를 운영해도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필드별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기업에서 필드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거의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주요 통신 정보가 노출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이상중** 지금 SKT뿐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가지고 제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유심 관련된 거는 암호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인터넷진흥원에서 사회의 이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기업에서 이리이러한 정보는 암호화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연구를 혹시 진행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상중**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암호화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주민번호 그다음에 여권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다루든지 암호화하게 되어 있고 아마 SK도 그것은 따랐을 것입니다. 정작 가입자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인 유심과 그에 관련된 여러 키들은 암호화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게 SK가 지금 사업을 영위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전에 CDMA 쓰던 시절에도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ESN이라든지 여러 번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게 암호화가 안 된 상태로 평문에서 관리되던 것이 지금 노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류정환 부사장님, 이게 실제 SK텔레콤의 현재 개인정보 관리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류정환** 금방 KISA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가 있고 네트워크가 아닌 쪽이 있는데 이쪽은 마케팅 쪽입니다. 그쪽은 암호화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고 네트워크 쪽은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위원** SK에도 개발자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을 텐데 이걸 기본적인 코드 설계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간단한 사이트도 인증용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지, 이런 식으로 핸드폰 열고 켜 때마다 DB가 가지고 실제 이 유심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보는 서비스는 구축되어 있는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30년 가까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보안을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전 세계의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거든요.

○**증인 류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표준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는 장비였고요.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암호화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장비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랬고 지금 암호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직시했는데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암호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진흥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것들이 유심에 대한 식별번호 수준이고 내가 거기에 로그인했을 때 이용자가 맞는지 정도를 사실 검증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시화돼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첫째로 이런 허접한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코드 때문에 아웃바운드로 털렸다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서 털었는데 그냥 다 평문으로 줄줄 2700만 명 가입자 정보를 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인데 지금 저는 SK그룹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이게 노정된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혹시 전 그룹별로 이런 걸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반성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간 정보 중에서는 암호값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인증을 할 때는 실제 암호화를 하는데 데이터로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는 암호화가 돼 있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돼 있지 않은 게 말이 안 되는 게 필드별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키가 탈취당하지 않기 위한 HSM 같은 것을 다 구축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뚫려 버리면 사실 계엄보다 무서운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엔지니어링의 기본인데 이게 구축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SK그룹이 앞으로 사업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보여 줘야지만 많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 류정환**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태원 회장 연락했습니까? 했어요? 출석요구서를 받으려 누가 옵니까?

저 지금 경고합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오전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지켜보셨지요?

○**증인 류정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약금 면제와 관련하여 저희가 SK텔레콤 규약까지 보여 주면서 법적 판단이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유영상 대표가 했던 것 똑같이, 마치 아무 질문도 안 받았던 것처럼, 이준석 위원님한테 처음 질문받는 것처럼 종합적 검토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위원 지금 오셨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이 귀책사유가 SKT에 있을 때 SKT 내규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되는 거다…… 아무 질문을 못 받은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장난처럼 들립니까?

○**증인 류정환** 죄송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위원장 최민희** 그놈의 종합적 검토 귀에 못이 박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가스라

이팅하러 나오셨어요?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 단 한 명도, 귀책사유가 SKT에 있다는 것, 위약금 면제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려면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최태원 회장 빨리하시고요. 국민들이 납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시 한번 위원님들 똑같은 질의하는 데 종합적 검토 후에 뭐 하겠다라는 말씀 하시면 여기 더 센 대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갈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그러나 ‘그래도 가시겠다면 위약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YTN 김백 사장님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사장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백 예.

○이정현 위원 저는 김백 사장님과 김태규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규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방송사 최대주주의 변경 심사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증인 김태규 글썽요, 지금 YTN 같으면 83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통 최대주주 변경 심사는 두 달에서 길게는 다섯 달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YTN은 83일이 아니고요, 한 13일 만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증인 김태규 전체 기간은 아마……

○이정현 위원 단 하루 만에 심사계획 의결 등 역대 최단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김백 사장님, 맞지요?

○증인 김백 예.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방통통신위원회가 YTN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졸속 심사를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단순히 YTN 지분 민영화,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YTN을 강제로 빼앗고 졸속 심사로 유진그룹에 팔아넘긴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YTN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YTN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백 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증인 김백 작년……

○이정현 위원 4월 1일에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백 예.

○이정현 위원 3월 29일에 유진그룹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전격 임명했었고요.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임명될 때 사장 공모 절차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백 사장 공모 절차는 없었고요.

○이정현 위원 없었지요?

○증인 김백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과거에 상무도 하셨으니까 보도국장도 하셨고, 노사 합의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운영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백 과거에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정현 위원 YTN에서 있었습니다. 노사와 시청자위원 등이 사장의 자격 등을 검증하는 이런 노사 합의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사장님이 임명되고 취임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지요?

○증인 김백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송 공정성을 위한 기존 제도를 지키겠다,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약속을 했는데 이런 다짐이 결국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님, 방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때 경영계획도 함께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태규 사업계획서하고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와 함께 경영계획 등을 했고 또 최대출자자 변경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외부 심사위원회도 있어서 외부 심사위원회에도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의견을 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태규 예,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YTN 사장 공모제를 폐기하려고 유진그룹이 그렇게 추진했고 결국에는 사장 공모 절차 없이 김백 사장님을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이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8명 가운데 6명이 사장추천위원회 폐기에 반대했습니다. 저희 PPT 파일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주주에 의한 이사회로부터 선임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언론사의 사업 이익 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는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YTN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반영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쫓 빼고 의결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계세요?

○증인 김태규 예전에도 계속 얘기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정현 위원 그렇게 폐기하고 결국에는 김백 사장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백 사장님께서 어떤 분이였을까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김백 사장님, 2016년에 YTN을 퇴사하셨고 2022년에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언론단체의 초대 이사를 지내셨지요?

○증인 김백 예.

○이정현 위원 언론 감시에 나섰다고 주장을 하십니까만 보수 성향 극우의 단체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백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백 사장님께서 공언런 전 대표도 지내시고 하셨는데 유튜브 발언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언론 비판을 스톡 수준이라고 폄하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백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했어요, 스톡 수준?

○증인 김백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했을 겁니다.

○이정현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디오 좀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 상영)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증인 김백 예,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이정현 위원 스톡 수준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김백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걸 말씀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요, 그건 필요 없고요. 스톡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후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시지요.

○증인 김백 저희 공언런에서는.....

○이정현 위원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백 모니터 활동을 하고 그 모니터 활동을 근거로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PPT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어제 YTN의 보도입니다. 어제 YTN의 보도 보면 ‘검찰이 명태균 재조사, 김건희 여사도 신속조사 방침’,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뒤늦게 신속조사를 한다라고 YTN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당시 스톡 수준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김백 스톡 수준의 그 발언은 그 당시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그 수수 건을 공영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증인 김백 함정 수사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이정현 위원 스톡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잠깐만요, 됐습니다. 스톡 수준이라고 하시고 또 민주당 하부 방송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었고요. 극우 성향 보수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극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YTN에 임명됐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다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YTN의 지분매각 절차가 YTN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백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증인 김백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은 자연인의 신분으로 언론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언권이라는 단체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극우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영언론의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공영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하느냐, 그런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비평 활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김건희 스토키입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비판을 이 자리에서 하려면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스토키입니까?

○증인 김백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정현 위원 1분만 더 주시지요, 답변하셨으니까.

○위원장 최민희 안 됩니다. 그건 이따 하십시오. 주면 무너져 버려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하세요, 육성으로.

○이정현 위원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 언론들 전부 다 민주당 하부 방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스토키 수준이라고 발언하신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자연인으로서 발언한 것이었으니까 YTN 사장이 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백 자연인으로서 할 때와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자연인과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의 생각과 발언이 달라지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발언들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시지요.

김건희 씨 옹호하시게요?

○증인 김백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십시오.

김건희 씨 앞에서 모든 사법적 절차가 멈추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김건희 씨 옹호한 분들이 지금 주요 자리를 차지하니까 방

송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오늘의 방송 분야 청문회의 진의가 예상이 돼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대 대선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 캠페인들이 각 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언론 분야의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외에도 YTN의 주요 대주주인 유진그룹의, 그러니까 민간기업 관계자들까지 대거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YTN과 KBS에서 보도편성의 책임이 있는 주요 실무자까지 소환한 것은 대선 정국에서 국회가 공권력으로 보도편성에 개입하고 자칫 보도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환된 실무자들은 지금의 대선 상황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검증과 정치 현안에 대한 해설을 담당하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오늘의 청문회에 소환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그들은 정말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태규 민감한 시기라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박충권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방송법 제4조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백 사장님, YTN의 주요 보도 내용 중에 정말 국회가 공권력을 내세워서 간섭을 할 만큼 중대한 실수나 허위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리고 오늘 YTN의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포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님 나오셨나요?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올 만큼 잘못된 게 있습니까?

○증인 김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발언 안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증인 김진구 여기에 나오는데 좋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민주당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보복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증인 김진구 그것도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보복이 두려워서 대주주 차원에서 이제라도 현장 보도편성에 간섭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십니까?

○증인 김진구 저희는 보도라든지 이쪽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관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충권 위원 압력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하지 마시

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YTN과 KBS는 MBC와 더불어서 2017년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따라서 심각하게 좌편향됐다가 간신히 이제 공정 언론으로서 정상화 길을 걷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MBC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거나 좌성향 언론인이 아닌 경우에는 탈탈 털고 압박을 가하고 한직에 내쫓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한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KBS의 고대영 사장이 쫓겨났고 KBS의 강규형 이사가 쫓겨났고 MBC의 김장겸 전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마저도 KBS는 아직까지도 강성 언론노조 때문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아직도 좌편향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비판받고 MBC와 비교해도 정말 한 곳 차이예요, 한 곳 차이. 이런 방송사들에 외압을 가해서 다시 좌편향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자꾸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김태규 부위원장님, 방송장악할 만큼 능력이 되십니까, 방통위가?

○**증인 김태규** 제가 과거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도대체 뭐가 장악인지 잘 이해가,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임기가 만료된 이사진들하고 사장 하나 교체하지 못하는 방통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방송장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증인 김태규** 그래서 그때도 그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박충권 위원** 옆에도 바로 지금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EBS 사장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진이나 사장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적 있습니까?

○**증인 김태규** 없습니다.

○**박충권 위원** 언론인분들은 외압에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 제작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백** 예.

○**박충권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론들의 공정방송, 균형 있는 방송 그리고 국회와 정치권의 간섭을 이겨 내고 공정한 언론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증인 김태규** 김백 사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방송장악 하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고 그럴 능력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얘기 중에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일단 아까 실무자들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실무자 누가 나왔습니까? 정책실장 불출석, 인사팀장 불출석……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다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지침이라고요? YTN 전 보도국장도 불출석입니다. 전 경영지원실장도 불

출석입니다. 여기 실무자 누가 있습니까?

박충권 위원님, 저기 나와 있는 분 중에……

○박충권 위원 증인, 참고인 신청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실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충권 위원 부당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없습니다. 실무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시다.

○박충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불출석사유서 보십시오. 언론에 대한 간섭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 정리하냐 하면 MBC 사장, MBC 보도국장, 허구한 날 불려서 신청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본인들은 그러면서 YTN은 부르면 안 됩니까? KBS와 MBC만 불러야 됩니까?

○박충권 위원 대응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대응해서.

○위원장 최민희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MBC도 신청했습니다, 보도국장을. 그리고 YTN 보도국장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채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박충권 위원 민주당에서 신청하니까 우리도 대응해서 MBC의 보도국장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대응이고 뭐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김현 위원 민주당 대응하느라고 국회에 있나요? 본인 정치 하세요, 본인 정치.

○이상휘 위원 방송사 구조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노종면 위원 왜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지금 청문회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이상휘 위원 방송 구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MBC 보도국장 왜 신청해요? KBS 보도국장 왜 신청하냐고요.

○김현 위원 그렇지. 방송장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계엄이 계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박충권 위원 누가 계엄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김현 위원 내란이 아니라면서요.

○박충권 위원 내란은 아직 아니지요.

○김현 위원 방송장악이 아닌데 우리는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각자 얘기하세요, 각자 얘기.

○박충권 위원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매번 그냥 여당 위원들이 얘기하면……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또 바로잡습니다. 뭘 바로잡냐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가 남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카드 등 말도 안 되는 회계상의 이유로 방통위 시켜서 감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장악의 시작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로 내쫓고……

○신성범 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김현 위원 방송장악을 안 했다고 하니까 팩트체크하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이 청문회가 방송장악용이라고 의심하니까……

○**위원장 최민희** 저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은……

○**박충권 위원** 아니, 뭐 잘못 없는 사람을 내보냈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 장악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노종면 위원** 저분들이 잘못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따져 보자고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 장악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상휘 위원** 누가 죽이려고 했는데?

○**신성범 위원** 격양돼서 왜 이러시냐고.

○**김현 위원** 죽이려고 했다고요, 윤석열이. 단수·단전하려고 그랬고요.

○**위원장 최민희** 방송장악에 대하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검찰 등 권부를 다 동원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탈탈 털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구속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무능한 거지요.

김태규 부위원장 무능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무능이 자랑입니까?

○**증인 김태규** 제가 자랑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쫓고 정연주 위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카드 사용을 거의 배임 수준으로 한 사람은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둔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방송장악 얘기하지 마세요.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2023년 3월 30일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하고 질질 끌고, 그게 방송장악이 아니면 뭘니까? 그리고 방통위원회에 하수인들을 내려보내서 방통위 조직이 망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충권 위원의 방송장악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임을 제가 판명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울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상임 장관님, 오전에 SKT 관련해서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SK 유영상 사장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지요?’ 그리고 정리했어요.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과기부에서 빨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최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SKT 이용약관을 보면 귀책사유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용약관 승인은 과기부에서 해 줬어요.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예.

○**이훈기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기부는 법적으로 판단을 빨리해 줘야 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해야지, 지금 수많은 가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증인 유상임** 저희 과기정통부가 오늘 오전에 법무법인 세 곳에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훈기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이용약관 승인을 과기부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용약관에는 귀책사유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안 해 준다면 국민들이 용납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SK 유영상 사장은 분명히 법적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빨리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역할을 해 주세요.

○증인 유상임 최대한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SK 부사장님 맞지요?

○증인 류정환 예.

○이훈기 위원 아까 사장님 가셨잖아요. 부사장님도 똑같은데 SKT 임원들은 SK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와서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성의도 없고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 그랬지요? 저희 국민들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대통령도 바꾸는 국민들이에요. 지금 SK 와서 하시는 말씀을 국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제가 정말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SKT 이러다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시다가. 그래서 최태원 회장 나오라 그런 것 아니에요. 안 나오시나요, 오늘?

○증인 류정환 그것은 지금 제가 계속 이쪽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답변하시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전혀 없으세요.

○증인 류정환 오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가셨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판단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어요, 법률적으로 과기부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위약금 폐지하겠다고. 탄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속기록에 다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위증하신 거예요.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YTN 관련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YTN 질의를 했는데 제가 YTN 민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다섯 가지 불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YTN 민영화가 불법인 첫 번째 이유는 강요와 압박에 따른 불법적인 YTN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의 의혹, 세 번째 방통위의 졸속 날치기 심사, 네 번째 방통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 각하, 다섯 번째 방통위의 2인 의결 그 자체의 불법, 이 다섯 가지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YTN 매각은 원천무효화하고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법적 다툼도 있지만 저는 이걸 분명히 정리가 잘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따져 볼게요.

처음에 강요와 압박에 따른 불법적인 YTN 지분 매각. 원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한전KDN이 21.43% 그리고 마사회가 9.52%. 그 당시에 YTN은 재무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519억이나 됐어요. 그리고 재무 전망

도 긍정적이었고, 그런데 이런 회사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라고 압박을 해서 팔아 버렸어요. 이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강압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의혹. 원래 한전KDN은 삼성증권을 1위로 선정하고 한국마사회는 NH투자증권을 1위로 선정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들이 자진 반납하고 철회를 했어요, 어떤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은 방통위의 졸속 날치기 심사인데 YTN 주식을 인수한 유진이엔티가 2023년 11월 15일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날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방통위에서 의결했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방통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 각하. 그 당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그냥 스스로 기피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통위의 2인 의결 그 자체 불법. 2인 체제의 의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법원에서 계속 지고 있잖아요. YTN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누가 봐도 YTN에 다섯 가지 딱 떨어지는 불법이 있었는데 매각이 됐어요. 저는 이것은 원천무효화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백 사장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YTN 민영화 이후에 상품권 사업 한 것 지적을 했어요.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그것 어떻게 됐나요?

○증인 김백 저희도 그 피해자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저희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얼마 손실을 봤어요?

○증인 김백 123억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훈기 위원 사업은 접은 거지요? 이게 민영화의 폐해예요.

○증인 김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민영화 이전에 결정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사장님 때 시행을 했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4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이 5월 29일, 30일이니까 한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선거인데 저는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짜뉴스하고의 싸움이 되게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선거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불법선거 콘텐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상당히 큼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6건 정도 벌써 신고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과방위의 가장

핵심적 현안인 생성형 AI 기술 발전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직선거법은 이미 개정을 통해서 법상으로는 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도 12월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딥페이크 영상이 법 조문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수십 건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신고가 되고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PPT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 대선 때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방통위에 해당되지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찾아 보니까 우리 중앙선관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웹서비스 기반의 기업들과 함께 벌써 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나와 계시지요?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구글코리아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증인 김경훈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민수 위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증인 김경훈 지금 선관위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예?

○증인 김경훈 선관위와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 선관위에서 지금 각종 포털기업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구글은 안 한 것 같아요.

○증인 김경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안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포털 및 SNS 업체들이 삭제요청권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논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글의 입장은 뭐니까?

○증인 김경훈 저희는 작년 총선 때도 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한민수 위원 아니, 심각하게 해서 삭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 때 이행을 하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뭘 해요?

○증인 김경훈 딥페이크 영상을 법적으로……

○한민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지난번 부정선거 음모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더 활개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나오셨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오셨을 때…… 국가기관입니다. 정당을 넘어서서 선관위가 18개의 부정선거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몇 건 삭제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증인 김경훈 제가 다시 검토해서 삭제가 필요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에요. 1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했습니까?

○증인 김경훈 그때 삭제 요청이 아니었고요, 위원님. 검토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차단을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어
요?

○증인 김경훈 검토 요청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18건.

○증인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번에는 구글이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례도 있고, 물론 구글코리아입니다마
는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증인 김경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민수 위원 저희도 계속 감시도 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증인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구글 대표에게도 지금 요청도 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 또 오늘 나오지
도 않았습시다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방심위가 이 역할을 해야 되
는데 류희림 씨라는, 역대 최악의 기관장을 맡아 가지고 전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딤편이크 등 불법 선거 콘텐츠 핵심은 신속한 차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근거가
다 있음에도,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소위들이 제대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통신심의소위 세 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인
데 그마저도 류희림 씨는 이제 도망을 가 버렸어요. 둘 남아 가지고 아무 역할도 안 합
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세상에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얘기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압도적 정권 교체가 목전에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 아닙니
까? 윤석열 정권이지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저기 앉아 있지 않습니
까,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신 분들.

어떻게 해 왔습니까, 방통위, 방심위? 제목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류희림 씨 없지만.
청부민원 사건 이거는 엄청난 짓값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 정부기관장
이…… 아니, 정부기관은 아닙니다만 방심위의 기관장이 가족들 동원해서 청부민원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 압박하고 공익제보자 색출하러 다니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영상 차단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밝혀졌으면 어떻
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방심위 직원들이 용감하게 맞서 가지고 안 댔지요.

정권 비판 보도 찍어 내려고 했고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에 5배 가까이 급증
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MBC 보복성 과징금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시간이 끝나 버렸어요.

인사 보복했지요. 셀프 월급 인상했지요. 국회에는 불출석하는 게 습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도하지만 그 밑에…… 구글 대표도 있던데 국가 망신을 한 구글 출장,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방심위 노조에서 설문조사 하니까 96.8%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강도현 차관님, 지난번에 자료 내셨는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이 안 돼서 실제로 복제를 하더라도 다른 단말기에 쓸 수 없다, 심 스와핑 불가능하다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단말기 식별번호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해킹 당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에 의하면?

○증인 **강도현** 유심보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단말기에 복사된 유심을 넣었을 때 탐지되는 부분이어서 유심보호서비스 밖에 있는 그런 문제는 SKT의 FDS라는 것으로 막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해킹 염려는 당분간 막았다?

○증인 **강도현** 유심보호서비스가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FDS에 대해서는 탐지 수준을 굉장히 높였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아주……

○최수진 **위원** 왜냐하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률이 지금 현재 25%밖에 안 돼요. 이게 100%가 아니면…… 괜찮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강도현** 그 점에서 계속 독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장관님 오셨으니까, 지금 민관합동조사에서 진행된 상황들을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보면 NIST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이것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나오는 지침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유상임** 정부가 인지한 이후로 계속해서 SKT와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이 문제를 조기에,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방 얘기한 유심보호서비스 그다음에 유심 교체 이런 것 외에도……

○최수진 **위원**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유심 정보가 과연 개인정보의 영역인가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애매한 현행의 법령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검토하셔서 정밀하게 하시고 또 과징금 제도나 기업 측에 대한 정보 보호, 기업들이 하는, KISA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까 오전

에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신 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유상임 예, 더욱 정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 YTN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YTN 설립 취지나 기업 운영 형태로 감안할 때 공영방송이예요, 민영방송이예요?

○증인 김백 지금은 민영방송입니다.

○최수진 위원 YTN 설립 당시에요, 실제로 개국 당시에요 민영방송으로 출범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였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그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KBS나 분명히 MBC처럼 정부의 직간접 예산 지원이나 법적 특례를 받는 그런 공영기업하고 다릅니다. 보십시오. 법적 제도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주장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태생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역할까지. 지금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삼성전자나 SK 이런 데를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YTN 민영화 관련해서 정치권 논쟁이 본질적으로 이런 공영방송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분매각을 민영화다 다시 규정짓고 방통위, 유진그룹, YTN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집중해 왔던 원인들이 다 이런 거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YTN 자체가 법률상, 제도상뿐만 아니라 공동매각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24년 6월경에 이 돈을 실제로…… 아니, 주당 2만 46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샀더라고요, 유진이. 그런데 그 당시의 시가가 한 6000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없어서 한 4배 정도를 더 주고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당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주식?

○증인 김백 한 3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지금 8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진그룹 팔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실제로 지금 애네들이 봤을 때 이익을 그 당시 한전KDN이나 이런 데서 이걸 팔면서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 아십니까? 부실경영해서 그런 것들의 지분구조를 다 바꿔 버렸고 그들 또한 그걸로 인한 많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순이익 한번 보세요. 한전KDN 같은 경우에 1620억 원 매각수익 받았고 한국마사회 74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YTN은 여기 와 가지고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이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큰소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한다면 저는 진짜 화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회사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런 격 아닙니까? 저는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팩트 베이스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시절에 YTN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폐지되고 했을 때 왜 YTN에서는 폐지를 주장했는지,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됐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증인 김백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사내이사로 선임이 돼서 그 뒤에 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YTN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노사 합의로 있는 제도였습니다마는 제가 사장이 된 뒤에 사장의 가장 중요한 인사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도국장 임명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임명동의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회사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백 사장님, 사장추천위원회 폐지될 때 그 관련 회의에 참석했어요?

○증인 김백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표결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김백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왜 남의 얘기 하듯이 하십니까?

○증인 김백 표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관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노종면 위원 찬성까지 하셨잖아요, 반대하신 것도 아니고 기권하신 것도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본인이 참석해서 찬성해서 폐지하는 데 일조를 해서 놓고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러면 정말 신뢰가 쌓 됩니다.

그리고 YTN은 지금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됩니까?

김백 사장, 답해 보세요.

YTN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됩니까?

○증인 김백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위원장 최민희 YTN이 마음대로 그냥 하십니까, 정부에 허가받아야 됩니까?

○증인 김백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허가제에 들어 있는 거예요.

민영홈쇼핑 채널은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이게 허가제냐 등록제냐에 따라 요구되는 공적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YTN이 과거에 민간 보도채널이라는데 제가 확인해서 팩트체크……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우리 청문회를 반대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진행되는 마당에 청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당이 함께 한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준비해 오시고. 그런데 이 목적 자체를 흐리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매각의 문제를 따질 때 돈 많이 쳐줬으면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은 우리 국민께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 정도로, 승인제·허가

제로 운영되는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시장가의 10배 쳐주면 모든 것이 다 양해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에 닿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 내용 맞는 말씀인데 최수진 위원께서는 방송 쪽 전문가가 아니므로 감안해서 시청자들께서도 듣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SKT 류정환 부사장, 최수진 위원이 말하는 과정에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률이 지금 25%라고 했잖아요. 그것 교정하고 싶으셨지요?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몇 %입니까?

○증인 류정환 지금 현재 한 1100만 정도 넘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162만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SKT 가입자가 2400만 정도니까 48%입니다.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정합니다.

○최수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필요?

○최수진 위원 아니, ‘방송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틀리니까요. 내용이 틀리니까요.

○최수진 위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어떻게 시각입니까? 보도전문채널은 허가제예요. 신고제가 아니에요.

○최수진 위원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종면 위원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몇 배를 주면 사도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간채널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 위원 민간보도 방송사가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민간보도 방송사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해한다고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 전문가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과학 쪽 전문가 아닙니다.

○최수진 위원 전문가를 떠나서 저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유상임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3중 안전장치를 쓰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면 100% 문제 없이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세상에 100%란 없습니다. SKT가 지금 의지의 표명으로 100%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KT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뚫렸는지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과기부의 수장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서야 되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것을 제가 쉽게 내뱉은 것은 아닌데요.

○**황정아 위원** 10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예, 저도 지금 거기의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체 안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유심 데이터가……

○**증인 유상임** 제 나름대로 100%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 나름대로? 예, 알겠습니다.

유심 데이터 3년 전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해킹 툴에 털린 것 알고 계십니까? 깃허브에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던 해킹 툴에 뚫렸습니다. 3년 전부터 오픈되어 있던 소스였고요.

어느 보안 전문가가 뚫릴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통신사들한테 물어봤으면 100% 털릴 확률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장관님은 지금 증인 신분입니다. 만약에 실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했는데도 뚫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일단은 그것은 SKT가 100% 보상한다라고 했었고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황정아 위원** 만약에 실제 피해 발생하면 방금 하신 말씀은 위증이 됩니다.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사태의 무거움과 국민의 분노를,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ISA부터 과기부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유상임** 이것을 들었는데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100%다라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확신을 줬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신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제가 위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 장관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통신사 이용약관 허가 관련 주무 부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유상임** 예.

○**황정아 위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SKT 대표가 본인들의 귀책사유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약관에 분명히 본인들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KT도 개인정보 유출로 위약금 해지 소송에 걸린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은 KT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 주된 이유는 귀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KT의 귀책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SKT 사장도 통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인정보 유출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말씀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렇다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약관에 따라서 위약금 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유상임 저희도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재 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고요. 아직 답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무법인들은 SKT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조치 노력이 어떤지 이용자의 침해 여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법률 검토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고의적 과실이 없어도 반드시 책임을 지시겠다고 아까 오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위약금 포함해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증인 류정환 그 모든……

○황정아 위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맞지요?

○증인 류정환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통신사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정신 차리십시오. 정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시간 끌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지 위약금 면제 약관 지키겠다는 약속 지키시고요.

그리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5·18 북한군 개입 음모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5·18 북한군 개입설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미 사실무근이고 역사 왜곡, 가짜뉴스로 이미 판단 난 문제 아닙니까?

답 주시지요.

○증인 김경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미 다 사실무근으로 결론 난 문제들이 이렇게 정말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데 역사 왜곡, 가짜뉴스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고 돈벌이로 이용하는 빅테크들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제가 가짜뉴스 영상에 광고 송출되는 것 관련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증인 김경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김경훈** 수익 창출 조건에 의해서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관련해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그때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김경훈** 검토 요청을 해서 또 조치가 된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조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황정아 위원** 그런데 지금도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에 관련 팩트체크 정보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위증 아닙니까?

○**증인 김경훈** 단계적으로 지금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가지 광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 봤을 때는 정보 패널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정아 위원** 5·18 관련 영상의 팩트체크 제공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해서 조치 사항을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훈**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문답을 통해서 적어도 SKT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걱정했던 유심을 복제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금융권에서는 보니까 SK텔레콤의 휴대폰 인증을 제한하거나 또 인증절차를 강화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NH농협생명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고 KB도 그렇고 한화생명 또 금융 당국,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안면 인식으로 바꾸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롯데나 신세계 같은 쇼핑·유통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는 통신에서 났는데 피해는, 국민들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국민들이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피해인데 이렇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분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장관님께서 과기정통부가 SK와 협의,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증인 유상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고요.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유상임** 계속 협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옆에 강 차관이 설명해 보세요, 실무를 더 잘 아실 테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증인 강도현** 기본적으로 SK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성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후에 저희들도 거기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금?

○**증인 강도현** 국민에게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진실에 대한 문제, 부족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 대책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 같은 데 성실하게 나와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 국민들 앞에서 CEO가 성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옆자리에, 지금 유영상 SKT 대표는 가셨고 부사장님 앉아 계시지요?

○**증인 류정환** 예,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는……

○**증인 류정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증인 류정환** 예.

○**신성범 위원** 그리고 오전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당 사고가 국가사이버안보 영역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수키’ 사이버해킹그룹이 있고 자산 탈취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유심 해킹은 직접적인 재산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고유한 개인정보에 침투했고 또 얼마든지 향후에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는데……

강도현 차관님, 지금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의 근거는 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인가요?

○**증인 강도현**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신성범 위원**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구성됐고 거기에 제가 오전에 여쭙았던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기본적으로는 민간 영역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의 영역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강도현**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악성코드에 대한 유형 그리고 그 분석의, 침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백신업체 그다음에 플랫폼업체, 통신업체.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기관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게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이기도 합니다. 자료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왜 여기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편견과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우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사이버안보라면…… 컨트롤타워는 현재 대통령실 산하의 국가안보실로 알고 있고 주무 부처는 어찌됐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점검을 사실 제한하더라도 민간에서 역셉트(accept)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적어도 국가사이버안보의 영역 사건이라고 확인된

다면 저는 이런 절차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저의 견해에 다른 반론은 없으시지요, 절차 문제?

○**증인 강도현** 적어도 방법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가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에 있다면……

○**신성범 위원** 이게 확인되면……

○**증인 강도현** 국가정보통신방법이 아닌 다른 국정원의 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조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SKT지만 예를 들어서 KT·LG라고 해서 안 빠져나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상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알뜰폰사업자나 특히 기간통신3사 자회사 이외의 사업자들, 개별 정보 보안이 현실적으로 취약한 분야 같은데 꼭 SKT 가입자가 아니라도 KT·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분들에 대해서도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해 두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증인 유상임** 지금 모든 이통사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차관님 덧붙이실 게 있는 눈치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SKT만 문제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보안벽이 더욱더 강하거나 할 이유도 없잖아요.

○**증인 강도현** 일단 장관님 말씀한 대로 현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유형에 대해서는 3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일단 KT도 실시를 하고 있고 레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LG는 일단 자사에 되어 있고 알뜰폰의 확대에 대한 추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KT는 알뜰폰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유심보호서비스 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강도현**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 변경하는 부분하고 기본서비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성범 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증인 강도현** 사업자 측면에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현재도 무료입니다, 부가서비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유심보호서비스 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이 있으세요?

○**증인 유상임** 이번에 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유심 교체를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있고요. 5월 14일까지는 유심 교체 없이도 교체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사업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정기환 마사회장님, 앞으로 좀……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증인 정기환 예, 말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마이크 들어 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마사회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가요?

○증인 정기환 지금 그렇게……

○노종면 위원 커 보입니까?

○증인 정기환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여론에서, 언론들에서 보도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김희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증인 정기환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십니까?

○증인 정기환 제 임기는 지났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후임자가 안 오면 당분간 직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증인 정기환 예, 공운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YTN 지분 매각 당시에 회장이셨어요?

○증인 정기환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 애초에는 지분을 팔 의향이 없었는데 정부의 중용, 저희는 외압으로 봅니다만 그 과정이 있고 입장이 바뀌어서 팔게 된 거지요? 그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매각대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유 중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했습니까?

○증인 정기환 이미 지난 연말 결산을 해서 마사회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익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적립되는 거지요?

○증인 정기환 그래서 4월 달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납부한 것이지 그걸 다른 데 쓴 것은 아니에요?

○증인 정기환 축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이에요? 30%는 보유하고 있고.

○증인 정기환 그건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취소가 되면,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매각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취소가 되면 마사회에서 다시 재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까?

○증인 정기환 그건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종면 위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정기환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님이요, 앞서서 국민의힘 위원께서 한전KDN이 YTN 지분 팔았으니까 그걸로 모기업의 빚을 갚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웃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증인 김장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모기업 빚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빚 갚겠다고 한전KDN의 지분을 매각한 건 아니지요?

○증인 김장현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당시에 전 사장님께서도 국정감사에 나오셔서 애초에 한전KDN 입장은 YTN 지분을 보유하고 싶다 이거였다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증인 김장현 예.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증인 정수옥 예, 나왔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매각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어디 썼습니까?

○증인 정수옥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가지고 있어요?

○증인 정수옥 예.

○노종면 위원 혹시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돼서 승인이 취소되면 다시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인 정수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기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종면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매입은 애초에 불가능합니까?

○증인 정수옥 여러 가지로 주관 부처하고 또 한전의 의사결정이 절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종면 위원 불가능하거나 지금 당장 가능하거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증인 정수옥 예.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구 대표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오전에 못 쓴 2분을 함께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노종면 위원 안 되나요?

○위원장 최민희 예,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그 시간 안에 오시라고 보좌진에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그룹의 혁신기획실장이시기도 하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유진 유경선 회장과는 꽤 오래 관계를 맺어 오셨고 신임이 꽤 두터우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은 혁신이 정말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경선 회장 형제가 과거에 검사에게 5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그게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복권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김진구 저희가 점수에서 좀 밀려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진은 아예 못 들어가서 동양의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지요, 그 기준에 미달해서. 맞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서울 종로의 유진인재개발원 주변의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진구 지금 청운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종면 위원 예.

○증인 김진구 일전에 한번 증권 것을 저희가 다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 조정이 이루어져서 식재를 한 뒤에 해소가 됐지요.

그다음에 유경선 회장 소유의 용인에 있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고요. 또 용인 수지 공장 국유지도 불법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국유지에는 불법 가건물을 설치했다가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원상복구를 했더군요.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국유지, 산과 하천 부지에서는 골재 채취까지 했어요. 이 부분도 뒤늦게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의 혁신 관련 업무를 김진구 대표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계열사 중에 천안기업이라고 있지요?

○증인 김진구 예,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현재 대표시고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여의도 유진빌딩 임대사업이 주력 사업입니까?

○증인 김진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2억 원에 불과하고 그 당시 자산이 14억 원으로 평가되던 소규모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 대주주가 유경선 회장과 그 동생 유창수, 두 총수 일가였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약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데 2015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750억 원대의 자금을 투입해서 유진빌딩, 지금 여의도 사옥을 천안기업이 삼

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자본금 2억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봤더니 주력 기업인 유진기업이 보증을 썼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기업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이 계열사의 보증에 힘입어서 750억 원대의 매입자금을 동원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열사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합니다. 이것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안기업 대표시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평가를 해 주세요, 나머지는 추가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진구 일단 건물 매입이나 이런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했던 건 맞고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향후에?

○증인 김진구 그걸 지금 불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노종면 위원 제가 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법적인 것은 차치하고.

○증인 김진구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보도전문채널을 보유하게 된 유진그룹인데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증인 김진구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포항시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을 여러 각도로 많이 조명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 또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실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사가 숙명처럼 안고 가야 될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TN을 두고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현안질의까지 또 오늘 청문회까지 상당히 많이 힘들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글썄요. 민영화됐는데, 정치로부터 공기업으로부터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됐는데, 독립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는지 참 저도 의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유진기업 강희석 대표님 계십니까?

앉아서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에서 16년 있었습니다. 16년 있었는데 기업에서 방송사를 인수한다는 건 굉장히 참 위험한 일입니다. 고민 많이 하셨지요?

○증인 강희석 저는 인수 당시에는……

○이상휘 위원 자리에 없었습니까?

○증인 강희석 예,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 왜냐 그러면 방송사를 잡는다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방송사 운영은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호랑이를 잡는 거고 힘이 달리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는 속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방송사, 언론사를 보유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유진이 왜 방송사를 인수하려 들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 사장님? 왜 인수하셨습니까?

○증인 강희석 제가 취임 후에 많은 논의를 해 보면 유진그룹은 사실 보도전문을 넘어서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사업의 기회를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 다각화의 측면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사업 다각화의 차원이었다?

○증인 강희석 예.

○이상휘 위원 지금 구조와 관련해서 혹여 시중에서 의심하는 유진기업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언론의 힘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YTN을 인수한 것은 아닙니까?

○증인 강희석 그런 부분은 보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개입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 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YTN 인수한 것 후회하십니까? 유진에 좀 도움이 됩니까?

○증인 강희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휘 위원 김백 사장님, 유진으로부터 사익에 관련된 보도의 청탁이라든가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줬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증인 김백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증인 김백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해당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 김백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없습니까?

얼마 정도 됐지요?

○증인 김백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상휘 위원 강 사장님, 인수하셔 가지고요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민간기업이 방송을 인수하게 되면 거기의 편성권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 처우와 여러 가지 보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본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YTN이 변화된 부분이 많은데 업무환경도 개선됐고 명예 퇴직 기준도 완화됐고, 이런 것 사실입니까?

○증인 강희석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실로 보이고 저 중의 상당수는 YTN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YTN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다. 김백 사장님, 맞습니까?

○증인 김백 예,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상휘 위원 좀 발전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백 예.

○이상휘 위원 제가 봐도..... 취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그룹이 자본을 투입해서 인수한 다음에 방송 환경이 나빠졌다든가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든가 또는 사업의 이익에 방송을 활용했다든가 악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혹시 강 사장님, 인수 당시에 방통위의 조건부 허가 조건 열 가지 아십니까?

○증인 강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 열 가지 조건 아시지요?

○증인 강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4월 30일 매년 제출하게 돼 있지요?

○증인 강희석 예, 맞습니다.

○이상휘 위원 오늘 제출일이지요?

○증인 강희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출했습니까?

○증인 강희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여기 보면 '5년간 4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속 이행해야 된다' 약속 지키셨습니까?

○증인 강희석 예, 저 400억은 아마도 YTN의 채승인 조건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에게, 유진이엔티에 부과되어 있는 조건은 최다출자자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YTN에 200억, 유진이엔티에 400억, 총 600억의 자금을 증자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열 가지의 해당 조건에 있어서 YTN이 미비한 게 있습니까? 잘 지켜 왔습니까?

○증인 김태규 200억 투자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방송의 공적인 영역 때문에 이렇게 부과하는 조건이 됩니다. 왜? 방송을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공적인 영역을 지키라고. 이것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TN 문제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가 좀 매듭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봐서는,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진으로서도 크게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강요나 압박에 있어서……

장 사장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서, 유진이 인수하라는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증인 강희석**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상임 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몰라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동료 신성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SKT 사태 이게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쭙했는데, 이 해킹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것을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이게 보완해야 될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해킹을 방지하고 또 민간으로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증인 유상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은 각 사업체에서도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해킹을 하는, 공격하는 쪽의 능력들이 계속 진화를 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방지를 하더라도 또 뚫는 해커가 분명히 올 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방하고 뚫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처를 하느냐 이것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휘 위원** 혹시라도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총체적으로 방어가 되지 이렇게 뚫리고, 지금 SKT 문제가 금융 해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지요. SK가 질 수도 있지만……

○**증인 유상임** 일단은 사업자가 그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저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처벌규정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유도를 해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구체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강도현 차관님, 국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될 제도가 뭐가 있겠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볼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관이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금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는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뭐인지 아세요, SKT 부사장님?

○증인 류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 얘기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

○증인 류정환 주민번호나 아니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 그다음에 여권번호 이런 것이 반드시 암호화해야 될 대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될 범위를 늘려 주면 보안은 강화되는 거지요?

○증인 류정환 예, 일단은……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 할 수 있고요, 과기부가.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사업정지 3개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거기서 뭐를 고치면 좋겠다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휘 위원 감사합니다.

○증인 유상임 과기부 차원에서는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은 너무 일반적이지요.

○증인 유상임 아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지요. 지금 여쭙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해킹 사고를 막으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법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을 꼭 짚어서 하면, 법이라는 게 규제니까 SKT나 통신사들이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증인 유상임 물론 그런 차원의 법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강화하는 게 상책, 좋은 것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과기부장관님, 예를 들면 개인정보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넓히는 것은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몇 가지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그것을 조금 확대하면 보안 수준은 강화되고…… 그것은 약간 귀찮은 거지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증인 유상임 그 문제는 뭐……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런 것을 반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반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유상임 아니요, 반대하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답답합니다, 진짜.

○이상취 위원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증인 유상임 전연 반대하지는 않았지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술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단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 달라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최민희 됐습니다.

○증인 유상임 지금 국회가 뭘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셔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국회는 지금 이런 법 제도 개선, 깨알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대선 시즌이 다시 왔지요. 지금까지도 계속 부정선거니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고 한민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답페이지 같은 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튜브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문제가 되는데 구글코리아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 왔고 했는데도 고칠 수 없다, 어쩔다라는 핑계만 계속 대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님 좀 나오실래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20년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미국에서?

○증인 김경훈 20년이요?

○조인철 위원 선거 때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던.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쪽에서 강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지요?

○증인 김경훈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 쳐들어가는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글 유튜브가 취한 정책들이 있어요. 유튜브의 한 정책 기억나십니까?

○증인 김경훈 그런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들은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인철 위원 그때 당시에 선거 정보 관련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 삭제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등 채널 계정이 아예 영구 정지가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수익을, 광고 제안하는 이런 조치까지도 취해졌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보패널이라고 해서 ‘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는 밑에 설명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 줬어요. 아시지요?

○증인 김경훈 예, 정보패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또 하나, 심지어는 알고리즘까지 조정을 해 줬습니다. 부정선거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안 뜨도록 미국에서는 조치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경훈 사실 미국의 조치라든지 유튜브의 조치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같은 정책과 조치들이 한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인철 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중국 간첩단 체포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

어요. 부정선거,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어떤 것 하셨어요?

○증인 김경훈 말씀해 주신, 미국에서 있었던 정책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금 한국에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저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여기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정선거 논란이나……

○증인 김경훈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명확한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미국에 있었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명확합니까? 거기는 자율기구도 없어요. 거기는 훨씬 더 민간에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규제가 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막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입니다.

어떤 게 지금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조치를 했다는 거지요?

○증인 김경훈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인철 위원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우리 부정선거 논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끝났어요? 미국은 의회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이 들어왔습니다, 총 들고.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폭력성이 아니에요?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 중에 폭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조인철 위원 그렇게 폭력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짜뉴스로 거의 도배해서 증거도 없는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라든지 방심위라든지 또 의원님실에서 말씀하신 영상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조인철 위원 무슨 조치를 했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뭘 조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몇 개 삭제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그 삭제가 되는 것 자체가 검토를 거쳐서 내려진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왜 여기는 그물망이 느슨하냐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우리 것은,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그물망이 느슨해요?

○증인 김경훈 사실 미국에 있는 같은 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은 같은 그물망입니다, 위원님.

○조인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계속 미국 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같이 있어요.

○증인 김경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똑같지요?

○증인 김경훈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똑같은 것을 적용하는데 왜 거의 비슷한 것들이 우리는 계속 돌아다니고 거기는 철저하게 차단되냐는 이야기예요, 결과를 보면. 비교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건 가지고 제가 대여섯 번 질의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스크린하는 팀이 한국 관련해서 몇 명이나 있는지, 누가 하는지 달라고 그래도 주지 않았지요? 줄 수 없다고 그랬지요?

○증인 김경훈 예, 검토팀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조인철 위원 왜 못 받냐고요.

○증인 김경훈 본사 지침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왜 우리 KISO는 가입을 안 해요, 인터넷자율기구?

○증인 김경훈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왜 가입을 안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조인철 위원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유상임 장관님,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인터넷 부분에 발주하는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증인 유상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조인철 위원 인터넷 부분으로 발주하는 광고비가 35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그중에 유튜브로 가는 게 얼마나 될까요?

○증인 유상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했는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파악해서 조치하십시오.

○증인 유상임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저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한다, 그거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치, 방법을 제가 찾아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사에 반드시 제가 할 거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과기부장관님, 반드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증인 유상임 예,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님.

○최형두 위원 구글 대표님, 오신 김에 잠깐 다시 나오십시오.

유튜브 올해 20주년이라고 각 언론에서 쭉 연재하고 있는 걸 다 보셨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봤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제 AI 시대에 알고리즘이 우리 문명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적대적 진영으로 갈라놓고 자기 확신에 빠지는 허위 정보, 조작 정보에 더 깊숙이 빠지는 이 알고리즘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동안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게 버마 같은 데서 인종 학살을, 종족 학살을 부르는 참극으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게 유튜브 하라리의 ‘넥서스’에도 나오고 가장 걱정하는 대목인데 아마 다음 순간에는 유튜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훈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공신력 있는 콘텐츠들 위주로 추천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유튜브가 추천하는 걸 보면, 최근에 국내 신문에 몇 군데 특집을 냈는데 진보다 보수다 가리지 않고 다 냈어요. 그거 쪽 보셨습니까?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각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하신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서 20주년을 맞아서 언론에서 제기했던 시리즈를 다 모아서 본사에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 주요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것을 꼭 본사에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김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YTN을 이렇게 불렀는데……

김백 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증인 김백 1년 됐습니다.

○최형두 위원 1년 됐습니까?

YTN이 그동안 공기업 KDN이 최대주주, 지금도 공기업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요, KT&G, 마사회?

○증인 김백 KT&G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마사회 지분은 지난번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오늘 마사회가 참고인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지금 마사회 지분이 없습니까? 그냥 서서 말씀하십시오.

○증인 정기환 예,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증인 정기환 출석요구받고 나왔습니다.

○최형두 위원 마사회는 언제 지분을 매각했지요?

○증인 정기환 2023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2023년에?

○증인 정기환 예.

○최형두 위원 그때 매각을 좀 강요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왜 매각했습니까?

○증인 정기환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과 또 혁신계획이 확정되고 그런 속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최형두 위원 앉으십시오.

김백 사장님, YTN이 인수한 뒤에 자본금을 높였습니까?

YTN 경영본부장 와 계십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백 YTN에 200억 증자를 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누가 증자했습니까?

○증인 김백 증자는 제삼자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유진이엔티가 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KDN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YTN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유상증자나 증자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본금 규모를 늘린 적이 있습니까?

물론 김대중 정부 때 남산타워를 뒀고 그 당시에 공기업들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지분을 다 인수하기 위해서, 한국의 CNN이라는 뉴스 채널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지요, 우리 뉴스 채널. 당시에 CNN이 세계를 휩쓸고 또 유럽 어디입니까, 아랍 알자지라까지 나오고 프랑스 24, 러시아 투데이 이런 뉴스 전문 채널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뉴스를 글로벌에 송출하는 것에 우리나라도 뒤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YTN이라는 뉴스 채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백 방송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방송 광고는 우리가 예상보다 광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쪽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YTN이 전 세계에서, 이전에 우리 해외 출장 가 보면 CNN처럼 전 세계 호텔하고 제휴를 맺은 건 아니지만 한국의 뉴스는 전부 YTN으로 보는 이런 게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무슨 제휴하고 있는 송출망 같은 게 있습니까?

○증인 김백 저희가 여러 군데하고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위성 송출을 해서 외국에서 볼 수 있었습시다라는 지금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에 가도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KT&G인가 어딘가가 외국인 지분이 50% 넘어서 YTN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위반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KT&G나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없습니까?

○증인 김백 그래서 그 KT&G가 원래 지분을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지분을 인삼공사에 넘겨서 지금은 2대 주주가 인삼공사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잠시 공직에 있을 때 YTN의 KT&G 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걸 정부가 좀 다른 공기업으로 바꿔 주면 안 되겠나, 계속 이런 민원이 YTN 측에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때 나중에 YTN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공기업의 힘을 빌려서 공기업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YTN을, 한국의 뉴스 채널을 살리자, 더 발전시키자 이런 것으로 정부가 비상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의 CNN을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지요?

○증인 김백 예.

○최형두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 쟁점은 YTN이 만일 문제 된다면 YTN 주식을 매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가치 산정이 잘못되어서 누구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건 따져 볼 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YTN 주식 가치 산정, 다음에 매각 관련돼서 이해당사자들의 소송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증인 김백 지금 소송이 제기돼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지금 YTN 노조위원장님하고요, 전직 고한석 위원장님하고 전준형

두 분 좀 잠깐 나오시고요.

고한석 전 지부장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YTN 매각 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PPT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YTN 최대출자자 변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어요. 지금 열 가지 정도 조건부 승인인데 이게 하루 만에 처리가 돼서 승인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외이사와 감사가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두 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전준형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승인 조건을 보면 사외이사는 분명히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와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 주총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유진그룹 회장인 유경선 회장의 어릴 적 절친 인사가 한 명이 들어왔고 또 한 명은 유진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법률고문을 했던 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진이엔티와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알겠습니다.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이상인 부위원장……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고한석 전 지부장님, 당시 지부장으로 있을 때 이동관, 이상인 등을 고발 조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 고한석 고발……

○위원장대리 김현 제척 사유와 관련……

○참고인 고한석 기피 신청은 했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기각을 했고요.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참고인 고한석 예.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이상인 부위원장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처분한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최대주주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YTN이 제대로 된 보도 내지는 정권에 길들여진 보도 행태가 어땠는지……

○참고인 고한석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YTN에서 김건희는 성역이 돼 버렸습니다. 김백 사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김건희 관련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모녀가 21억을 부당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YTN은 그런 보도를 해 놓고서 사과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회부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사를 둔갑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이런 것이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또는 방송장악을 진행했던 일이 없

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보도였다고 봐도 되겠지요?

○참고인 고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KBS 박상현 지부장님 나오시지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것은 공영방송을 옥죄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앞서 여당 위원께서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 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KBS 현재 분위기 좀 전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상현 수신료 분리 징수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이제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흔들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수신료를 흔들어서 공영방송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만들어서 내부를 동요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사들을 바꿨고 사장을 교체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하는 박민을 KBS에 내리쫓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자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켰던 박장범을 차기 사장으로 내리쫓았던 것, 여기까지 다 이어졌던 것이, 그 시작이 수신료 분리 징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신료 통합 징수로 원복이 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방송장악, 공영방송 탄압을 끊어 내고 KBS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응답을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예, 알겠습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님 나오시고요.

반상권 대변인 함께 나오시지요.

YTN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매년 4월 30일까지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증인 박동주 오늘까지 이행실적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오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증인 박동주 제가 여기 있어서 확인은 못 했는……

○위원장대리 김현 보통 4월 30일이면 한 달 전, 보름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 검토 후에 다시 보강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증인 박동주 어제까지는……

○위원장대리 김현 확인하시지요.

반상권 대변인 나오시고요.

첫 번째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김홍일 위원장이 2024년 6월 28일 KBS 방문진 이사 선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날치기 처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6월 27일 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과방위 위원들이 방문한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예.

○위원장대리 김현 전해 들었지요? 그래서 안내하러 나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예.

○위원장대리 김현 이 사진이 제가 갑질하는 사진입니까, 아니면 반상권 국장이 저를 안내하고 민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진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제가 민원실에서 안내하러 나갔을 때 사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제가 이때 갑질했습니까? 반상권 국장을 울렸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아닙니다. 저한테……

○위원장대리 김현 김성환 국장님, 뒤에 김성환 국장 있는데요, 당시에 과장인데 이때 어떤 역할 하러 오셨습니까?

마이크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 현재 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입니다.

당시 위원님 안내하러 안내동에 나갔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왜 제가 못 들어갔습니까, 방통위에? 누가 제가 방통위에 못 들어가도록 지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 당시에 제가 지시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위원장대리 김현 그 자리를 회피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안내하러 왔다가 동시에 세분의 직원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사라지라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안내하지 말고? 그때 누가 지시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 당시에 저는 어떤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오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그런 지시는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것은,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하고 면담하기로 한 일정에 국회의원을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사 직원입니까, 아니면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까, 사무처장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저희는 안내하러 나갔던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증을 끊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상당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방통위 국장, 과장들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저한테 들려온 얘기는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안내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 반상권 저는……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왜 사라졌습니까, 안내 안 하고?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하고 그 전날 약속을 하고 당일 날 왔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갈 거냐, 도보로 들어올 거냐 해서 도보로 가기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갔고 안내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었고 당시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거짓말로 둔갑시키고 국회의원 하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까? 부역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에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겹해서……

○**위원장대리 김현** 의사진행, 노종면 위원님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증인들 중에 질의를 다 받으신 분들은 가시게 하는 건 어떠신지요?

○**위원장대리 김현** 어느 분께서 질의, 더 이상……

○**노종면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어떠실지 모르는데 제가 신청한 증인들 중에서는 질의가 끝난 분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주실 수……

○**위원장대리 김현** 성명을 말씀해……

○**노종면 위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김현** 예, 말씀해 주시면……

○**노종면 위원** 배중섭 증인은 질의를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현** 제가 더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신가요?

○**위원장대리 김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그다음에 삼일 쪽의 홍준기 증인하고 송연주 증인은 아까 오전 질의로 마무리를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현** 더 추가하실 분 안 계시면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나요?

그리고 마사회 정기환 회장님 그다음에 한전KDN의 정수옥 본부장님 그리고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님까지 저는 이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지금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증인 또는 참고인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좌석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신 관계로 5분으로 가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성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민영방송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어떤 특정 노조나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집단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기 보다는 어떤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더 떨어지고 노영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김태규** 국민들 중에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래서 YTN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서 방송장악, 사영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2024년부터 지상파·중편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MBC·KBS 심의제재,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더 많습니다. SBS 제재는 7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MBC의 편파방송은 그냥 정파방송, 정치적인 방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허가 취소를 고려해 봐야 될 정도로 공정성, 중립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증인 김태규**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한 비판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부터 지속적으로 방심위를 공격하고 있는 부분에, 방심위를 흔들어 가지고 MBC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한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YTN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화 전후에 방심위 제재를 비교해 보면 YTN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4.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유진이엔티가 지분을 인수하고 지난해 4월 김백 사장이 취임한 뒤 1년 동안 제재 건수는 행정지도 4건에 불과했습니다. 권고 처분을 받은 4건도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성·중립성 위반과 관계가 먼 실수나 패널의 부정확한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노조위원장인가요, 김건희 여사 21억 주가 조작 그 부분을 지적하던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나 법원에서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손실이 다 섞여 있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된 내용인데 그것을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주장하는 소위 YTN 관련해서 김백 사장님, 이런 게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백** 제가, 사장이 구체적인 어떤 보도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본 부장과 보도국장에게 보도와 관련된 전권을 주고 맡기고 있고요. 저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공정보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안 나왔다고 국회에 와서 답변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증인 김백**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사와 관련해서는 기자와 데스크 간에 항상 시각차가 있고……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김백**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PPT 하나 보시지요.

이게 소위 민영화되기 이전에 언론노조의 최남수 당시 YTN 사장 감금 폭언 사건인데 제가 여기서도 영상을 한 번 튜트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당신 사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침까지 뱉습니다. 이 영상 보셨지요? 사장님, 못 보셨어요?

○**증인 김백**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장겸 위원 이 기자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백 예.

○김장겸 위원 사장한테 침 뱉은 해당 기자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증인 김백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언론사의, 인성이나 품위나 품격으로 볼 때 언론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증인 김백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이런 현상이 민영화된 이후 지금도 있습니까?

○증인 김백 지금은 그런 행동은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유상임 장관님, 1998년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통화 불량이나 서비스 미흡 등 사업자의 잘못으로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에 의무가입기간 중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번 SKT 해킹 사태도 해당되는 얘기지요? 해당됩니까?

○증인 유상임 지금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해당됩니까?

○증인 유상임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류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서비스 미흡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해당됩니까?

○증인 류정환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서비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무슨 말이지요?

○증인 류정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처음 들어 가지고요 그것만 듣고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런 자료도 안 챙겨 보고 옵니까?

○증인 류정환 예, 죄송합니다. 그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문제가 벌어진 귀책사유가 통신사에 있을 경우 의무가입기간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이것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입니다, 장관님.

읽고 계시지요?

○증인 유상임 예.

○위원장 최민희 이게 위약금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안 계실 때 오전 중에 SK텔레콤과 저희가 합의한 내용은 이번 SK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편의 귀책사유는 SKT에 있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이것 동의하시지요, 류 부사장?

○증인 류정환 저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대표이사도 같이 대답했고 강도현 차관도 귀책사유는 SKT에 있다까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44조(위약금 면제) 4호 보십시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게 딱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법적 판단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이 귀책사유라는 책임질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피해가 발생했느냐 이것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잡해지지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위약금 납부의무 면제에 대하여 SK텔레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변호이동이 준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44조(위약금 면제)에 이번에 변호이동 하시려는 분이 해당되니까, 안 됩니까? 답변 하세요. 해당되니까, 안 됩니까?

○증인 류정환 죄송합니다. 저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제가 다 위임하고 가라고 했거든요, 유영상 대표에게. 다 위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이것 SK텔레콤 이용약관 맞지요?

○증인 류정환 이용약관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맞습니다.

이번 귀책사유는 SKT에 있지요?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제44조 ‘회사의 귀책사유’, SKT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건데 왜 이걸 답 못 하세요?

○증인 류정환 저희 사장님께서 오전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SK텔레콤 침해사고신고서 띄우세요.

침해를 인지한 시점, 18일 11시 20분, 그러니까 정확히 23시 20분부터 사고 접수, 그러니까 신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증인 류정환 침해에 대한 신고는 20일 16시 46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6시 46분?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24시간 지났지요?

○증인 류정환 예, 지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났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이 신고 제목 보이십니까, 신고 제목? 이상중 원장도 보세요. 신고 제목이 원인 불상의 침해 사고입니다, 침해 사고. 그리고 제가 KISA도 왜 그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 원인 한번 읽어 보세요.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당사 내 시스템의 파일을 유출한 의심 정황이 파악됨’, 이 사고 원인 읽어 보면요 그냥 침해예요. 유출이 아니예요. 애매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그 실무자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의심 정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합니까? 이것 보고 게시는 누구도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왜 그랬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에게 보고하실 때 이게 유출사고로 인지하고 24시간 넘겼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것 그다음 날 받았는데 침해 사고 발생 건으로 제목을 써 놓은 거예요. 침해 사고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대표이사도 다 보고하고 냈다는 거잖아요.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매우 궁금해서 추가질의 때 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하루 반 정도의 시간에, 이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8시에 재개해도 되겠습니까, 식사하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다시 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SKT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SKT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이 오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조치사항에 대해서 강 차관님께서 설명을 주셨어요. 설명을 하신 내용들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 내역들 소통을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거 하나 빼먹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일정이에요, 타임라인. 각 조치들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법사위 가서 오늘, SKT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KT, LG유플러스 지금 더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과기정통부에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통신사 또한 마음놓고 있을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난 10월 15일 날 국정감사에서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시면 제가 의무송출 관련해서 강의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때 모르셔서. 이제는 아

시지요?

○증인 김태규 예.

○이해민 위원 그때 보도전문채널 의무송출 특혜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논하겠다고 그때 답을 주셨습니다. 이후 검토하셨습니까?

○증인 김태규 그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기부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해민 위원 과기부하고 어떤 부분을 같이 해야 됩니까?

○증인 김태규 보도채널 전체 문구를, 어차피 이게……

○이해민 위원 그때도 제가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 김태규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처분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 보세요.

○증인 김태규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해민 위원 유료방송사가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유료방송사가 유료송출채널을 제대로 송출할지 안 할지에 관한 제도 자체는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습니다.

○증인 김태규 예.

○이해민 위원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할 의무송출채널을 필로 선정하느냐 부분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소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송출채널 중에서도 공공·종교 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장애인 복지채널, 공익채널은 방통위가 선정합니다.

장관님, 보도전문채널은 어디에서의 승인 사항일까요?

○증인 유상임 제가……

○이해민 위원 방통위 승인 사항입니다.

○증인 유상임 예, 방통위……

○이해민 위원 의무송출제도 자체는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채널들, 의무송출제도 없으면 안 틀어 주지요.

그리고 의무송출채널 지정은 방송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2000년에는 보도채널, 종편채널, 홈쇼핑채널이 의무송출에 들어가 있었는데 홈쇼핑은 2001년도, 종편은 2019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부위원장님, 종편채널의 의무송출 폐지 결정할 때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내놓은 이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증인 김태규 모르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시장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종편채널은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입니다. 지금 현재 YTN과 연합뉴스TV는 이미 시장경쟁력이 있지요. 게다가 만약 보도전문채널이 유료방송사의 송출을 거부해서 송출이 되지 않으면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사업자는 매출의 15%를 의무송출 대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민영화까지 돼 버려서 공공성·공익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YTN에 의무송출 특혜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방송시장 생태계 망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에서—승인 소관이 방통위입니다—보도전문채널의 의무송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작년 10월 달에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송출 유지가 진짜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제외시킬 수 없는지 저를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만약에 제외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증인 김태규** 의무송출제도 자체는 과기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방송채널 승인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소관이 맞지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민 위원** 이미 두 곳에서 과거에 결론을 내셨었어요.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었습니다.

○**증인 김태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적으로 현재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해민 위원**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태규** 정책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연구……

○**이해민 위원** 정책연구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저는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님과 유상임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5분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 무역장벽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 한국의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추진에 대해서 반경쟁적이다, 무역장벽이다,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유상임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후에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거나 회의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저희가 이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쪽 구글과 같은 그런 빅테크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망 사용료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

제로 각 나라가 소송도 걸리고 이래서……

○이정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유상임 예.

그런 동향을 보고 저절 하겠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관세 무역장벽이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유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김경훈 사장님, 구글코리아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경훈 저희는 모든 나라에서 관련 법규를 따르기 때문ですよ 우리나라에서 정해 지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를 국내에 얼마나 냈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경훈 100억 원 좀 넘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구글의 한국 내 법인 세 군데를 합쳐 보니까 정확하게 239억 원 조금 넘습니다. 한 240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요,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대부분,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 귀속이 되지요?

○증인 김경훈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축소가 됐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이 12조 135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62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법인 세 내는 것 보면 한 24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망 사용료를 부과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제가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로를 좀 더 확장하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텍스트 기반의 웹서핑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화질 영상,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그렇습니다.

○증인 김경훈 저희도 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망 점유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PPT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피노메나 리포트(Global Internet Phenomena Report)라고 하는 데서 보니까 미국의 구글을 비롯해서 트래픽 독점이 고정형 인터넷 트래픽의 경우에 66%, 모바일 트래픽이 69%에 이릅니다. 미국의 빅테크 7개 기업, 구글·메타·넷플릭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트래픽의 점유율도 보니까 구글을 비롯해서 아마존 이런 데, 지금 31.2% 정도를 구글이 차지하고 메타까지 다 하면 한 45%예요.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데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 보세요, 구글의 입장을.

○증인 김경훈 저희가 해저케이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통신 3사와도 협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에 기여를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통신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한국의 인프라, 망 인프라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공정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이상 망 이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엄청난 트래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김경훈 예.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류정환 SKT 부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과 불편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난무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통해서 공포심마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팩트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해킹된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지 정도 정보가 유심 복제에 사용이 되는데 이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심은 복제가 된다. 이걸 팩트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 말은 동일 번호를 갖는 불법 복제폰 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시스템(FDS)라는 걸 통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SKT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것을 24시간 모니

터링하고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 외에 휴대폰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심이 갖고 있는 메모리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휴대폰 번호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개인을 상대로 금융 해킹 같은 것들은 어쨌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증인 류정환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작년인가요, 법원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이걸 휴대전화 번호랑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시도를 할 경우 이럴 경우는 가능합니까?

○증인 류정환 가능한 합니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불법 복제 유심에 안전장치를 걸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박충권 위원 그게 유심보호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FDS 시스템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불법 복제폰이 개통을 시도하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통신망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증인 류정환 아니요.

○박충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접속이 되나요?

○증인 류정환 안 됩니다.

○박충권 위원 안 되지요?

○증인 류정환 망에서 차단을 해 버립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결국에는 유심뿐만 아니라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까지도 같이 가지고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호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네 번째로는 해커가 과연 이 정보들을 가져간 걸 가지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요.

○박충권 위원 그런데 시도를 하게 되면 FDS 시스템에 걸리잖아요?

○증인 류정환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인을 해킹 시도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증인 류정환 실제 그 패턴을 보면 계속 시도를 하면서 될 때까지 하다 리젝트, 리젝

트, 리젝트됩니다.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나 하이 프로파일(high profile) 인물에 관해서는 이걸 위협을 감수 하면서까지 할 실익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량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시도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류정환 과거에 발생했던 사례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 사례지요?

○증인 류정환 과거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박충권 위원 이게 좀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해킹 주체는 특징이 됐습니까?

○증인 류정환 2023년 이전에 그런 게 발견됐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박충권 위원 지금 이번 사태에……

○증인 류정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충권 위원 해킹을 시도한 주체.

○증인 류정환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충권 위원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확인 안 됐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직 안 됐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해커부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일평균 160만 회가 넘는 공격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160만 회가 넘는 이 시도 중에 80% 이상이 북한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킹 시도를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해킹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킹에 당한 어떤 책임을 각 기관에만 묻는 것이 맞는가, 국가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느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권 위원 강도현 차관님, 혹시……

○증인 강도현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겠지만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안전조치나 내용에 대한 문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응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류정환 부사장님, 우리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그리고 한 이삼 개월 텀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에 유심까지 전부 다 교체하고 이런 대응이 있겠지요?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러나 오늘 질의에서…… 이걸 묻기 전에 다른 걸 마저 얘기를 하면 SKT가 우리나라 최대의 통신사고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신사

인데 과연 왜 SKT만 털렸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에는…… 가입자가 2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증인 류정환 예.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가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T가 타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T가 특별히 LG유플러스나 KT에 비해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혹은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다시 해킹에 털리지 않도록 대응이 가능합니까, 사내 자체적으로?

○증인 류정환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단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번 결과에 대해서 계속 외부 전문가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저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안보 이슈고 국가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가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인데 우리 기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털린 게 SKT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까지 털렸어요. 법원은 심지어 2년 동안 해킹을 당하면서도 당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변호이동을 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사장님, 만약에 위약금을 면제해 주게 되면 예상되는 우려가 됩니까?

○증인 류정환 일단은 가입자 간 이동이 되겠지요, 타사로의 이동 같은 것.

○박충권 위원 이탈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정환 그건 아직 예측 같은 것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큼 이탈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르는 비용 손실은 얼마고 이게 기업 생존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계산이 안 됩니까? 기업 차원에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증인 류정환 아직 예측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약금 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태원 회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영상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류정환 저는 결정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은 아닌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님은 비상임이사이신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충권 위원 회사의 어떤 법에 따라서 법적인,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증인 류정환 예, 그런 절차를 따르는 걸로……

○박충권 위원 주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나요?

○증인 류정환 이사회는 절차를,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이훈기 위원입니다.

류정환 부사장님, 저희 의원실로 실시간으로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오늘 오전에 대리점주들 단톡방에 올라온 공지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 뒤에 한번 보면 ‘유심 부족으로 인해 판매 건에 한하여 공급을 진행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신규 아니면 유심 교환을 못 한다는 얘데요, 신규 휴대폰 개통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이 공지를 했는데 이 공지를……

PS&M마케팅 이게 무슨 회사지요?

○증인 류정환 저희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거기서 대리점주들한테 이런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아니면 유심 안 된다는 얘데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아닌 분들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도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지금 대리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고요. 이걸 저희가 더 확인을 해 갖고 분명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 SNS로도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아까 예약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약을 하면 방문 날짜랑 시간을 잡아 주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연락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용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SK는 뭐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예약하면 된다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고,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증인 류정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약관리시스템이 아직 그런 고도화가 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점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 찾아가는 서비스, 코로나 시기에 SKT 찾아가는 휴대폰 가입서비스 이런 것 했다고 홍보를 했어요. 아까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이 들고 이런 분한테, 연세 있으신 분이나 디지털에 좀 능하지 않은 분한테? 그런데 아까 사장님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하게 얘기하셨는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류정환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할 겁니다.

○이훈기 위원 코로나 때 이런 것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시기에 사실 이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증인 류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벌써 여러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증인 류정환 저희가 일단 대규모의 가입자를 먼저 유심보호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유

심 교체 쪽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빨리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SK텔레콤 직원이 얼마나 돼요?

○증인 류정환 현재 5100명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뭐든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증인 류정환 예, 지금 전사의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님, EBS 김유열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부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인데 이 소송이 성립된다고 보세요?

○증인 김태규 소송 결과야 어차피 판결을 받아 봐야 되고……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식의 소송이 상식적이라고 보세요?

○증인 김태규 예, 상식에 배치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신동호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되고 방통위에서 즉시 항고했잖아요. 그러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하는 건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증인 김태규 글썽요, 저희들은 전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이것 소송대리인이 누구지요?

○증인 김태규 임무영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임무영 변호사지요? 이진숙 위원장이 ‘멋쟁이 바보’라고 불렀던 분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한테 ‘우리 누님’이라고 불렀던 분, 그분이지요? 맞지요?

○증인 김태규 제가 이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이훈기 위원 그분이에요. 이것 이해관계 충돌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서 이분한테 또 소송을 줬다? 막판에 무슨 소송 몰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증인 김태규 일단은 그렇게 많은 소송비용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약정을 아마 했을 거고 아직까지 소송비용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거의 성립도 안 될 것 같은 소송을 또 이런 분한테 주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인 김태규 글썽요. 요즘 법원에 보면 상식 밖이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판결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훈기 위원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님, 처음에 저희가 취임하고 방통위 한번 갔을 때 기세가 아주 등등하셨어요, 막 책상 치고 돌아오고.

○증인 김태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기세가 등등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데 저번에 예산소위 할 때 보니까 거의 업무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증인 김태규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만두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는 거지요.

○증인 김태규 글썬요, 제가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수리를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위원장 최민희 아니, 김태규 부위원장은 걸핏하면 재판부 상식을 운운하는데 본인은 상식적입니까, 지금 그런 태도가?

○증인 김태규 글썬요, 저는 상식적으로 처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증인 김태규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공직자가 여기 공석에 나와서 사법 판결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최민희 최소한 회피라도 하든지 하셔야지 그렇게, 본인이 판사 시절에 상식적이었습니까? 그런 판단을 합니까? 위원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데에 티키타카하면서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판사 출신이신 분이?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전에 유영상 사장께 묻다가 좀 미진한 부분 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물어 봐야 되겠다.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류정환 부사장께……

○증인 류정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지금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오전에는 9.7GB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맞아요?

○증인 류정환 9.7GB는 맞고요. 그게……

○한민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현재 알뜰폰 가입자까지 SKT 한 2500만 명 가입자잖아요. 그 정도 분량이면 얼마 정도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증인 류정환 지금 9.7GB라는 절대량은 구해졌는데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걸 가입자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조사단을 통해서 밝힐 내용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게 4월 18일 날 침해 사고, 이른바 해킹 사고의 흔적을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이 4월 며칠입니까? 30일인데 지금까지도 그 규모나 피해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누장을 부리는 겁니까?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절대 누장 부리는 건 없고요. 지금 조사단의 수사에 절대적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있고요.

○한민수 위원 그런데 저는 류정환 부사장 말을 다 믿기가 힘든 게,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미 현장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증까지 한 건데……

○증인 류정환 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것도 ‘추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겁니다.

○증인 류정환 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처음 인지한 게 18일 23시 20분 맞는 거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KISA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 거지요? 17시간이 나, 17시간이라고 따지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마치 인지하고 17시간 만에 신고했다 그렇게 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24시간의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신고를 하라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못 하고 그 규율을 위반한 시간이 17시간 추가로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증인 류정환 저희가 신고기한을 어긴 건 분명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치를 보면요, 일단은 문제가 됐던 장비를 다른 곳하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장비가 과연 어디서부터 이렇게 추적이 됐는지 일련의 과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번 같은, HSS인가요?

○증인 류정환 아니요. HSS까지 밝혀지기까지가, 그 후단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 해킹 사고, 이런 유형의 해킹 사고를 처음 겪었습니까?

○증인 류정환 처음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늦은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건 SKT가 잘못된 부분이 크다, 있다, 아니면 전적으로 SKT가 잘못했다, 어느 쪽입니까?

○증인 류정환 일단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저희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저희 망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것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류정환 예.

○한민수 위원 그리고 오전 질의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이 했지만 통신 3사 중에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금액도 가장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회사가 가장 적게 한 거예요. 지금 부사장이 인정한 대로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SK텔레콤의 내규까지 다 보여 줬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잘못된 걸 인정했으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안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박충권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탈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저도 우수고객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썼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SKT에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통신사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데 휴대폰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약금 때문에 못 가게 잡아 놓는 게 공정한 겁니까, 잘못된 본인들이 했는데? 저는 이걸 도저히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탈 규모가, 정말로 많은 숫자가 이탈해 가지고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SK가 지는 거지요, 회사가 잘못했으면. 그게 두려워서 위약금 면제를 못 해 주겠다, 그게 옳은 논리입니까?

○증인 류정환 그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민수 위원 시간 끌고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증인 류정환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세요, 빨리 답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준석 위원이 물어봤나요? 그러면 옮길 때, 저처럼 장기로 이렇게 사용한 고객들은 다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뭘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랄까요, 검토해 보십시오.

○증인 류정환 예, 하여튼 종합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증인!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그 종합적 검토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힐 지경입니다.

○한민수 위원 종합적 검토 한 것 하나만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뭘 했는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위원장 최민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섯 살입니까, 여섯 살입니까? 법률적 검토 운운하면서 대형 로펌에 보내서 법적 궤변 가지고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자꾸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규약을 보여 줘도…… 답답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저도 SKT 부사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방위에서 시간을 이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KT 판례의 사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검토는 이미 애저녁에 끝났을 것 같습니다. KT 위약금 면제, 면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없어야 할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없애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주십시오.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의 분노만 치밀어 오르고 SKT에 대한 불신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증인 류정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 결과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정아 위원 국민들께서 그 답변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결국 SK텔레콤 스스로 방금 그 발언의 후과를 부메랑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김백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사장 취임 후 대국민 사과 한 적 있지요?

○증인 김백 예.

○황정아 위원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YTN은 그동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증인 김백 예.

○황정아 위원 그리고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증인 김백 그 당시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공정과 균형 보도라는 것이 일부 상대성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어 보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는 결국 윤석열·김건희 주술 정권을 위한 보도만 공정한 보도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까지 사실상 옹호했던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김백 사장이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보도에 대한 내부 비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란 사태는 정치적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말 한 사실 있습니까?

○증인 김백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으로서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잡히게 보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헌정을 유린한 내란 사태 보도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울가미를 뒤집어쓰워서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총칼 든 군인들이 헌법기관을 침탈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했던 중대 범죄행위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김백 사장 스스로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백하는 꼴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백 사장의 윤석열·김건희를 위한 충정이 YTN 보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YTN이 내란 동조 언론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3 비상계엄 선포일부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일까지 약 54일간 지상파 등 15개사 보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YTN은 845건의 계엄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중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옹호 기사가 136건, 15개 언론사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정권의 랩독(lapdog)을 자처했었던 KBS가 51건인데 이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김백 ……

○황정아 위원 할 말이 없으십니까?

YTN의 내란 동조 성향의 기사도 무려 103건이나 됩니다. 역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란 옹호와 내란 동조 기사의 비중을 보면 TV조선이 29.1%로 1위, YTN이 28.3%로 2위, 채널A가 22.6%로 3위입니다. 옹호상박이네요, 완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보도 1위와 2위를 차지한 TV조선과 YTN 그야말로 난형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계엄 보도에서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앞두고 ‘윤 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 YTN이었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날에도 YTN은 윤석열 힘 실어 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도에서 기가 막힌 것은 계엄을 윤석열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표시했습니다.

김백 사장, 내란행위가 정치적 승부수입니까?

○**증인 김백** 저는 구체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정아 위원** YTN은 진짜, 언론이 옹호하는 이 낮부끄러운 보도 행태 정말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김백 사장 취임 이후에 YTN은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김백 사장은 YTN을 불법계엄 옹호의 도구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백 사장이 ‘구체적인 보도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사과 방송, 취임 직후 4월 3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그건 보도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는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국민을 기망하고, 그다음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할 때 들어가 있던 대목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이 자리에 특히 보도전문채널이 해야 될 그런 보도가치의 중립성, 특히 지금 대선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보도에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이 또 빌미가 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김백 사장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요.

본인이 한 행위를 그렇게 여반장 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증인으로 나와 있고 위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와 제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나온 질문 중에 YTN이 민간채널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채널이었기 때문에 이게 민영화가 아니더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더라?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증인 김백** ……

○**위원장 최민희** 기억이 안 나시지요?

YTN이 민간채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백 아까 아마 그……

○위원장 최민희 있습니까?

○증인 김백 아까 최수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는 준공영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위원장 최민희 준공영이 민간채널입니까? 민간채널이라는 규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증인 김백 민영방송을 아마 민간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규정은 없지요? 그런데 YTN이 민영방송이었던 적이 있냐고요. YTN 사장이라면서요, 지금.

○증인 김백 지금은 민영방송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지금 그 사영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청문회가 열린 것인데 한 번도 공영이었던 적이 없다 이 주장이었잖아요, 핵심이. 그래서……

○증인 김백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뭐 하세요?

97년에 YTN이 어떤 위상이었습니까, 1997년에?

○증인 김백 ……

○위원장 최민희 YTN 사장이 왜 YTN 역사를 모릅니까? 저분이 YTN에서 근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YTN 역사를 모르세요?

YTN은 최초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증인 김백 처음에는 연합뉴스…… 당시 연합통신이 대주주로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연합통신은 어떤 지위였습니까?

○증인 김백 그러니까 아까 최수진 위원은 연합통신이 대주주였던 것을 연합통신을 민간방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 최민희 그게 맞냐고요. 맞아요? YTN에서……

○증인 김백 연합뉴스의 성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 성격은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해석의 영역입니까?

○증인 김백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준공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민간 아니잖아요.

당시에 연합통신이 YTN 대주주였을 때 그때 연합통신의 위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증인 김백 ……

○위원장 최민희 방송사 사장이, YTN 근무한 분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97년 오인환 공보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송 정책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97년에? 모르세요?

○증인 김백 예.

○위원장 최민희 정부가 갖고 있었지요.

2000년에 통합방송법 만들어지면서 DJ의 결단으로 무소속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생기게 돼서 방송 정책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그거야말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인환 공보처장이, 공보처가 연합통신 인사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언노련이 ‘왜 연합통신에 개입을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공보처 답변이 뭐였냐면 ‘연합통신은 정부투자기관의 재투자기관이라서 일종의 관영통신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 연합통신이 대주주인 YTN은 민간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

○증인 김백 ……

○위원장 최민희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대주주가 관영통신인데, 당시 정부 규정으로.

○증인 김백 민간방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건 확실한 거고요. 공영언론사지요. 그러니까 YTN은 공영언론사임이 맞고요, IMF 이후에는 더 명확하게 공영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YTN 구성원들, 연합통신 구성원들이 뭐라고 답을 하나면 ‘관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국민의 통신사다. KBS, 국민의 방송이지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바, 아까도 하나 있었잖아요,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지할 때 표결하시고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지에 동의하시고 제삼자처럼, 관여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김백 그건 제가 그때……

○위원장 최민희 착각하셨어요?

○증인 김백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착각은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 착각이거든요. 잘못하신 거지요.

그리고 지금 김현 위원의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계엄에 대해서 중립적인 보도, 입장이 다르니까 중립적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거 보도지침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한 가지 여쭙볼까요?

A가 B를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A·B 입장을, 살인도 중립적으로 다뤄야 됩니까? 비상계엄은 국민의힘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김현 위원님 지적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김백 증인이 지금 본인의 아까 그 거짓 증언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제가 볼 때는 거짓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날 이사회에서 안건이 2개가 연달아 처리됩니다. 선행된 안건이 사추위를 없애는 안건이었고요. 거기에 가결표를 김백 당시 이사가 던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본인을 사장으로 만드는 의결이 진행돼요. 그날의 상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백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제가 주도적으로 안건을 안 올렸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거는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착각은 잘못이라니까요.

○김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제가 앞서 박동주 방송정책국장에게 오늘 4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 이행각서 등 주요 내용을, 이행 실적 자료를 오늘 제출받았기 때문에 박동주 국장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까지 지금 약속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까 뒤에 배석하고…… 오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024년 한 해 동안 유진그룹이 조건부 승인할 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는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잘못됐다라는 점을 확인해서 질문에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위원장께서……

○위원장 최민희 예, 미리 준비하십시오.

박동주 국장, 어디 계시지요?

○증인 박동주 예.

○위원장 최민희 숙지하시라고요. 이따 질문할 때 내용 숙지하시고 정확히 답변하라는 요구입니다. 본래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일이 많으니까 재차 확인하시는 거고요.

신성범 위원님 안 계시고,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김진구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서 질의드렸던 천안기업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도가 이해되시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본금 2억 원짜리 소규모 기업이 유진기업이라는 거대 기업의 보증을 받아서 그에 힘입어서 750억 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동원하고 그것으로 여의도 유진빌딩 사옥을 매입합니다. 그곳으로 이후에 유진그룹의 계열사들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천안기업의 주력 사업임을 앞서서 인정하셨어요.

저 구조는…… 아까 제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YTN 대주주,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이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지요, 누가 봐도. 계열사 당겨서 돈 끌고 그 돈으로 빌딩 사서 계열사 일감 몰아 가지고 영업하는, 이게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답변을 기대하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증인 김진구 유진기업이 보증만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서도 담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니다.

○노종면 위원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

은 그런 의혹도 큼니다. 이게 사익편취에 해당을 하려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받아야 되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저 당시에는 대기업집단이 아니었어요?

○증인 김진구 그리고 사익편취는 지분을 20%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노종면 위원 예,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 거지요?

○증인 김진구 그 이후에는 십구 점 몇 %라 사익편취에 해당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과연 그럴까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18년 5월에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저때의 지분율은 여전히 유경선, 유창수 두 형제가 68%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때 이미 해당됐던 거예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지분을 판 거는 그로부터 두 달 뒤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그래서 2018년 7월에 지분을 20% 이하로 낮췄요. 미만으로 낮췄요. 왜? 사익편취 규제대상 피하려고. 맞지요?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은 불법인 상태로 있다가 겨우 규제대상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2022년 6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서 유경선, 유창수 두 형제의 지분을 유진기업이라는 계열사가 인수했는데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그것도 규제대상이 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저 때부터 다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됐던 겁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상태가 2022년 6월 3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1월에 남아 있던 19.12% 다 팔아 치웠지요?

○증인 김진구 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매각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작년 11월에, 국감 때.

○증인 김진구 예, 국감.

○노종면 위원 저것 왜 팔았어요? 규제대상을 피하려고 판 겁니까? 대주주가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증인 김진구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노종면 위원 사익편취해도 되냐 안 되냐 묻는 것 아니고요, 왜 팔았냐고요. 대표셨잖아요, 저 때.

○증인 김진구 유진기업이 거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진기업의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 몰아주자?

유진기업의 보유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천안기업은 규제대상이에요. 아시지요?

○증인 김진구 예.

○노종면 위원 이게 유진기업의 보유지분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일 텐데, 그러면 유진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지요. 그런데 거꾸로 샀어요. 총수 형제의 지분을 유진기업이 사 줍니다.

아까 자본금 2억 원짜리 작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지분은 이미 70% 정도 가지고 있었구요. 그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유경선 회장 기준으로 하면 한 1억이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에 1차로 지분을 팔고 작년 11월에 나머지 다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두 형제가 가져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1억 원이에요. 큰 차이 없겠지요?

○증인 김진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부 주식을 샀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노종면 위원 누구 주식을, 무슨 주식을 샀어요?

○증인 김진구 그리고 18년 5월에서 7월에 매각했을 때는 사실 5월의 단가하고 7월의 단가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서, 갑자기 천안기업을 물어보셔 가지고요.

○노종면 위원 그때 주당 구천 얼마에 팔았고요.

○증인 김진구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주당 7만 5000원에 팔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증인 김진구 사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지난해 246억, 2018년에 판 것까지 더하면 311억이 현금으로 총수들한테 갑니다. 유경선, 187억을 챙겨요. 1억 정도 들어 가지고 187억을 가져가는 것, 거기에 김진구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겁니다, 천안기업의 대표로.

유경선 회장, 유창수 그 동생, 현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챙겨 뒀습니까?

○증인 김진구 제가 지금 숫자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솔직히 못 합니다.

○노종면 위원 수백억은 맞아요?

○증인 김진구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매각이 246억이라면 어차피 상증법 계산해서 저희가 시가, 공정가치 평가해서 했던 금액이 246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년 5월하고 7월에는, 제가 기억에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종면 위원 그건 빼도 돼요.

○증인 김진구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것은 빼 드릴게요. 빼 드릴게요.

1억 정도 들어서 246억 챙겨 샀어요.

○증인 김진구 1억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자본금 2억인데 그러면 얼마를 넣었을까요?

○증인 김진구 제가 그것은……

○노종면 위원 자본금 2억인 회사에 얼마를 넣을 수 있습니까?

○증인 김진구 갑자기 천안……

○노종면 위원 2억 다 넣었다고 할게요. 2억 다 넣어서 246억 챙겨 샀습니다.

이게 공정한, 정상적인 기업이에요? 도덕적인 기업이에요? 총수가 작은 회사 만들어서

주력사의 보증으로 사옥을 사고 그것으로 계열사 동원해서 임대사업 하고 기업가치 올려서 지분 다 팔아서 현금 챙기는 이게 사회적인 책무를 지는 대기업집단이 할 것입니까?

이게 억울하면요…… 사익편취 의심받을 수 있는 것, 이것 지금 공정위에 물어봤더니 해당할 가능성이 크대요. 이 오해를 풀려면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천안기업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안 하세요?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방심위 이현주 증인님, 아까 게시판 글 삭제 상황 확인했습니까?

○증인 이현주 의원님실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SK 측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게시판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자율규제 형태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방심위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증인 이현주 예.

○김우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SK텔레콤 부사장님이 나와 계신데, 그것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정환 예, 오전에 화면으로 봤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글 삭제 요청을 회장 대리인이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삭제 요청을 했는지 아십니까?

○증인 류정환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게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밈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데 대한 현상이 아니고 소위 SK텔레콤 탄생 과정 또 지금의 이런 보안사고에 이르기까지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정통성 부재, 권력 찬탈에 의한 정경유착과 비자금과 그것으로 발생한 정략결혼과 또 그 이후에 재산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집단, 재벌의 이면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로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다수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런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소비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영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핵심적인 사안은 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적 조치로써 변호이동을 할 때 그 귀책이 SK텔레콤에 있으면 옹당 규약대로 위약금 면제라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밀리고 밀려서 나중에 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CEO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회장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늘 분위기를 건의하시고 소비자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피해구제 대책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즉각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증인 류정환 예, 꼭 말씀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YTN 관련해서 김백 사장님, 저쪽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화면을 보고 말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민희 세워 드릴게요. 나오실래요?

○김우영 위원 예, 좀 나오십시오.

YTN을 유진이 인수를 하고, 특히 부천이나 은평 이런 데서 케이블TV 운영을 했던 그 그룹이에요, 유진이.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백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지역방송문화 창달 그런 데에 기여도 하시고 또 YTN이라는 나름 규모가 있는 보도채널을 인수해서 공정한 보도의 가치를 구현하겠다, 그런 취지로 인수를 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백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사장은 그러한 경영주의 지향점에 따라서 마땅히 보도나 여러 측면에서 공정한 방송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증인 김백 예.

○김우영 위원 그런데 과거에 내란 사태 이전에 나름 국민으로부터 균형 잡힌 보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신뢰를 갖고 있던 YTN이 유진 인수 이후에 정권의 시녀, 편파방송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사장님 책임은 없습니까?

○증인 김백 그런 평가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우영 위원 시청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의 인식과 무관하게 시청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백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내란 사태가 터졌고 그 이후에 동조 방송, 심지어 KBS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에는 나름 균형 잡힌 보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한심한 방송을 한 게 YTN이에요. YTN의 내란 동조 방송으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고 특히 현재로부터 탄핵이 인용되면서 YTN의 보도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사장님은 거기에 책임지셔야 돼요. 경영자로서 고용됐을 때는 경영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버티면 되는 겁니까?

○증인 김백 보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 시청률이 최근 몇 달간 경쟁 매체보다도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균형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세요.

그래서 YTN 시청률이 한 20% 됩니까? 김백 사장, YTN 시청률이 한 20% 됩니까?

○증인 김백 시청률이 20% 되는 매체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0% 됩니까?

○증인 김백 10% 안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5% 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빨, 치과 치료를 해서 휴식이 필요 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 간사께…… 기회를 주고 1당·2당 위원들 전부가 위약금 면제에 대하여 SKT 규약대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검토’ 소리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 이 됐는데, 저는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께 독자적으로 떼어내 서 SKT 청문회를 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김현 간사님, 청문회 일정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 이 있는데도 답을 못 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SK텔레콤 관계자들도 밤늦게 계신데 제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 웅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여기 한민수 위원님 또 황정아 위원님, 여러 위 원님이 같이하는데 제가 소위 위원으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예산을 막바지 챙겨야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예산 챙기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예산은 다 해 놓고, 산불 끄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가시적인 데 비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어서 특히나 예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는 항목을 넣기 힘듭니다.

우리 조인철 위원도 나한테 목매달고 있고 지금 황정아 위원도 다 그러고…… 그래서 자리를 많이 못 지켰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SK텔레콤을 좋아합니다. 저는 SK텔레콤에 아마 연소득의 상당 부분을 통신료 로 다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갈아타지도 않았습니 다. 전화기도 3개입 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과방위는 어느 재벌 대기업 회장 들 부르는 것은 자제하자 이런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도 안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는 점 또 지금 장관님도 급하게 일정 중에 오셨는데, 내가 여쭙보겠습니다.

SK텔레콤에 누가 계시지요? 부사장님이시지요?

○증인 류정환 예.

○최형두 위원 혹시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 배후라든 가 같은 수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짐작하는, 최근의 외국 사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어디입니까?

○증인 류정환 해커 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사 말씀하시는……

○최형두 위원 예, 회사.

○증인 류정환 중국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장관님하고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연말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게…… 어느 그룹이었지요, 부사장님? 그것 어느 그룹이 일으킨 해킹 사건이었습니까?

○증인 류정환 회사 이름, 버라이즌 말씀입니까?

○최형두 위원 예. 버라이즌, T-모바일, 미국 텔코들이 다 난리 났습니다.

○증인 류정환 예, T-모바일……

○최형두 위원 T-모바일도 있고 버라이즌도 있고 다 난리 났어요. 다 난리 나 가지고, 당시에 T-모바일이라든가 버라이즌 사이버 디펜스팀들이 다 해서 이걸 자기들이 격퇴했다 하고 그랬는데 그 그룹 이름이 솔트 타이푼 그룹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중국 사이버 해킹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전부 미국의 큰 텔코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CC가—연방방송통신위원회지요—각 텔레콤 회사, 무선전화 통신회사들에게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수준을 높여라 하고 굉장히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국정이 정쟁에 좀 어지러웠습니다만 이게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국내 통신업체라든가 특히 SKT처럼 국내 최고의 통신회사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잠입할 수 있다, 한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대비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계속 리포트는 봤고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심어졌는지, 주민번호는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만 유심 정보가 털려 나가는 이게 언제 심어졌는지,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시기적으로는 대개 어느 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정환 현재로서는……

○최형두 위원 지난 연말입니까?

○증인 류정환 아니요,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최형두 위원 봐야 되지요?

○증인 류정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은 전부 지난 연말입니다. 연말이어서, 이것 심지어 미국 대통령후보들 다 털었고요. 버라이즌, T-모바일 또 우리 KT 같은 AT&T 같은 주요 텔코를 비롯해서 80여 개의 기업과 인터넷 제공업체를 침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문자, 이메일,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있으면 우리 정부, 큰 텔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좀 대비하고 미국이랑 공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SKT를 특별하게 뭘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우리 국가 안보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형 텔코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고 그걸 국회가 함께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김홍일 전 위원장님, 지난 2024년 2월 7일 날 최다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한 것이 타당하더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증인 김홍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김현 위원** 기억도 안 납니까?

○**증인 김홍일** 증언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박동주 국장 자리로 나오세요.

열 가지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첫 번째가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등 즉 이어지면서 이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을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계획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이행할 것이 있고 그것을 2024년 4월 30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 오늘 제출하는 겁니다. 이 제출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 이행 각서 등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맞지요?

○**증인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1번, 2번 등 하고 그다음에 청렴·윤리·준법 경영이지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공적 책임을 다하라 그다음에 공정성을 꾀하라는 거거든요. 사장추천제 그다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다 김백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없앴거든요. 이것 조건부 승인 이행 안 한 거지요? 통상 방송통신정책국에서 볼 때 조건부 승인 안 한 거지요?

○**증인 박동주** ……

○**김현 위원** 답변하세요. 어긴 거지요?

○**증인 박동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박동주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증인 박동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조건부 승인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사장추천제가 들어가도록 돼 있지요. 그것도 공적 책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증인 박동주** ……

○**김현 위원** 답변 거부합니까?

○**증인 박동주**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그래서 조성은 사무처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사람들 다 교체해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기회주의적 답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관 처장님 나오세요.

당시에 방송정책국장이었나요?

○**증인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당시에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

장이 있을 때 사무처 원안에 동의할 때 사무처 원안에 이 조건 10개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다하는 것에 기존에 하던 바로 하고, 거기에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건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사장추천제가 다 포함돼 있지요? 그러니까 유진에게 넘기기 전에 YTN이 갖고 있는 그 제도를 유지하고,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모르니까?

○**증인 김영관** 위원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이 열 가지인데 그 열 가지 안에는 임명동의제나……

○**김현 위원** 아홉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사장추천제가 그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다 엄격하게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이예요. 그리고 매년 4월 30일까지 최다출자자가 제출한 이행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 자료를 제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것을 아직 안 해 준 거거든요, 방통위가. 그렇지요?

○**증인 김영관**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할 것…… 방통위는 2024년 2월 9일 이후에 처음, 2025년 4월 30일 오늘 이행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사장추천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영관** 위원님, 제가 아직 그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현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9일 날 할 때 그동안에 이행하기로 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증인 김영관** 위원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들어가세요.

1분만 주십시오. 이어서……

지금 전준형……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 안 하시면 3분 더 드릴게요.

○**김현 위원** 아니,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냥 큰 소리로 하세요.

○**김현 위원** 예, 들릴 겁니다.

들어가세요.

전준형 지부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의 내용, 맥락을 아시잖아요?

○**참고인 전준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거기에 답변하시면 돼요.

○**참고인 전준형**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YTN의 공정방송 제도의 근간을 완전

히 흔들었습니다. 보통……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2024년 2월 9일 날 조건부 승인에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변경한 거예요.

○**참고인 전준형** YTN이 항상 방통위 재승인을 받을 때는 공정방송 제도의 중요한 틀로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매번 포함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재승인 조건에는 항상 포함되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온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고한석 지부장님, 지금 맥락에 대한 답변…… 마이크 좀 주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하고 사장추천제가 다 있었지요?

○**참고인 고한석** 예.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들이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을 복기시켜 드렸어요.

○**위원장 최민희** 5월 8일 오전 10시 SKT 청문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당 간사께서는 증인 명단 지금 확정할 수 있으면 올려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그날 예타 공청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1소위를 조금 빨리하고……

○**김현 위원** 1소위 빨리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오후 2시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띄우세요.

지금 이 사안이 모든 국민들께서, 그것도 2300만 플러스 가족까지 지켜보고 계신 일이에요. 게다가 어르신들도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 나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8일 오후 2시 되겠습니까? 오후 2시에 SKT 단독 청문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 지금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참고인들은 차후에, 당일 의결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것부터 띄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44조 그쪽도 전부 보이시지요?

그리고 1항 4호 회사의 귀책사유.

제가 추가로 약관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아까 법률 검토 종합적으로 받는다 그랬지요? 안 받으셔도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약관의 해석 2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강도현 차관님,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 따랐을 때 2는 무슨 뜻입니까, 이 사태에 대입해서 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고객이 변호이

동을 원할 때 위약금 면제해야 된다 그거지요?

○증인 강도현 귀책사유에 대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거지요?

류 부사장, 이게 뭐니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왜 시간을 안 해요? 저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부터 하겠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어디 끝까지 가 봅시다. 그놈의 법률적·종합적 검토 언제까지 하실지 제가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률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에 준하게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다 찾아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일을 가지고.

그리고 녹취 트세요. 녹취 트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녹취?

(녹음자료 재생)

세우세요.

들으셨지요? 제가 이것까지 안 까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판다고 말씀드렸지요?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조금씩…… 우리 SKT가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안 까고 그냥 넘어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4월 18일 11시 20분이지만 사실은 6시 9분부터 이상이 감지됐잖아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이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용하는 중에 이상 트래픽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트래픽의 정도가 좀 심했잖아요, 그날. 이것 다 알고 있다고요.

○증인 류정환 아니, 그것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다 있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4월 18일 금요일부터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사이에 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어요?

○증인 류정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끝까지 팔 테니까 그것 준비하시고요.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KISA 신고 시점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했다 그랬지요.

유심 키값이 유출된 사실은 언제 최초 인지하셨어요, 유심 키값 유출 사실?

○증인 류정환 잠시만요.

저희가 4월……

○위원장 최민희 저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준비하고 오십시오.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이런 녹취가 까지고 제가 이런 질문 할 것 몰랐을 테니까.

저는 증인을 궁지에 몰아 뜨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지금 드시지 않으면 안 드릴 거예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손 들었어요.

○위원장 최민희 들었어요? 제가 이것 못 봤으니까 적어 주세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강명일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제가 오늘 한마디도 안 물어봤는데, 아까 앞선 YTN 관련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YTN의 역사에 관해서 김백 사장님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MBC는 원래 시발이 뭐였습니까? MBC 역사를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참고인 강명일 MBC가 처음에 시발됐을 때요?

○김장겸 위원 예, 출발했을 때.

○참고인 강명일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장겸 위원 민영방송사였거든요, 상업방송.

그리고 군부에 의해서 뺏겼지요?

○참고인 강명일 부산MBC가 맨 처음에 있었다가 뺏겼던 것으로……

○김장겸 위원 예, 부산MBC가 효시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군부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공영방송의 이름을 띠고 영업은 광고를 하는 소위 기형적인 매체가 지금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언론노조가 경영권과 사실은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 대해서 일어나는 많은 비판들은 언론노조 일극체제가 완성된 뒤에, 그러니까 비판을 하기 어려운 폭압적인 사내문화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참고인 강명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7년 동안 이렇게 노와 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특히 오요안나 사건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었고 사내 아나운서라든지 지인들한테 혹은 출연자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내가 괴롭다’ 얘기를 했는데 ‘너가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을 유족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되는, 고인 물은 계속 썩고 그런 부분들이……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노사 동일체가 되니까 비판과 견제가 없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참고인 강명일 예, 점점 안에서 썩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요안나 사건을 지난번에 현안질의에서 했는데……

PPT 하나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소위 폭압적인 문화,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고민을 토로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4명이 누구인지 알아 달라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강명일 예,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요.

○김장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오요안나하고 대화한 분이 MBC 현재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는 김수지 아나운서입니다.

○참고인 강명일 예, 지금 앵커를 맡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고인은 선배 기상캐스터인 박 모 씨로부터 ‘실력이 없다’, ‘너 때문에 기상팀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MBC 관계자들에게 전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김수지 아나운서와의 대화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해자인 박 모 씨가 기상팀장인 현인아 씨로부터 ‘실력이 없다’, ‘기상팀이 사라질 수 있다’, ‘견방지다’ 이런 내용의 지적을 받으면서 괴로워했다는 거거든요.

○참고인 강명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요안나 씨한테 한 게 아니라 현……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현인아 씨가 박 모 가해자한테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모 가해자가 오요안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식으로. 못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참고인 강명일 저런 얘기는 유족들한테 한 번 들은 적은 있으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현인아 씨가 왜…… 현인아 씨가 제가 있을 때 무기계약직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까지 돼서 그 뒤에 언론노조 편에 서 가지고 이례적으로 정직원이 돼서……

지금 부장이지요?

○참고인 강명일 예, 지금은 기상팀장을 한 4년 정도 했다가……

○김장겸 위원 거의 부장급이지요?

○참고인 강명일 지금은 기후전문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래서 이런 현인아 씨의 소위 강압적인 팀 운영 방식 이게 MBC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압적인, 폐쇄적인 폭압 문화 이런 게 언론노조로 기인됐다, 특히 언론노조를 등에 업은 현인아 부장이 어떻게 보면 중심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강명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승호 사장이라든지, 그때 2018년에 김장겸 사장님 물러나시고 최승호 사장님이 들어온 다음에 언론노조원들이 보도국에 점령군처럼 진입을 하고 그때 전문계약직에 있다가 기상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레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 3노조원 2명을 기상팀 밑에 평가자로 데리고 있으면서, 근 9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날씨 단신만 시키고 전혀 뉴스데스크 방송을 못 하게 하고 얼굴을

못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김장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김수지 아나운서가 여기서 오요안나 씨하고 대화 가운데……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면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5분이에요.

○**김장겸 위원**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할게요.

.....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 오셨구나.

지금 의결정족수 됩니까?

○**김현 위원** 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1시38분)

○**위원장 최민희**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5월 8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7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21시40분)

○위원장 최민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 텐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3분입니다. 추가질문하면 5분, 이어서 하면 3분 더 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이번에 3분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이번에 5분인데……

○이정현 위원 예, 더 안 할 테니까……

○위원장 최민희 또 추가질의하실 건데……

○이정현 위원 더 안 하려고, 제가 아까 전에……

○위원장 최민희 더 안 하면 3분 더 드린다고 했는데 김장겸 위원은 안 쓰셨습니다.

5분 하실 거예요.

○이정현 위원 저는 한 칠팔 분 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 최민희 8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8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 안 하시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예.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의원실에도 수많은 제보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분들께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SK텔레콤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함에 분노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남성 가입자와 제가 조금 전 저녁 시간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 국회의원들이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정작 가입자분들의 목소리는 오늘 들리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인터뷰를 하고 틀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어떤 지점에 화가 나 있는지 말이지요.

준비된 인터뷰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일단 여기까지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4374일 동안 SK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365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12년가량의 아주 장기 고객입니다. 저도 그 이상으로 쓴 장기 우수 고객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분이 7개월가량 약정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약금, 위약금 이렇게 해서 55만 5120원을 납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사장님?

○증인 류정환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정말 화가 나겠지요?

○증인 류정환 예.

○이정현 위원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더 이상 SK텔레콤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화번호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또 어떤 부분에 화가 났는지 인터뷰를 마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유심을 바꾸려고 예약하고 갔는데 대리점에 가 보니까 5장밖에 안 된다고 해서 되돌아왔고 유심보호서비스 이것 가입을 한다고 해도 정보가 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도 없고,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 SK텔레콤을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분처럼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SK텔레콤을 아예 떠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가면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서도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잘못은 SK텔레콤이 해 놓고 이렇게 소비자들, 가입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통신취약계층들은 더더군다나 화가 나고 TV를 틀어 보거나 신문을 보면 엄청나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별도의 문자 공지나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고요. 어르신들이 아픈 다리 이끌고 가서 길게 줄을 서도 대응이 안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말이지요.

유심보호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유영상 사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고객이 직접 앱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입해야 하며 52만 명이 대기한다고 145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문자, 거기 뜨는 그것만 봐도 되느냐, 답답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SK텔레콤에서 모든 가입자들을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유영상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SK텔레콤의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오간 다음에 댓글들이 무수하게 달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라고 한다면 2300만 명의 가입자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SK텔레콤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댓글들을 달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류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서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용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상 상태에서 만들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객한테 유심보호서비스를 알리려고 하면 개발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개

발이 필요한데 그 개발 기간이 일단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하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가입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낱한시에, 동시에 2300만 가입자들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 52만 명이 대기하고 145시간을 기다리도록, 가입자들에게 기다리도록 할 수 있는냐는 말입니다. 기다리시지 말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모든 가입자들이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겁니까?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서버 다운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증인 류정환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 서버의 30배 용량의 요구가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버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오늘 현재 보면 대충 1200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말 정도까지 가면 20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추한 2000만 명 되면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현 위원 그것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100% 보장하겠다, 아침에도 유영상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SK텔레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금 피해자들에게만 오롯이 피해를 책임지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것 아주 무책임한 것이지요.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그 사이에 발생해서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거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요.

○증인 류정환 유심보호서비스를 깔지 않더라도 이번에 불법 복제에 의한 피해가 난다면 저희가 책임을 배상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2000만 명 이후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까는 것을 지금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부가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인데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모바일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통신 대란 사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가입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시간이지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 매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김경훈 광고 수익화가 가능한 유튜버들은 광고를 통해서 저희와 수익을 나누고

요. 그 외에 멤버십이라든지 또 머천트(merchant) 판매라고 하는데요.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들을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시청자들의 댓글, 좋아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서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조회수를 얻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맞지요?

○**증인 김경훈** 예, 좋은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에 붙는 광고 수익을 구글도 받고 있지요?

○**증인 김경훈** 예, 저희가 일부 갖지만 크리에이터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 수익구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유명인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참사 관련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인까지 욕되게 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경훈** 저희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유튜브가 수익을 공유받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사장, 2022년 발생한 이태원참사 희생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경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수백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타깝네요. 22년 10월 29일 당일 밤에 15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참사 희생자는 159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증인 김경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159번째 희생자인 16살 어린 소년은 이태원참사의 생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태원참사와 관련 영상에 참사 발생 2년이 훨씬 넘는 지금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댓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태원참사는 노조가 기획한 사고다. 사탄 신봉자 수십 명이 고의로 일으켰다. 마약 사탕 테러 사건이다. 희생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려고 몰렸다’ 등의 댓글들이 이미 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는 논란이 될수록 노출이 많이 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수익구조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활개 치는 구조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이 12조예요. 그중 유튜브 광고매출 3조 8400억 원입니다. 이 3조 원이 구글이 사이버 레커와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가수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구글 본사를 통해서 유튜브버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변호사는 국내에서 서른일곱 번의 신원확인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내서 구글 미국 본사로부터 신원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해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평범한 시민들인 참사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의 처벌을 위해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경훈 우려하신 사항 알겠지만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황정아 위원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실 것입니까? 최소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신원정보 제공 결정이 나온다면 구글코리아가 본사를 통해 받아서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글코리아가 손 놓고 본사 통해서 받아라라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륜을 묵인하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일반 대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벌면 장땡입니까? 그 돈 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 사장은 구글은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고 끊임없이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경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 말 속뜻을 들여다보면 현지에는 법률이 없으니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들립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사자명예훼손까지 그리고 제 돈벌이를 위해서 그 모든 위법적인 것들을 내버려두고 있는 유튜브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유튜브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튜브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변 이익 자체를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증인 김경훈 우려사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소비되는 콘텐츠 대부분 정상적인 콘텐츠입니다. 특히 댓글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없고요. 우려하신 영상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 거지요?

○황정아 위원 예,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3분 더 쓰십시오.

○황정아 위원 안 할 거였지만 또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 사무총장, 질의하겠습니다.

류희림 씨가 일신상의 사유를 핑계로 위원장직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방송장악을 함께 꿈꿔 왔던 동지가 떠났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아쉽습니까, 아니면 이미 얻을 건 다 얻은 상태라 상관이 없으십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음흉하게 온갖 구린내 나는 일들을 다 꾸미던 류희림 씨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들이 드러나자 결국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놓고 핸드폰을 갈아 치우면서 증거까지 인멸하다니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이현주 사무총장은 혹시 핸드폰 바꿨습니까, 최근에?

○증인 이현주 아니요, 안 바꿨습니다.

○황정아 위원 바꾸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현주 예.

○황정아 위원 류희림이 도망갔다고 해서 류희림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희

림이 저지른 방송장악 폭주 그리고 불법 민원사주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앞으로 다시는 류희림 같은 최대의 망나니가 방심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류희림의 수족이 되어서 불법 만행에 부역한 자들 역시 함께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밀실 야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방심위 안에서 류희림 사단을 꼽자면 단연 이현주 사무총장과 박종현 감사실장입니다. 류희림 체제에서 발탁이 되었고 고위직 1급 승진 달콤한 선물까지 받은 분들 아닙니까? 류희림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양심 따위는 버렸고 류희림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분들입니다. 특히 류희림 민원사주 감사에서 전결권자 이현주 사무총장 맞지요? 이현주 사무총장과 감사 실행자 박종현 실장이 째짜미 감사, 봐주기 감사 그리고 범죄 은폐 감사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현주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황정아 위원 류희림에게 시간을 벌여 주고자 수차례 셀프 연장 반복하셨던 것,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던 것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원사주에 대한 명백한 진술과 정황이 증거가 넘쳐났는데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궁색한 이유로 감사를 덮었습니다. 부실 감사는 곧 국민 비판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심위의 감사를 부실 감사로 결론짓고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현주 모든 감사와 관련된 것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현주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감사 전결권자 아니었습니까?

○증인 이현주 전결권이라는 것은 감사의 개시와 보고에 대해서 결재하는 것입니다.

○황정아 위원 박종현 실장에게 수시로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사무총장으로부터, 부실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류희림은 패전 장수처럼 도망을 쳤는데 류희림 사단은 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언제 사퇴하시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사무총장과 감사실장의 부역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이현주 적절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류희림 씨가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 본인이 불법적으로 박종현 실장에게 지시한 것, 양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현주 제게 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어허, 저 얘기를……

○위원장 최민희 왜 그러세요, 갑자기?

○최형두 위원 적절치 않습니다.

○김현 위원 뭐가 적절치 않아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따지지 말자면서요.

○위원장 최민희 평가하지 마세요.

○증인 이현주 아니, 저를 평가를 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뭘 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왜 나왔어요?

- 증인 이현주 부역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와서?
- 위원장 최민희 예.
- 김우영 위원 부역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 증인 이현주 그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 김우영 위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 증인 이현주 저는 정해진 자리에서 제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함부로 부역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 김장겸 위원 생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거지요.
- 김우영 위원 참 좋은 인권 가지고 계시네.
- 증인 이현주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류희림이 전횡할 때 말이지 옆에서 거들고 말이야!
- 증인 이현주 자기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민희 아니, 류희림 위원장이 멋진…… 존경하시나요, 류희림 위원장?
- 증인 이현주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존경하시나요?
- 증인 이현주 저한테 부역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최민희 존경하시나요?
- 증인 이현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 위원장 최민희 존경하시나요?
- 김장겸 위원 존경하는 것과고는 다르지요.
- 김현 위원 아니, 부역이 아니면 배신이지요, 이제 류희림에 대해서.
-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을 존중하시나요?
- 김현 위원 부역하다가 배신하는 거지요.
- 위원장 최민희 존중하시나요?
- 김장겸 위원 모욕 주지 맙시다.
- 증인 이현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요. 본인이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그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위원장인데. 세상에 제가 방송위부터 방심위까지 봤지만 위원장이 나서서 청부민원, 동생이 민원 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원장이 하는 일을, 정말 방송 독립을, 방송의 공정성을 짓밟는 심의를 주도한 위원장의 역할을 견제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증인 이현주 그것은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조건입니다. 들어가세요.
- 황정아 위원 류희림이 죽여 놓은 방심위 직원들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파렴치함을 부끄러워 하십시오.
-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방통위나 상대로 얘기할 때 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무지막지한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 가고 있지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갈아 치우고 준공영방송사 지분을 건설회사에 넘기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법정 제재를 남발하거나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은 언론사 기자들 가리지 않고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은 끝이 이렇게 난다, 역시 정의는 살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YTN 등 방송통신 분야인데 SK도 하고 YTN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KBS 문제를 좀 볼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7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대행들이 썼던 수많은 40건이 넘는 거부권 중에 유일하게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로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과방위원들도 많이 들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통과를 했습니다. 22년만입니다. 유일하게 통과가 됐지요.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TV 수신료, 줄속적으로 처리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 놓고 통합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KBS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원장도 교체하고 KBS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고, 이 꽃아 났던 낙하산이 땡운뉴스를 틀었는데 파우치보다는 약하다고 또 바꿨지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박민 사장이 지금은 떠났는데 인건비 절감한다면서 두 차례 명예퇴직도 하고 희망퇴직도 하고 무급휴직도 단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순수하게 KBS의 어떤 자립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치졸하게도 예산 가지고 자금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던 거지요.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방통위 설치법 보면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22년 만에 거부권 된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이 말에 동의합니까?

○**증인 김태규** 글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가타부타 토를 다는 것은 별로……

○**한민수 위원**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증인으로 와 계시는 박상현……

○**증인 김태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 잠깐만요.

○**증인 김태규** 제가 평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민수 위원**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증인 김태규 그만할 겁니다.

○한민수 위원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창피함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이제 다 끝나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역사와 국민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본인도 좀 돌아보면서.

○증인 김태규 충분히 부끄러워하고 역사 앞에서 당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 말을 나중에 책임지게 될 겁니다.

○증인 김태규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한민수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줄게요. 그때도 한번 그 얼굴 낮 보나 봅시다.

○증인 김태규 그러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OK목장의 결투’ 하십니까, 말로?

○한민수 위원 웃지도 마세요, 질의할 때는.

○증인 김태규 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그래요. 가치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보인 태도,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딱 부역자 같아요.

○증인 김태규 국민을 가장 무섭게 보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한민수 위원 조용히 하세요, 좀!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가만 계세요, 답변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박상현 KBS 언론노조 본부장 계시지요?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어 주겠어요.

박상현 본부장님, 통합징수 결정된 이후에 지금 KBS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일단 대단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 외부 세력이 KBS를 공격을 하면서 편파방송 운운했지만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됐던 사람들이 정말 KBS를 살리려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권의 명을 받아서 KBS를 장악하려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KBS 수신료가 정상화된 만큼 다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 재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봤어요?

○참고인 박상현 일단 법안을 발의해 주셨던 김현 위원 감사드리고 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한민수 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찬성했습니다.

○참고인 박상현 예, 감사드리고. 또 국민의힘에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던 것만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한민수 위원 저도 조금 더 쓸까요?

○위원장 최민희 3분을 더 아예 쓰시고 추가질의를 하지 마세요.

○한민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KBS 임직원들, 내부 직원들도 여러 가지 힘을 모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인 박상현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여전히 정말 공영방송이 회복도 되고 내란 세력의 청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늘 박장범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사유서를 낸 것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PPT 한번 볼까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이것 나중에 수정된 것 아시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한민수 위원 눈 부릅뜨고 보면 옆에 보입니다.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조그마하게 ‘혐의’를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좀 아세요?

○참고인 박상현 원래 제작진이 했던 제목이 ‘대통령과 우두머리’였는데 데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사제작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혐의이지 않느냐, 그런데 제목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두머리라는 것을 쓸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태클, 시비를 걸면서 방송을 마지막까지도 주저앉히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제작진이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든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고 그 타협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혐의’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추적60분 이것도 불방이 된 거지요.

○참고인 박상현 추적60분이 2부작으로 ‘계엄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이 부정선거론의 허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가기 불과 하루 전에 사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KBS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어떤 기반, 토대는 이번 방송법으로 많이 마련이 된 걸로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은 여전히 이런 식의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여전히 잘못된 파면된 세력을, 부정선거론자랄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조합 차원에서도 최근에 뉴스 대선보도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방송사나 뉴스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내란 재판이라든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보도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잘 기록도 하시고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비판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강희석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 대표님은 지난해 12월에 취임하셨지요?

○증인 강희석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YTN 대주주사인 유진이엔티의 대표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YTN 경영성적표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증인 강희석 예, 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입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저 적자 폭이 방송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매출 규모를 적용해서 매출 대비 손실 규모를, 손실률을 따져 보면 그냥 톱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진이엔티가 1398억 원 당기순손실 기록했지요? 맞아요?

○증인 강희석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에 1300억대 YTN 주식 손상차손이 반영된 것 맞지요?

○증인 강희석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유진기업도, 유진그룹의 대표 기업인 유진기업도 1007억의 단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1300억대의 YTN 주식 손상차손이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유진기업 어려워지니까 희망퇴직까지 실시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YTN 때문에 YTN 본체도 그렇고 대주주사도 그렇고 그룹의 중요한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스스로 지분 매입한 걸 돌릴 수는 없고 YTN 사장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진 책임 안 묻습니까?

○증인 강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검토해 본 바가 없군요?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이해가 일치하는가 보지요?

적자가 발생한 회사 그리고 여전히 올해도 매우 힘들어요. 힘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노조가 요구하지도 않은 격려금을 전 직원한테 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게 상식적인가요? 그 사실은 아세요?

○증인 강희석 예, 올해 YTN이 개국 30주년을 맞아서 격려금으로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주라고 했습니까, 대주주사로서?

○증인 강희석 아닙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했대요?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유진그룹에서 지원한 자금도 아니고요?

○증인 강희석 자체 자금입니다.

○노종면 위원 격려금 지급하고 이틀 뒤에 예산 축소한다고 공지 띄웠더만요. 제목이

이겁니다.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예산 조정’ 이것도 아시지요?

○증인 강희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김백 사장님, 격려금 임직원들한테 다 지급된 거지요?

○증인 김백 예.

○노종면 위원 혹시 임원들도 받았습니까?

○증인 김백 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장 본인도 받으셨어요?

○증인 김백 예, 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해 적자를 그렇게 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강희석 대표님은 오산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증인 강희석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서울 법대 나오셨고 행시 출신이시고, 걸어온 이력을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와 같아요. 친분이 있으신가요?

○증인 강희석 예,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안면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진그룹하고는 지난해 유진이엔티 대표 되기 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증인 강희석 24년도 초에 방통위의 최다출자자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을 낼 때 경영자문을 해 주면서 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23년?

○증인 강희석 23년 12월 말입니다.

○노종면 위원 23년 말에 유진의 매각 승인 얻어 내는 데 도움을 주셨군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혹시 유진이엔티 대표 되는 데 도움을 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증인 강희석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그냥 친분이 있는 사이고.

증자 얘기를 잠깐만 좀 하지요.

200억 유상증자 예정되어 있지요?

○증인 강희석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YTN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했고요.

왜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합니까?

○증인 강희석 그것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가장 최적이면서 동시에 방통위가 부과한 이행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지금 유상증자 이전과 이후를 보면 유진이엔티의 YTN 지배력이 확 차이가 납니다. 증자되기 전의 지금은 5% 이상 주요 주주가 합심을 하면 표 대결에서 유진이엔티를 이겨요. 그 구조지요. 그런데 증자가 200억 되고 유진이엔티가 삼자배정 방식으로 모두 증자를 받아 내면 역전됩니다. 이것 경영권 방어 차원의 불법 제삼자배정 방식 아니에요?

○**증인 강희석** 위원님, 이번 증자의 가장 큰 목적은 방통위가 저희에게 부과한 200억에 대한 증자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3년 내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가 2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상 그 의무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이 거짓말을 제가 바로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그냥 육성으로 하시지요.

○**노종면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도…… 저는 오늘 이것 3분 하고 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민희**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노종면 위원** 마이크를 좀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김현 위원** 크게 얘기하래요.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크게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시간을 정당하게 배분해야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은 맞춰서 쓰겠다는 거예요. 총량은 맞춰서 쓰겠습니다. 제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민희** 그건 간사 간에 합의하시면 총량……

○**최형두 위원** 5분씩 더 주십시오. 5분씩 해 가지고……

○**노종면 위원** 제가 앞으로……

○**최형두 위원** 지금 10시 반인데……

○**위원장 최민희** 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계속하시겠다는 위원들께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다, 이번으로 끝내겠다고 하면 3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 원칙 안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것 같아요.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전준형 참고인님하고 고한석 참고인님, 이쪽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전현직 지부장님이시지요?

○**참고인 전준형**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유진 측이 인사를 하면서 보도 편성, 정치부 등에 대한 핵심 보직 인사를 대거 변경 임명했지요. 그리고 작년 삼사월 달에는 탐사 플러스 등 비판 보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팀을 해체한 그런 사실이 있지요?

○**참고인 전준형**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YTN 노조가 총파업 실시했고. 맞습니까? 아니가요?

○**참고인 고한석** 총파업은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다음에 3월 달에 내부 고발로 정권 비판 금지 지침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고한석** 그런 지침이 문건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된 적은 없으나 보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경영진이 지금 현재 옆에 계신 노종면 위원, 과거에 YTN 직원이었던 분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참고인 전준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YTN의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을 다루게 됐습니다. YTN 국회팀 내부에서 노종면 위원의 대변인 녹취나 성명을 기사에 쓰지 않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어서 사내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회팀의 반장급 그리고 정치부장급 사이에서 그와 같은 지시가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고 취재 부서뿐만 아니라 영상편집부에도 비슷한 지침이 내려가서 화면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 측은 일정 기간 우리 회사 출신 정치인의 화면 사용을 자제한 다라는 이유를 댔고 그와 함께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한 페널티의 측면도 있었다, 더불어서 특정 사감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유를 댔었는데 노조에서는 그런 이유 자체가 특정 정치인을 뉴스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런 이유만으로 뉴스에서 특정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해당 사실들이 공정방송위원회 회의록으로 회사 내에 공지가 됐습니다.

○**김우영 위원** 김백 사장님, 방금 노조지부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진이 제작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등을 통해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그룹이나 개인 등을 보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백** 그런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금 지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국회 취재반장이라든가 그런 라인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증인 김백** 사장이 구체적인 취재와 관련해서 취재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하는 것이고요.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의 소신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우영 위원** 지부장님, 사장님하고 대면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인 전준형** 일단 우리 회사는, YTN은 보도전문채널로서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 왔습니다. 그 핵심 제도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였습니다. 보도국 직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보도국장을 사장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게 해 뒀는데 김백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우영 위원 폐지했지요?

○참고인 전준형 예. 본인 마음대로 보도국장을 두 번이나 갈아 치웠습니다. 보도국장이 결국 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보도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이제 경영진이 보도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게 김백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YTN의 보도국은 경영 파트뿐만 아니라 대주주사인 유진그룹의 영향력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3분 더 하실래요?

○김우영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3분.

○김우영 위원 사장님, 작년에 아무튼 취임과 동시에 그간에 YTN이 불공정 편파 방송을 했다 이런 식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셨고 그 이후에 그 기조하에서 YTN 방송의 전반적인 지향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편중된, 정치적 시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엄 이후에. 그리고 조갑제, 정규재 이런 보수적 인사들도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보도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보도본부장이나 관련 책임자들을 불러서 지난 1년 동안의 YTN 보도가 혹시나 이런 정권 편향적인 보도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고 전반적인 재정립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증인 김백 어떤 것을 재정립……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보도의 편향성,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시청률은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김백 예.

○김우영 위원 그런데 노조를 비롯한 다수의 YTN 구성원들은 공정방송의 전반적인 정신이 퇴색하고 사장의 성향에 맞는 그런 방송으로 일관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김백 위원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보도에 구체적인 관여를 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김우영 위원 그러면 왜……

○증인 김백 저희 보도가 편향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선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모든 제작을 하고 있는 기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들에게 사장이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어떤 지침을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와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김우영 위원 아주 훌륭하시구먼요.

○증인 김백 균형적인 보도……

○김우영 위원 내란행위를 일삼는 정권에 대해서 그 정권의 논리를 따옴표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가장 내란 동조 방송 많이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하에서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백 아니, 위원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김우영 위원 그런데 구성원들이 사장님 취임 이후에 보도의 편향성과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백 아니, 일부에서는 그렇게……

○김우영 위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귀를 열고 들어야지.

○증인 김백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우영 위원 지부장님 얘기해 보시지요.

○참고인 전준형 김백 사장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백 사장이 지금 보도국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김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면서 보도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YTN의 보도를 편파방송이라고 사과방송을 하면서 YTN의 보도를 스스로 편파방송으로 낙인찍었습니다.

YTN은 이전까지 옥스퍼드 로이터저널리즘 신뢰도 1위를 차지했었고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신뢰도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받는 YTN 보도에 대해 갑자기 대주주가 사장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내리쬘은 사장이 와서 편파방송으로 YTN을 낙인찍는 것은 YTN 보도국 전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YTN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갉아먹는, YTN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1년 후에 지금 와서 보도국의 독립성, 자율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해괴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요즘 YTN 공정하게 방송하던데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K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KBS 시청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K-웹사이트의 발신 기지이자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파할 발신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특히 국민의힘이 많이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별로 논박하거나 논거할 가치는 없지만 지금 KBS 수신료가 아파트에서 다 함께 공동 징수되는 방식으로 해서 90% 이

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걱정입니다. KBS 민노총 노조가 뭘 믿고 저렇게 큰소리 뽐뽐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앞으로 KBS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구십몇 % 견혀요. 그래서 100% 싹 걸어서…… 그러니까 KBS 노조나 KBS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려면 시청료를 한 5000원으로 올려 달라든가 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1당한테. 그러면 우리 2당도 협조하겠습니다.

2500원 올려 가지고, 지금도 구십몇 %가 넘는데 다시 시민들 저항에 부딪히면서 징수를 했다가 약간의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운동 같은 것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다만 KBS가 지금 수신료 문제로 너무들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급한 불은 끄려고 했던 건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BBC, NHK 같은 방송국처럼 다시 크려고 한다면 BBC, NHK 같은 재무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세금으로 KBS를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시청료는 준조세지만 그것도 지금 TV 보지 않는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BC, NHK 같은 그런 재무구조, 자산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지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법도 통과시켜 달라고 1당하고 2당한테 호소해 주십시오. 정말 KBS가 BBC, NHK 못지 않은 글로벌 방송사로서 발신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YTN도 24시간 뉴스채널로서 CNN과 경쟁하고 동북아 뉴스는 항상 제일 앞서서 모습 보여 주십시오.

YTN이 지금 민영화라고 그러는데 YTN 민영화 계획이 아까……

노조위원장님,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YTN 지분 매각 계획이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해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2020년에는 없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YTN 지분 매각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의 CNN이 공기업 계열사라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어려울 때 안정된 수익을 올리는 공기업에 의탁해서 잠시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YTN 인수의 적합성은 YTN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느냐, 인수한 사람한테 부당한 이익을 주었느냐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고 그건 당연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장관님도 오래 계시고 하니까 장관님, 방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SKT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3분.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3분 이따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SKT는 데이터 브리치 리포트 이런 걸 냅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증인 류정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말하자면 미국이 버라이즌이면 한국은 SKT 아니겠습니까, 최고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증인 류정환 예.

○최형두 위원 버라이즌은 매년, 버라이즌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피싱 뭘 했거나 그 다음에 크리덴셜 세프트(Credential Theft), 그러니까 신원을, 이렇게 유심 정보 같은 게 노출됐다거나 이러면 리포트를 냅니다. SKT는 냅니까?

○증인 류정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가 돼야지 SKT가 그렇게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방통위는 그걸 다 갖고 계시지요, DBIR 이런 것?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녀오시면서 다 리포트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미국 법무부, 미국 FCC 모두 지금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사이버 보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심 스와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도 피해를 당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태평무사한 거예요. 주변에 적국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고 지금 옆의 서해에는 슬금슬금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이버 보안만큼 중요한 이런……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번 뒤집어져 가지고 법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FCC가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대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의 자기 보호 노력입니다. 그런 보호 노력을 얼마나 하십니까, SK텔레콤은?

○증인 류정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최형두 위원 DBIR 같은 이걸 매년 내요. DBIR 내가 지금 보여 주면 좋겠는데,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SK텔레콤 다 나오셨지요?

나는 이번 사례가 사실은 우리나라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국내 최고의 통신 회사인데, 이동전화 회사인데 이동전화 회사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G7급 반열에 올랐다고, 민주주의 하면 또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를 노출 당할 수가 있나.

이게 만일 적성국가에 흘러 들어가서…… 실제로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 스와핑을 통해서 금융 사기도 발생하고. 이제 이 유심이 가고 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개보위에서는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겠지요. 그러면 우리 금융 질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붕괴되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SKT의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고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태다. 우리가 이 기회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넷 공급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트 타이푼 같은 이런 아주 악명 높은 해커 그룹들

한데, 미국도 휘젓는 판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버라이즌 몇십 년 됐습니
다, 이거 한 지가.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음에 있을 청문회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부도
그리고 SK텔레콤도 그렇고 다 준비해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SK텔레콤도 답하셔야지요.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 통신 재난인데
요. 지금 아직까지도 SK텔레콤 측으로부터 MMS 문자를 받지 못한 인원이 한 300만 명
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SK텔레콤 측은?

○증인 류정환 저희 쪽, 로밍 고객을 제외하고는 어제 발송을 다 끝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300만 명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
니까 파악해 보셔서 300만 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기종에 따라서 장문의 문자를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단문
으로 보내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SK텔레콤 측이 국민 2300만 명 공히 다 받을 수 있
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류정환 예, 어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유진그룹이 YTN 경영에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입을 하면 조건부 승인을
어긴 것이 됩니다.

김백 사장님, 혹시 YTN 디지털국을 유진그룹 홍보대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증인 김백 홍보대행사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유진그룹의 홍보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왜 맡아서 하지요? 분리 독립이 되어 있는 건데요. 보도와 경영도 분리가
되는 거고 유진그룹이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YTN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출 극대화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
는 것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유진그룹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백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대행사로 운영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앞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증인 김백 유진그룹이 다른 회사에서 하던 홍보업무를……

○김현 위원 YTN 디지털국이 한다?

○증인 김백 저희 YTN 디지털국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김백 예.

○김현 위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나오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배중섭 참고인 준비하십시오.

청부 민원 관련해서요, YTN 김백 사장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YTN 출신이 류희림의 청부 민원에 가담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현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현 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증인 이현주 예.

○김현 위원 지금 4명이에요. 오늘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나왔는데요. 이상순 전 전략기획본부장, 김현우 정책실장, 최유석 전 경영지원실장, 정철민 인사팀장이 류희림 청부 민원에 가담한 YTN 직원입니다. 금시초문이신가요?

○증인 이현주 예, 들은 바 없습니다.

○김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배중섭 참고인 나오십시오.

2017년도에 2인 구조, 3인 구조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뢰한 적 있으시지요? 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고삼석 부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시절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신 적 있으시지요? 방통위가 2인, 3인 구조 때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기억 안 납니까?

○증인 배중섭 그때는 제가 기획조정관이 아니었고……

○김현 위원 아니었더라도……

○증인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했지요?

○증인 배중섭 아닙니다. 제가……

○김현 위원 방통위가 했지요?

○증인 배중섭 방통위가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의뢰를 했지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2인 구조, 3인 구조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지요, 2017년도에는 방통위가.

○증인 배중섭 제가 그때 소관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소관하고 있지 않은데 2022년도에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무엇을 했는지를 다 확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배중섭 2022년도에 할 때 기존에……

○김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22년도에 2인 구조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17년도 상황을 가지고 2022년도에 검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했잖아요.

○증인 배중섭 맞습니다. 그전의 법률 자문했던 것을 참고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고 나서 2022년도 8월 달에 또 법률 자문을 구했지요,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증인 배중섭 아마 그게 국회의 요청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당시에 집권당에 의해서 요청이 있어서 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7년, 2022년 다 방통위에 근무했던 분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국장이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배중섭 2017년에는 저도 2월경에 대기발령 받고 외국 근무를 나가는 차에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저기요, 제가 질문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1분……

○위원장 최민희 3분 더 쓰실래요?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3분.

○김현 위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또 하나 의뢰를 했어요. 최민희 상임위원이 적법한지 안 한지 의뢰를 했어요.

○증인 배중섭 예, 제가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고삼석도 의뢰가 됐었고, 고삼석 상임위원 때도 의뢰가 됐어요.

그때 며칠 만에 답이 왔지요?

○증인 배중섭 그건 며칠 만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운영지원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법제처에 질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왜 기억을 못 합니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법제처에 의뢰를 할 때 2017년도 상황을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증인 배중섭 아니, 2017년……

○김현 위원 2017년도의 사례를 들어서 2022년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한 주체이지 않습니까?

○증인 배중섭 2017년도에 의뢰한 내용은 제가 소관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증인 배중섭 아마 그 결과를……

○김현 위원 했다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의뢰를 할 때 2017년도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배중섭 2017년도에 했던 법률 자문 결과를 참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 위원 그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배중섭 고삼석 위원에 관한 거는 제가……

○김현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증인 배중섭 2017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과장 때 일이었습니다.

○김현 위원 멈춰 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몰라서 지금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2017년도는 6일 내지 7일 걸려서 답변이 왔고 7개월 동안 답변이 안 올 때 배중섭 국장은 강 건너 불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방송장악을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에 부역한 자입니다.

대통령 1급 포상 받으셨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인 배중섭 받지 못했습니다.

○김현 위원 신청만 됐나요?

○증인 배중섭 아니요, 신청 안 했습니다.

○김현 위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배중섭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이 있었지만……

○김현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배중섭 그전에 훈장 받은 게 있어서 다시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하셨지요?

○증인 배중섭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냈을 뿐입니다.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윤석열……

○증인 배중섭 그건 퇴직 공무원한테 주는 거라고 신청하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김현 위원 언제입니까? 그것 신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증인 배중섭 3월쯤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올해 3월?

○증인 배중섭 예.

○김현 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 내란……

○증인 배중섭 그건 포상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저분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섞어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계속 섞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 배중섭 죄송합니다.

○김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공을 인정 받아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받은 바 있습니까, 이번에?

○증인 김태규 없습니다.

○김현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태규 2명 추천되셨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요, 그전에. 이름 거론된 거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태규 거론이야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김현 위원 그러니까 거론됐습니까?

○증인 김태규 글썽요, 거론은 여기저기서 다……

○김현 위원 누구든지 된다면 포함된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증인 김태규 공식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답변을 너무……

배중섭 씨, 배중섭 증인인가요?

○김현 위원 참고인이요.

○위원장 최민희 참고인.

○노종면 위원 증인이예요.

○위원장 최민희 증인이예요.

배중섭 증인, 앉아서 제가 듣다가 헛갈려서 하나 물어볼게요.

한상혁 위원장한테 최민희라는 사람의 부적격, 적격 여부를 법제처에 보내자고 제안했지요?

○증인 배중섭 그렇습니다. 당시에 결정권자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다음에 제1은 부적격으로 2는 적격으로 한상혁 위원장한테 보고했지요?

○증인 배중섭 그……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1이 부적격, 2를 적격으로 보고했지요?

○증인 배중섭 1과 2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의견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직접. 그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거예요?

○증인 배중섭 그것은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위한 의견으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자체 판단했냐고요.

○증인 배중섭 예, 제가 1설, 2설 이렇게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왜 부적격을 위로 올렸어요? 저하고 무슨 원수진 일 있습니까? 그런데 고삼석 씨 때는 6일 만에 판단이 났어요, 부적격으로. 제 경우 7개월 7일 동안 판단 안 한 것 아시지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앉으세요.

SK텔레콤은 제가 아까 녹취를 든 이유는 저는 처음에 솔직하게 다 보고를 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은폐 의혹이 있다는 걸 문제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녹취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축소해서 통화한 내용이 보이거든요. 오늘 늦게까지 게시고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 날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늘 나왔던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결책.

첫째,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한다. 둘째, 유심을 교체한다. 세 번째, 유심을 포맷해서 쓴다. 네 번째, 화나면 번호이동 한다.

이 네 가지가 소비자의 선택지 맞습니까?

○증인 류정환 1번, 2번, 3번은 다시 수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뭐를 수정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얘기한 거예요.

1, 유심보호서비스 신청한다. 틀려요?

○증인 류정환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 유심 교체 신청한다. 틀려요?

○증인 류정환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3, 유심 포맷 이것도 대안이 됩니까?

○증인 류정환 예, 대안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최민희 네 번째, 화나면 번호이동 한다. 이 경우는 위약금 면제가 전제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먼저 이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유심 포맷하게 되면 교체할 유심이 적다, 많다 얘기 안 해도 되네요?

○증인 류정환 그게 개발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개발해서 짤 하려고 하셨군요.

이 네 가지 저희가 다 살펴봤다는 점 말씀드리고 포맷하는 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개발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제가 확인해 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5월 8일 날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때까지는 유심보호서비스 등록이 다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속도 내세요.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세워 주시고요. 이거 띄우세요.

저도 3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표를 보고 놀랐어요. 다 원내대변인인데요. 보면 노종면, 강유정, 윤종균 다 원내대변인입니다. 그런데 노종면 대변인에 대한 보도량이 채널A보다 적어요, YTN이.

저희가 다 지켜보잖아요. 의정활동 1년쯤 하면 누가 뉴스 가치가 있는 폭로를 많이 하고 누가 의정활동을 잘하고 다 압니다. 노종면, 강유정, 윤종균 세 분 다 알아요, 뭐 하는지. 그리고 논평 뭐 하는지도 의원들은 다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나요? 강유정 대변인 271건, 윤종균 168건, 노종면 57건, 너무 이상해서 알아봤지요.

YTN 노조지부장님, 취재를 했더니 데스크급 기자, 국회 반장이 주도한 것이다, 맞습니까?

○참고인 전준형 일부 맞고요. 그 위인 부장 이상 간부로부터……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정치부장도 동의한 사안이라 오랫동안 노종면 배제 지시가 유지된 것이다, 맞습니까?

○참고인 전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이 YTN 내 블랙리스트네요, 보도 금지 블랙리스트.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자사 출신을 이렇게까지 배척하는 게?

○참고인 전준형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YTN 1호, 영광스러운 1호입니다.

‘대변인 활동 기사 내지 마. 영상 내지 마’ 지시한 시기가 2024년 11월 국정감사 직후 맞습니까?

○참고인 전준형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나요?

○참고인 전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4월 노사 공방위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참고인 전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뀐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참고인 전준형 일부 노종면 위원의 이름이나 녹취에 대해서는 기사에 반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하해와 같은 은혜는 누가 베푼 건가요, 이 하해 같은 은혜는?

○참고인 전준형 정치부 부장과 반장을 통해서 국회 팀원들에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계엄 전후입니까?

○참고인 전준형 최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창피하지 않습니까, YTN의 현실이?

○참고인 전준형 사실 최대주주가 바뀌고 사영화가 된 이후부터 김건희 보도가 성역화 된 것과 같은 많은 권력 비판 보도들이 사실 자취를 감췄고 현장 취재기자들은 나름의 영역에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내부에서는 많이 싸워 왔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의 정치인 보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팀 내부에서는 취재기자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노조 공방위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내부의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좀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공정방송의 중요한 제도들이 사라지면서 사주 그리고 경영진 그리고 보도에까지, 결국 대주주의 입김이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사실 YTN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 그리고 공적 가치를 지키는 일인데 결국 사영화가 되면서 YTN의 신뢰성 그리고 보도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이런 공적 가치들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75년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외치며 쫓겨날 때 그때 그 젊은 기자의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아기들은 다 100일, 돌 이럴 때 모든 걸 뒤로 하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리고 YTN 노조도 동아투위 선배들만큼은 못하더라도 지금 싸우니까 그나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전준형 예,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언론인의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든 어디든 보조적인 도움밖에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켜야 될 것 같지요,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에 잠깐 제가……

○위원장 최민희 먼저 하시겠어요?

○정동영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발언 안 하셨으니까 5분 드리지요.

○정동영 위원 김백 사장님 발언대로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들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986년 5공 보도지침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백 예.

○정동영 위원 그때 기자였습니까?

○증인 김백 몇 년도라고 그러셨지요?

○정동영 위원 5공 보도지침 몇 년도인지 모르세요?

○증인 김백 그때 기자였습니다.

○정동영 위원 1986년.

언제 입사하셨어요?

○증인 김백 81년 말에 입사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5공의 보도지침, 은밀하게 안기부와 문공부를 통해서 하달됐던 보도지침에 대해서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증인 김백 그런 보도지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안 된다?

○증인 김백 예.

○정동영 위원 그때 KBS 사회부에 있었습니까?

○증인 김백 그 당시에 아마 사회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 언론사의 아주 부끄러운 오욕의 시대, 치욕의 시대였습니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야만의 시대의 한 상징입니다. 그때 용기 있는 기자가,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말지에—그때 말지 기자가 최민희 위원장입니다—말지를 통해서 그 경악했던 보도지침 사건이 세상에 폭로됐습니다.

노종면 금지령 그건 김백판 보도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요?

○증인 김백 예.

○정동영 위원 지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참 불쌍사나운 것은, 당당하게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역시 김백 사장도 여기서 아랫사람에게 ‘나는 모른다. 내가 관여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식인의 한 사람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증인 김백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장이 일일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부활하는 것이 본인이 사과문에서 얘기했던,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며 권력의 감시자이다. 이것이 상식이며 기본이다’ 이렇게 큰소리로 외치셨는데 그러려면 보도의 자율성 위해서 좋은 제도 아닙니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역사가 있고 피 어린 투쟁으로 만든 제도인데 김백 사장이 이걸 없애 버렸는데 다시 복원시킬 용의 있습니까?

○증인 김백 제가 사장 하는 동안에는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보도국장 임명을 사장이 하고 그러나 보도에 관여는 하지 않고 노종면 금지령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건가요?

○증인 김백 보도국장의 임명 동의를 한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정동영 위원 강변입니다. 궤변입니다.

언론 노조원 해 본 적 있어요, KBS나 SBS, YTN 있으면서? 한 번도 노조 가입해 본 적 없어요? 방송사 노조가 복지 노조입니까, 자유언론 노조입니까? 노조원 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노조 가입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김백 노조 가입해 본 적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소신입니까? 언론노조는……

○증인 김백 제가 가입을 할…… 노조가 생길 때는 아마 가입할 위치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자율 제작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편파보도라는 말은 모독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백 사장 후에는 자율 제작이고 김백 사장 취임 이전에는 편파보도여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이건가요?

○증인 김백 제가……

○정동영 위원 기준은 김백입니까?

○증인 김백 제가 국민 앞에, 국민들한테 사과한 것은 앞으로……

○정동영 위원 그 사과문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한 것을 사과한다’. 국민에게 사과한 겁니까, 권력자 부인에게 사과한 겁니까? 권력자 부인에게 엮드려 사과한 것 맞잖아요. 인정합니까?

○증인 김백 줄리 보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사과했던 권력자가 탄핵, 파면, 구속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압수수색 중에 건진법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YTN이 무속과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를 가장 집중 조명해서 보도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엮드려 사과했습니다, 김백 사장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는 지경까지 몰렸으면, 추락했으면 그 부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에게 임명장, 본인 사장 시켜 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잖아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까?

○증인 김백 줄리 보도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정동영 위원 쿠데타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금도 충성하십니까? 대선캠프에서 열심히 대통령 되라고 뛰었던 그때 생각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일관된 소신 갖고 있습니까?

○증인 김백 제가 캠프에 뛰지 않았습니니다.

○정동영 위원 공정언론연대 그거는 캠프와 무관합니까?

○증인 김백 캠프와 무관합니다.

○정동영 위원 YTN 사장 된 것은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 아닙니까?

○증인 김백 그렇지 않습니다. 공언련에서 활동한 것은……

○정동영 위원 어떤 능력이 입증돼서 사장이 됐습니까?

○증인 김백 진보 언론단체인 민언련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런 데서 활동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어쨌든 김백 사장이 충성하고자 했던 그 권력자와 권력자 부인을 오늘 검찰수사관 30명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증인 김백 제가 충성하지 않았습시다.

○정동영 위원 아니,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겁니까? YTN 보도는 제대로 심층보도가 됐나요?

○증인 김백 오늘 어떻게 보도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것은 알아서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이 현실에 대해서 개인 김백 사장으로서 어떤 소회입니까?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아니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증인 김백 안타까움이 있지요.

○정동영 위원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증인 김백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방송사 사장이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저도 YTN의 애청자,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사과라는 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 권력자가 이렇게 추락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정도가 지금 김백 사장의 소회 전부입니까? 국민 앞에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책임감을 안 느끼니까?

○증인 김백 제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한 것은 앞으로 YTN의 보도가 더욱더 공정해지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 잠깐 계세요.

공언련이 언제 생겼습니까?

○증인 김백 2022년 대선 전에 생겼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몇 년도에 생겼어요?

○증인 김백 2022년도에 생겼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민언련은 언제 생겼어요?

○증인 김백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언다 대고 민언련과 공언련을 비교합니까? 민언련은 1975년부터 시작해서……

○증인 김백 비슷한 성격의 단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가만히 계세요. 뭐가 비슷합니까,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그 이름으로 시작된 건 1984년 12월 19일입니다. 몇 년 됐어요? 계산해 보세요. 2025년이지요, 지금. 1984년, 2025년, 몇 년입니까? 그리고 1975년 동아투위부터, 조선투위부터 시작하면 몇 년입니까? 2022년 대선 전후해서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언련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줄리 보도라는 게 있었습니까, YTN에? 그래서 그것 사과한 겁니까?

○증인 김백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줄리가 됩니까?

○증인 김백 잘못된 보도 가운데 하나로 그것을 제가 적시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는 이 얘기를 과방위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줄리 보도가 됩니까?

○증인 김백 김건희 여사가 접대부였다는 그 보도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보도를 YTN에서 했습니까?

○증인 김백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까?

○증인 김백 선거 국면에서 그런 보도를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증인 김백 예.

○위원장 최민희 제가 묻는 건 이게 첫째는 사실이나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신 건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증인 김백 그런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요? 사실일 경우 하면 안 돼요? 사실이어도 안 되고 사실 아니어도 안 돼요?

○증인 김백 그게 사실로 그 당시, 아직까지도 확정된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사실 아니라고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사과를 합니까?

○증인 김백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선거보도준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천화동인에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근무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 보도됐거든요. 그렇다고 그 관계된 언론사 사장이 사과하는 것 못 봤거든요.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지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최형두 위원 잠깐, 위원장님, 회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됐고요.

신상발언하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YTN만 하고 다른 분은 가게 하시든지.

○위원장 최민희 아, 그건 좋습니다.

혹시 YTN 제외한 다른 분들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김현 위원 방통위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와 YTN 있어야지요.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차관님 그리고 SKT 류 부사장님 그리고 이상중 원장님 그리고 YTN 노조지부장께도 질문하실 것 없으면 이석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 YTN 관련돼 있으니까 있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잠깐만, 저는 급하게 SK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물어보십시오.

○김장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 아니, SK 하고 그냥 시간을 5분 썬요, 아니면 그것만 잠깐 해요?

○위원장 최민희 그것만 잠깐 하시지요. 지금 기다려……

○김장겸 위원 잠깐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과기부장관님, 차관님, 류 부 사장님, 아까 침투 경위 말이지요. HSS에 들어가는 것이 최형두 위원 지적도 작년 말에 미국에서 이미 당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기사 보면 SKT에서 쓰고 있는 이반티 VPN 그 VPN 기기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증인 류정환 저희 쪽이요?

○김장겸 위원 예, 그게 그렇게 추정이 된다.

○증인 류정환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확인을 못 했어요?

○증인 류정환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왜 급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기기를 국내에서 다른 업체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증인 류정환 저희는 듣지는 못했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도……

○김장겸 위원 아니, 최근 기사가 그게 나오길래 제가……

○증인 류정환 그리고 VPN 쪽은 아닌 것으로 일단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과기부장관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SK 류정환 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중 원장님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김유열 위원장님, 저도 혹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 최민희 김유열 사장님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관계자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심위 관계자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KBS 노조위원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께 신상발언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고 하고 기간을 거치고 복직을 했고 여전히 마음이 남다른 YTN에서 저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음을 안 것은 약 두 달 전입니다. 사실관

게 확인을 하면서도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해 보고, 그런데 사실이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이것은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YTN 내부에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노사 동수의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저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면서 사 측이 한 변명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이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노 측에서 해 왔는데도 이런 거짓 변명을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있었고.

또 한편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생각은 제게는 개인적으로 후배들인 YTN의 구성원들이 지금 힘든 여건 속에서 잘못된 상황 하나하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보도로 드러나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서 여러 불특정 다수로부터 욕도 먹고 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꿔꿎이 이겨 내면서 회사 내부, 언론사 내부의 자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고맙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구한 이유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없으시면 노종면 위원 10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시간이 길어져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못 했던 내용들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강희석 대표님, 아까 YTN에서 지금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방통위에 계획서 제출하면서 약속을 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증인 **강희석** 예.

○노종면 **위원** 방통위의 매각승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 약속들은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왜 사외이사, 이러저러한 특수관계인들은 시키지 말라는 매각승인 요건으로 특정돼 있는, 그것도 1번·2번으로 특정돼 있는 그 사안은 안 지켰습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를 약속 이행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가 일단은 신뢰감이 안 갑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문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때문에 지금 강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강 대표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방통위에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약속했어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그 밑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 뒤에 주주 간 협의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먼저 시도하겠다는 방식을 시도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짧게 답하세요. 했다고 하면 다시 물어볼게요.

○증인 강희석 검토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검토한 자료조차 없다고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유진이엔티에서. 왜 거둬서 거짓말을 합니까? 머리로 검토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검토예요? 제가 YTN 주주입니다. 소액주주입니다. 저한테는 왜 주주배정 요청 안 합니까? 그래 놓고 방통위에 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런 답변을 뻔뻔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증인 강희석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들어가세요.

김경록 이사님 나와 주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적인 제삼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일 수 있습니다.

김경록 이사님, 미래에셋자산운용이라는 주주를 대표하시지요?

○증인 김경록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노종면 위원 미래에셋생명이요?

○증인 김경록 예.

○노종면 위원 이번 증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미래에셋의 지분이 떨어집니다.

○증인 김경록 예, 떨어집니다.

○노종면 위원 왜 동의하셨습니까?

○증인 김경록 일단 제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주어진 조건이 200억 원을 일단 내년까지 증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해야 된다는 전제가 강하게 있었다?

○증인 김경록 예,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제가 물어본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기 언제 할 것이냐? 지금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삼자……

○노종면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방식에 대해서만, 제삼자배정 방식을 하면 지금 주요 주주들 합산……

○증인 김경록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어본 것이 주요 주주들에게 가서 다 동의를 구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들이 다 오케이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에게 이거를 모두 다 배정을 하게 되면 약 700억 정도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장이,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그 정도 공모를 할 때……

○노종면 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규명해야 될 사실관계랑 매우 무관합니다.

○증인 김경록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진이 방통위에 약속한 사실 조금 전에 보셨던 저 내용을 알고 계세

요?

○증인 김경록 저는 200억을 증자를 해야 된다는……

○노종면 위원 저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지요? 모르셨지요? 저거를 알았으면 선포 동의하셨겠어요? 저기에 대한 설명을 유진 측에서 하던가요?

○증인 김경록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사회 때 제가 지금……

○노종면 위원 설명을 들었으면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경록 예.

○노종면 위원 조성인 이사님, 이번 증자는…… 인삼공사를 대표하시는 주주세요. 인삼공사의 지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들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들의 합산 지분율이 유진이엔티 하나를 못 당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 아시지요?

○증인 조성인 예.

○노종면 위원 그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하신 이유는 앞선 김경록 이사님하고 비슷할 것 같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진이엔티에서 저 부분을 설명했습니까?

○증인 조성인 그 당시에 구두로, 만약에 저거를 일반공모를 하게 되면……

○노종면 위원 아니, 저거를 얘기했냐고요. 방통위에 저 약속을 했음을 얘기했던가요?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가 방송 승인, 재승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방통위에 한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살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이사의 책무 아닙니까?

○증인 조성인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 부분 알고 계세요, 지금?

○증인 조성인 저 자체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일반공모를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얘기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일반공모와 제삼자배정 방식의 비교는 그냥 저도 알고요.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저 부분을 왜 감추고 제삼자배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냐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김백 사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회사에 유보금이 좀 있지요?

○증인 김백 예.

○노종면 위원 현금도 있고 금융상품도 있고.

○증인 김백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수백억 규모 아닙니까?

○증인 김백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노종면 위원 1300억 정도, 금융상품까지 포함하면?

○증인 김백 예.

○노종면 위원 이런 회사에 증자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제삼자 방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남은 시간은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백 사장께서는 보도 관련된 사안 질문을 받으면 본인은 다 일임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여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쭙보겠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 공교롭게도 돌발영상이 불방되고 또 방송 직후에 삭제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김백 사장의 취임과는 무관한 건가요?

○증인 김백 저와는 무관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김건희 보도가, 기사가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실 텐데 경영진 개입이 없었습니까?

○증인 김백 예.

○노종면 위원 스스로 알아서, 보도 쪽에서 알아서 했다?

그다음 달인 5월입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디올백 영상 전 국민이 이미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고. 이 영상의 방송을 금지하는 조치가 보도국에 취해졌음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백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걸 몰라요? 디올백 영상을 YTN은 지금도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증인 김백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전준형 지부장님, 지금 사장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YTN 내부에서 조용히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참고인 전준형 디올백 영상 금지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위원회와 그리고 보도국장의 설명까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도 공정방송위원회 안건 등으로 다뤄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두 달 후에요. 아까 앞선 질의 과정에서 언급했던 기사입니다만 제가 언급하는 건 이거예요, 왜 김건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 사과문 띄운 시점이 5개월 된 겁니다.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보도였는데 이것도 보도국에서 알아서 다 했다고 하겠지요? 이 사과문 띄운 것 모르세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한 것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서 정동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도 내용 하나하나 지시를, 관여를 안 한다면서 왜 특정 보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편파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당 보도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게 적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까?

○증인 김백 그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표로 와서 앞으로 YTN의 보도가 더 공정해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의지의 표명 좋은데요 사례를 들었잖아요. 줄리 보도 그리고 신학림·김만배 녹취 보도 그것 조작이라고 단정하셨더만요. 그것 조작이에요?

○증인 김백 잘못된 보도의 사례로……

○노종면 위원 조작 보도라고 했습니다, 조작. 조작 녹취라고 했어요.

○증인 김백 잘못된 보도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는, 편한 거는 판단하고 불리한 거는 개입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 비겁하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백 그거는 제가 보도에 관여한 게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관여한 거지요.

○증인 김백 제가……

○노종면 위원 사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라, 그게 지침이지요. 그런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폐지 자체가 보도 개입인 겁니다.

본인이,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을 때 그거를 배석규라는 사장이 들어와서 없앴지요.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지명된 보도국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것 반복하는 겁니까? 배석규 추종자예요? 본부장 자리 늘렸다가 줄였다가, 본부장들은 임금 피크제 다 걸리는 것 예외로 해 주고 그래 놓고 지난해 이런 적자가 어마어마하지요? 류희림하고는……

○증인 김백 회사의 조직을 줄이고……

○노종면 위원 질문 안 했습니다.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김장겸 위원 아이고……

○노종면 위원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류희림 민원 사주와 관련된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미 이름이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리지요. 김현우 지금도 정책실장 하고 있어요. 최유석 전 경영지원실장, 이상순 전 전략기획본부장, 정철민 현 인사팀장.

지금 전, 현이 다 있는데 그냥 다 현인 것처럼 쓴 게 이유가 있어요. 저분들이 김백 사장 취임하고 다 저 보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나, 취임하시기 전에, 그 전해 9월에 민원 사주에 가담했던 분들이에요. 류희림 위원장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혹시라도 보직 청탁을 받으셨나요?

○증인 김백 그런 사실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류희림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민원 사주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알고 배려해 준 건가요?

○증인 김백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증인 김백 예.

○노종면 위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민영화라는 표현 대신 저는 사영화라고 씁니다. 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돈이 투입되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 다 그럴 수 있다고는 볼니다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돈 많이 쳐준다고 공적인 제도가 훼손될 수는 없는 거고요. 돈 많이 쳐준다고 어떤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 준다, 안 되는 거지요. 절차를 지켜야지요. 그래서 방송과 관련해서는 매각승인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도의 의결을 요구하는 거지요.

기존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관한 입장은 안 판다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외압이 가해져서 결국은 저렇게 지분이 통으로 매각이 되고 방송이 줄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심사 중에도 외압이 가해져서 사추위 제도를 포기하는 등의 약속 변경이 이루어지고 늘 애기하는 위법적인 2인 의결에 의해서 매각이 승인되고 매각 승인 이후에는 그나마 남아 있는 약속들이 불이행되고, 유상증자 방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배력을 높여서 고착화하려는 시도일 뿐이지 방통위 약속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 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유진이라는 대주주의 무자격, 부도덕성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과 제작 자율성 지금 언급한 그런 사례들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고 있어요. 구성원들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리고 김백 체제 들어서고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제발 이제 죽한 줄 알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한 분 하고 끝낼까요?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려 그러다가 지금 과방위의 청문회장이 마치 YTN이 크게 무슨 편향되고 왜곡되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김백 사장님이 언론계 선배인데 선거 앞두고 불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사실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백 사장님!

○증인 **김백** 예.

○김장겸 위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저도 국장, 본부장, 사장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거를 한다면…… 지금 YTN의 사장이 할 수 있는 거는 편집권도 없고 인사권 하나 아납니까? 인사권이 곧 경영권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백**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거를 사실 YTN도 문제인 정권 때 봤지만 언론노조 일극 체제 아닙니까?

○증인 **김백** 언론노조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대부분이 언론노조원이지요?

○증인 **김백** 예.

○김장겸 위원 언론노조와 반대되는 의견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명동의제가 이루어진다면 언론노조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원하는 인물이 보도국장이 반드시 되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보도의 다양성 또 국민들의 의견의 다양성 이런 게 저는 전달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인 김백**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동의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명동의제를 하게 되면 노조가 원하는 보도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공정방송이라는 게 언론노조만이 오롯이 가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의 시각이 각각의 정당마다 다르고 진영마다 다르다면 그런 다양한 시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언론노조 일극 체제 이거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백** 그런 점은 저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질문에, 지금 PPT를 보여 줬는데 이게 최남수 사장 감금·폭언 사건, 침 뱉고 욕하고 이 장면인데 그런데 보면 제가 지금 비판과 견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우장균 사장이 YTN 사장으로 오지요. 그런데 당시 언론노조 YTN 위원장이 조합비 4억 원을 횡령했어요. 이것 아시지요?

○**증인 김백**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김장겸 위원** 그러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명백히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인 김백** 그것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YTN 내부에서 언론노조원들 사이에서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면, 교체될 경우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를 중심으로 차기 사장과 주요 보직자 인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돌고 있는 것 아세요?

○**증인 김백**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유진이엔티에서 오신 분, 정권이 바뀌면 소위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인사로 바뀔 것이다 해서 하마평이 돌고 있는데 이것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증인 강희석**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런 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유진이엔티 사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증인 강희석**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YTN의 인사에는 저희가 개입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김장겸 위원** 이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있는 그대로 보장하고요 이런 것을 배격하고자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곧 정치적 후견주의입니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5분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간사님들 안 하시고 김장겸 위원 하시고 또 김우영 위원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삭제된 돌발영상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시3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23시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YTN 노조위원장, 이것 누가 삭제 지시한 겁니까? 이것은 좋은데, 그렇지요? ‘소주 1병 딱 있으면 되겠구먼’ 인상적입니다.

○참고인 전준형 보도제작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보도제작국장이 이것 담당 PD에게 삭제하라 그러니까?

○참고인 전준형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소주……

○위원장 최민희 항의받았어요?

○참고인 전준형 항의 부분은 알지 못하고요. 섬네일, 인터넷에 저것을 게시할 때 첫 화면에 소주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 지시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비공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알아서 제작진이 삭제한 게 아니라 보도제작국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지요?

○참고인 전준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YTN이 무슨 제작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네요. 그냥 위에서 보도제작국장이 ‘삭제해’ 그러면 딱 삭제하나 보지요, 검찰 조직처럼, 군대처럼?

○참고인 전준형 돌발영상은 아시겠지만 취재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한데 과거 MB 정권 때도 그랬고 사실 풍자성이나 제작의 내용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예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MB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 떡값검사 명단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브리핑하는 걸로 풍자했다가 돌발영상이 아예 불방되는, 폐지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었고요.

○위원장 최민희 YTN 하면 떠오르는 게 돌발영상이지요. 매우 인기 있는 이 프로그램은 누가 기획한 겁니까? 최초 기획자가 누구예요?

○참고인 전준형 앞에 앉아 계신 노종면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김현 위원 노종면 위원 청문회 같아요.

○김우영 위원 유도성 질문이에요?

○김현 위원 몰랐지요.

○김우영 위원 몰랐어요?

○위원장 최민희 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최민희 위원, 김장겸 위원, 박민규 위원, 김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누구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보안체계와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SK텔레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사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려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추

가적인 5월 8일 청문회를 통해 오늘 나온 여러 문제에 대해 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YTN 지분 매각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시장논리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논의를 하면서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법안2소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가 단순히 오늘 회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과 입법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통신방송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YTN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종면 위원님, 그런 이상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 몰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영광으로 생각해야지요, 영광.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탄압은 무엇이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블랙리스트의 주인공이라는 걸 일찍이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0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윤훈수	삼일회계법인(삼일PwC) 대표이사	2025. 4. 30.(수) 10:00	YTN 관련	철회
박상형	한전KDN 사장		YTN 관련	철회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		YTN 관련	철회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YTN 관련	철회
이중현	삼일회계법인(삼일PwC) 세무부문 리더		YTN 관련	철회
민준선	삼일회계법인(삼일PwC) 딜부문 리더		YTN 관련	철회
이승호	삼일회계법인(삼일PwC) FS부문 리더		YTN 관련	철회
허석곤	소방청장	2025. 4. 30.(수) 출석요구 의결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철회
유영상	SK텔레콤(주) 사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	2025. 5. 8.(목) 14:00	YTN 관련	추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최태원	SK 회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최태원	SK 회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유영상	SK텔레콤(주) 사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참고인(2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이기정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2025. 4. 30.(수) 출석요구 의결 시	YTN 관련	추가
고한석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YTN 관련	추가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
대변인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출석 증인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겸방송기반국장)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배중섭(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조성현(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박성훈(육군본부 정훈감)
김진구(전 유진이엔티 대표이사)
강희석(유진이엔티 대표이사)
김백(YTN 사장)
김경록(YTN 사외이사)
조성인(YTN 사외이사)
홍준기(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리더)
송연주(삼일회계법인 인사담당)
정기환(한국마사회 회장)
김장현(전 한전KDN 사장)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김정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
류정환(SK텔레콤 부사장)
김유열(EBS 사장)
유영상(SK텔레콤 사장)
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정수옥(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

○출석 참고인

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우석(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강욱(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
전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박상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
이동근(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강명일(MBC 제3노조 위원장)
고한석(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8)

4월 21일 회부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7)

이상 2건 4월 23일 회부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4월 2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54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35455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9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 (경산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5-3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제3547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5-2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
대통령령	제35457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항공청
부령	제148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우주항공청
	제14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5456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4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1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